•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제 689 호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7월 23일(음력 6월 21일) 수요일(주간)



"화마로부터 목불 지키자"
4 비상하강하는 해인사 비로자나불



"사람 웃음이 가장 예쁜 꽃"
5 도반의 향가-이웃돕기 앞장 이은주씨



"해·결제 없이 순간결사를"
7 선지식-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



"자비사상으로 불국정토를"
9 부산-부산불교련 새회장 정여 스님

한국문학 '세계로'

10주년 맞은 만해축전 8월 11일부터
시인학교·경연대회 시상식 등 '풍성'

한국문학의 세계화, 그 지평을 넓히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

한국문학의 질적 양적 팽창에 혁혁한 기여를 해 온 만해 축전이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자유와 평화로 대변되는 만해 정신의 세계화를 착실하게 주도해 온 만해 축전의 열 번째 무대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만해마을과 백담사 일원에서 마련된다.

문학과 문화 불교 등을 내용으로 폭넓게 전개되어 온 만해 축제는 해마다 인류에 자유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바탕의 잔치로 열려 왔다. 올해의 만해축전은 '건국 60주년 현대시 100년 만해축전 10년'이라는 시간적 의미를 담아 더욱 뜻 깊은 잔치로 펼쳐진다.

이번 축전에서 주목되는 행사는 단연 만해학술원이 주관하는 '만해축전 10주년 기념 학술대회'(12~14일)다. '한국 현대시 100년의 반성과 전망' '한국 현대시의 세계화 문제와 번역' '한국 현대시의 외국어 번역 현황과 문제점' '만해 사상과 동아시아 근대담론 비교연구' 등을 주제로 한다. 한국문학이 세계로 가는 가장 기본요건인 번역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특별한 기대를 하게 한다. 이어령 전 문화관광부장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김종길(고려대 명예교수) 안토니 타이즈(서강대 교수) 김윤식(서울대 교수) 서준섭(강원대 교수) 헨리 메스처닉(파리 8대학 교수) 등 세계 석학들이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전제 조건들을 폭넓게 제시할 전망이다.

올 만해축전도 예년과 다름없이 만해대상을 비롯한 각종 시상식과 백일장 시인학교 경연대회 등 푸짐한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민이 함께 즐기는 대동놀이, 디지털 만해축전 축하공연 등 볼거리로 채워진다.

특히 10건에 이르는 대형 심포지엄은 10주년을 맞은 만해축전의 내적 성장의 표상이다. 축전 기간에는 △시조문학 심포지엄1(한국시가학회, 주제:고전시가와 민족) △종교자유정책 심포지엄(종교자유정책연구원, 주제: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현주소) △시조문학 심포지엄2(경남시조시인협회, 주제:현대시조의 발전방향) △현대시 심포지엄(시와 세계, 주제:현대시와 선시의 회통) △국제문학심포지엄(창작21작가회, 주제:미얀마 불교사상과 문학의 전통과 현대) △현대문학 심포지엄(현대불교문인협회, 주제:불교설화와 현대문학) △현대문학 심포지엄(한국작가회의, 주제:한국의 현대문학과 불교) △현대문학 심포지엄(시와 시학사, 주제:한국시와 외국시의 관계학) 등 다채로운 학술 행사가 열린다. 임연태 기자

▶만해축전 10년 평가와 전망-12면
▶만해축전 10년 영광의 얼굴들 -13면



시방(十方)은 지금 연꽃세상

부처님이 설법대신 들어보이셨던 연꽃. 전국에서 연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제6회 부여 서동 연꽃축제가 7월 18일 충남 부여군 서동공원(궁남지) 일원에서 열렸다. 진흙탕에서 꽃을 피운 연꽃들이 세상을 연꽃 향기로 가득 채우고 있다. 8월 3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각종 체험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맑고 향기로운 '연꽃의 유혹'

전국 사찰·지자체서 연꽃축제 줄이어

무더위가 기승부리는 요즘, 한여름 소나기보다 시원하게 펼쳐지는 연꽃축제가 피서객들을 설레게 한다.

7월 5일 김제 청운사 하소백련 축제를 시작으로 18일에는 부여 궁남지와 태안 청산수목원에서, 19일에는 전주 덕진공원에서 연꽃축제 막이 올랐다. 무안 회산백련지와 고양 호수공원에서는 25일부터 연꽃축제를 시작하고 광릉 봉선사와 신촌 봉원사도 26일과 31일 각각 연꽃축제를 펼친다. 이에 따라 해마다 늘어나는 전국의 연꽃축제를 포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제 청운사(주지 도원) 연꽃 축제는 '얼굴'을 주제로 8월 17일까지 13만㎡ 백련지 일원에서 펼쳐진다. 광릉 봉선사(주지 인묵)는 '맑고 향기로운 연꽃처럼'을 주제로 7월 26~27일 연꽃축제를 연다. 26일 오후 7시 육법공양으로 시작해 산사음악회를 열고, 27일 오후 1시부터는 우리가락 한마당과 노래잔치가 펼친다. 신촌 봉원사(주지 환우)도 7월 3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8월 15일까지 연꽃축제를 연다.

연꽃축제의 포교효과와 관련, 봉선사 인묵 스님은 "사찰이 마련한 연꽃축제는 포교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 축제에서 펼쳐진 불교문화공연에서 얻어지는 불교 대중화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제를 브랜드화한 지자체가 늘면서 지자체 주관 연꽃축제 규모도 커졌다. 이들 축제에는 불교문화 프로그램이 드물지만, 지역 사찰과 불자들이 포교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전주 연꽃축제'는 지역 불교계가 나서서 연꽃축제를 살린 성공케이스로 꼽힌다. 금산사(주지 원행) 등 전북지역 스님들이 연꽃축제에 참여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

시민들은 아름다운 연꽃을 보고 안심(安心)을 얻는다. 연꽃이 그들에게 전한 편안함을 평상심(平常心)이 도(道)인 삶으로 이끄는 것이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이란 목소리가 높다. 조동섭 기자

"日 독도영유권 명기 참회하라"

종단협·보림회 규탄 성명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새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명기한 데 대해 불교계가 즉각적인 시정과 참회를 촉구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는 7월 17일 성명을 내고 "일본의 행위는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몸부림의 하나로 2차 세계대전에 대해 진실한 참회 없이 다시 전쟁 도발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한 후, 일본 정부에 독도 영유권 명기 및 역사왜곡의 중단과 시정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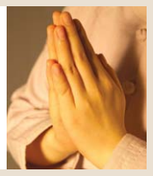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보림회(회장 지준)는 7월 16일 규탄 성명을 내고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 지배측면으로나 명백한 우리 땅"이라며 "일본 정부는 교과서 표기 등 독도영유권 주장 망발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공개 참회하라"고 밝혔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이해찬)도 7월 18일 '양심마저 저버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다시는 일본의 이런 망언이 나올 수 없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진각종은 7월 28~30일 울릉도 일대에서 회당문화축제를 열고 독도 사진전, YB와 함께 하는 독도 아리랑 콘서트, 통구미 동해지킴이 위문콘서트, 독도와 나라사랑 캠페인(동해지도 배부 치 성금 모금) 등을 펼친다. 김성우 기자

여름특집 섹션 8면 발행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강영화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114 017-535-0685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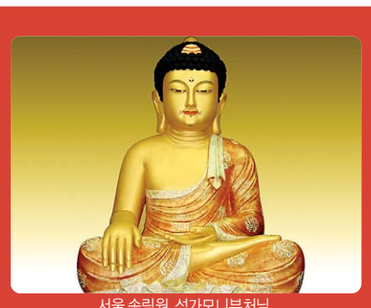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 척척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 생산되는 세계 희귀 금강석과 올이온, 약알칼리, 게르마늄 등을 이온 결합하여 특수 소성된 친환경적인 최첨단 기능성 염주
값 245,000 | 02)723-0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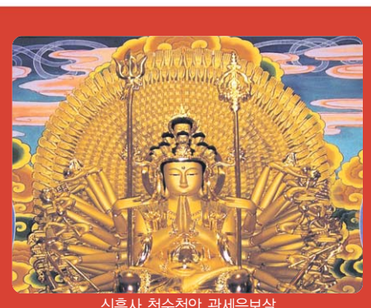
불가 최초 관불 관욕 전용 관불수향
전단향이 그윽한 향탕수로 관불,관욕시 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02)3663-6777

성불조각원 www.sungb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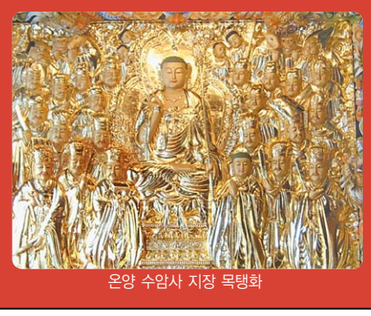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죽비와 목탁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5@buddhapia.com

10·27 교훈과 'MB형 법난' 예방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15일 입법예고됐다. 법난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역사교육관 건립 예산확보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늦게 나마 불교계의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10 · 27법난은 1980년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불교계 정화수사계획-45계획'을 수립, 조계종 스님 등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군 · 경병력 3만 2000여명을 투입, 사찰 5731곳을 일제 수색한 교권유린 사건을 말한다.

이와 같이 승단이 정치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사건은 불교사상 여러 차례 발생했다. 중국에서는 '삼무일종(三武一宗)의 법난'이라 불리는 4번의 큰 법난이 회자될 정도다.

한국불교사에서는 중국처럼 대규모 인명살상은 없었지만, 조선시대 이후 법난에 준하는 박해를 받았다. 조선왕조가 막을 내리고 일제강점기의 왜색불교화 정책을 어렵게 견뎌냈지만, 현재까지도 불교는 순탄치 않는 역사의 길을 걷고 있다.

미국과 친일세력을 등에 업고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 장로는 한국전쟁직후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비구-대처 분쟁을 촉발시켰으며, 1979년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은 사회정화와 미국으로부터의 정통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10 · 27법난을 일으켰다. 비록 법난은 아니지만, 세 번째 장로 대통령을 맞은 요즘도 이명박 정부의 반복되는 종교편향 행위로 불교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장 재직시절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한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까지 봉헌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잇따른 종교편향사건에는 대통령의 종교를 의식한 고위공직자들의 줄서기 행태가 엿보여 우려된다. 게다가 촛불집회와 관련 '사탄의 무리'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추부길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이어 박영모 목사가 최근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들어간 것은 목사출신 청와대 참모가 종교편향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하다.

오랜 법난사를 돌아보면 위정자들은 자신의 정치 · 경제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폐불(廢佛)을 단행하곤 했다. 최근 불교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행위를 감시하기 시작한 것은 또다시 반복될 지 모르는 'MB형 법난'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불교계는 이런 때일수록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승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아름다운동행' 행자부 설립허가

7월말 홈페이지 오픈…본격 소액모금활동 전개 예정

불교계 최초의 공익법인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이 7월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

조계종에서 5억원을 출연한 '아름다운동행'은 다음 주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을 마치고 이달 말 홈페이지 오픈과 함께 본격적인 모금활동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동행은 우선 구호, 복지, 통일, 환경, 국제 등 5개분야 기금을 설치하고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각 분야 기금을 조성한다. 아울러 '기부는 선행이 아니라 습관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소액모금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소액모금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365 운동'과 '네모의 꿈 만들기'가 제안됐다.

매일 소액을 기부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365 운동'은 360원 정도의 소액을 자동이체를 통해 매일 기부, 1년 내내 기부자에게 높은 만족감과 함께 하나의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

'네모의 꿈 만들기'는 저금통 모금운동으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저금통을 제작 배포해, 기부자가 저금통을 채우면 원하는 사업분야를 선택해 기부하는 운동이다. 지난 봉축행사 때 배포해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호응을 얻은 이 저금통은 앞으로 유치원, 학교, 기타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동행은 9월부터는 전국 주요사찰을 중심으로 기부 캠페인을 본격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 · 경기지역 등 약 10여 개소에서 재단을 홍보하는 한편, 모금 및 기부자 배가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아름다운동행 원석준 팀장은 "지난 6월, 그동안 타단체에 기부해오던 익명의 기부자가 재단설립 소식을 듣고 찾아와 500만원을 전달하며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부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불자들과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했다.

조계종은 지난해 8월 종무회의에서 아름다운동행의 설립을 결의했고, 올해 3월 25일 설립발기인총회를 개최해 '재단설립 및 법인명 명명, 정관채택, 기본재산출연, 임원선임,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후 4월 15일 행정안전부에 설립허가 신청을 했으나, 관련 부처간 협의와 기본재산 추가 출연문제 등으로 인해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김성우 기자



7월 17일 태릉선수촌 법당에서 불자 선수들과 함께한 지관 스님(가운데).

북경올림픽 대표 격려법회

지관 스님 태릉선수촌 방문 불자선수 선전 기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7월 17일 태릉선수촌을 방문해 올림픽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격려하는 법회를 열었다.

이 날 선수촌 법당에는 8월 8~24일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는 불자 선수, 임원 54명을 비롯한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국위선양의 원을 세웠다.

지관 스님은 법회에 앞서 선수촌 챔피언홀을 찾아 이연택 대한체육회장과 이에리사 태릉선수촌장, 이기등 체육인불자회장 등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 현황보고를 듣고 격려금 및 선물을 전달했다.

지관 스님은 격려법회 법문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수도 중 마구니를 물리치는 것도 모두 일념삼매로 산란심이 일지 않아야 가능하다"며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도 일념으로 무장해 나라의 명예와 불자로서의 영광을 드높이자"고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5000명 수용 법당불사 매진"

군종특별교구 출범 3년 맞은 일면 스님



"군종특별교구 출범과 함께 한 3년이었습니다. 남은 임기도 군불교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포교 최전방에서 군포교를 담당해 온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가 출범 3주년을 맞았다.

7월 17일 호국원광사(주지 함현준 법사)에서 열린 교구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면 스님은 "2005년 7월 25일 군종교구가 출범한 이래 체계적 군불교 지원과 군불자 자긍심 고취, 군종법사 위상 및 복지 향상 등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스님은 이어 "육군훈련소 통합 계획에 따라 논산훈련소 내에 5000명을 수용할 법당 불사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군종교구는 올해 논산훈련소 법당불사 발대식을 여는 한편, 군승 40주년을 맞아 <군승 40주년사>도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남은 임기 1년여 동안도 매월 5곳 이상 일선 부대 방문 일정을 계속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교구본사 주지회의서 '종교편향 대책' 논의

최근 잇따른 종교편향 사건에 대한 조계종 교구본사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7월 24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08년도 제2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종교편향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 강원, 충청, 호남 지역 본말사 주지스님들은 7월 14일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본말사 주지연수에서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과 평화적 촛불집회 보장을 촉구했다.

주지스님들은 "이명박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참회하고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 종교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 등 근본적인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성우 기자

한-몽 국제학술대회 개최

진각종 회당학회(회장 혜정 정사)는 7월 23일 몽골 간단사에서 '한몽의 불교문화'를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측에서는 회당학회장 혜정 정사, 진각대학원 허일범 · 김경집 교수가 '한국불교와 육자진언' '한 · 몽사원의 장엄에 관한 연구' '고려시대 한 · 몽불교의 교섭' 논문을 각각 발표한다. 몽골측에서는 푸레바트 몽골 불교미술대학장이 '몽골불교의 예술적 연구'를, 소닝바야르 몽골불교대학장이 '몽골불교의 역사'를, 푸렐바타르 티벳문화연구소장이 '몽골불교의 수행'을 각각 발표한다. 김성우 기자

"종립학교관리위 정상활동"

조계종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원담)는 7월 15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정상적 활동을 촉구했다.

교육분과위원회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이사 2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것과 '동국대 신정아 교수 채용관련의혹 조사소위원회'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일 등 당면한 과제가 많음에도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아 종법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 같이 촉구할 것을 결의했다. 김성우 기자

www.njutcm.edu.cn

세계에서 제일, 침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동국대의 5배)

국립 남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특차)

조기유학생 모집
초 6 · 중 · 고 1, 2, 3학년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20명 (내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사과정	3년	2명	
남경재경대학	4년	20명	· 경제학, 법학, 공학, 외국어, 예술디자인과 등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8년 8월 20일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 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삼화불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07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이정화(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박병수(명지대)
▲박영문(명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제대)
▲이종환(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종건(UCLA)
▲황진영(유성여고)	▲이창영(마산고)	▲황성환(대건고)
▲정재형(성문고)	▲박상준(구정고)	▲이상훈(성신고)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김인환(인항고)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휘문고)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박은수(대덕고)

- 석사과정 합격자 -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종(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 한의대학
대전대 한의대학
(분교)
삼화불교대학림

한국 총장 손혜인



시국기도회 동참자들이 7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참회와 연비의식을 마친 후 탑돌이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무명 일깨우자”

시국법회추진위, 조계사서 108시국기도회…300여 사부대중 참석

이명박 정부의 무명을 일깨우는 ‘국가권력의 참회와 생명 · 평화를 발원하는 시국기도회’가 7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성료됐다.

시국기도회에는 시국법회추진위 공동추진위원장 수경 스님을 필두로 실천불교전국승가회장 법안, 조계종 교육부장 퇴휴, 종회의원 도문, 정범 스님 등 스님들과 경찰수배로 조계사 농성중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을 포함한 국민대책회의 지도부 7명이 참석했다. 300여 사부대중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촛불 민심’이 꺼진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게 자비의 관용이란 기회를 주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날 수경 스님은 시국발언을 통해 “촛불이 사그라지는 듯하자 오히려 국민을 수배자로 만들고 종교편향으로 정권 지지기반을 다지는 대통령의 뒤틀린 마음을 그냥 둬서는 안된다”며 “먼저 우리가 참회의 수행과 정진으로 세상을 삼독으로 물들이는 이명박 정부를 깨우쳐주자”고 말했다.

이날 시국기도회는 스스로를 참회함으로 정부의 무명을 씻는 108배가 108참회문 낭독에 맞춰 진행됐다. 이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지도부를 포함한 사부대중의 연비의식과 대웅전 탑돌이도 진행됐다. 추진위는 이날 기도회를 시작으로 7월 23일 정호승 시인과 가수 안치환씨가 참여하는 문화제를 개최하며 7월 30일 스님과 신도들이 모여 토론으로 시국을 성찰하는 대중공사를 열 계획이다.

글=노덕현, 사진=박재완 기자

남북관계 개선 촉구 평화재단 성명 발표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7월 13일 ‘7 · 11 금강산 박왕자씨 피살’ 관련 논평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평화논평은 박왕자씨 죽음에 대한 애도와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평화재단은 논평에서 “뜻밖의 변고를 당한 박왕자씨와 남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남북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평화재단은 또 “인도적 차원의 민간지원 사업은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경기여고에 세워진 석등(왼쪽)과 ‘불교제중원’ 표지석.

경기여고 불교문화재 제자리 찾아

불교제중원 표지석 등 복구

훼손 논란과 함께 종교편향 사례로 불거졌던 불교제중원 표지석 등 경기여고 불교문화재가 원위치에 복구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다리가 파손된 석등은 접착 복구하고, 불교제중원 표지석의 받침석을 새로 제작한 것을 포함해, 경기여고 내 석탑 등 석조물을 7월 13일 설치완료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동섭 기자

‘10·27법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8월말 공포 예정…미흡한 역사교육관 지원 규정 등 과제로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 · 27법난’ 피해 스님과 불교계의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의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7월 15일 10 · 27법난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10 · 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국방부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국가보훈처 차장, 경찰청 차장, 그리고 국무총리가 위촉한 불교계 인사 등 11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들 위원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피해자등여부심사분과위원회’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는 각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불교계 경험자와 3, 4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키로 했다. 위원회 사무직원인 간사 역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필요한 직원’ 역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위원회에서는 피해 스님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와 역사교육관 지원에 관한 사항 등도 협의하게 된다.

국방부와 조계종간의 4개월여간의 협의 끝에 마련된 시행령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8월 말께 공포될 예정이다. 국방부가 시행령안을 공포하면 피해 조사 등 법난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보상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전망이다.

10 · 27법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법타 스님은 7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불교계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 부분은 환영할만 하지만, 법난의 진실규명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역사교육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법타 스님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 “정부위원의 경우 현직 차관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차관급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이어 “사무국 직원의 경우도 피해자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피해자가 스님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가진 불교계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타 스님은 핵심 조항인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및 역사교육관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성이 부족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스님은 “역사교육관 건립이 의료비 지원처럼 구체화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피해자 및 명예회복 대상 스님 153명 가운데는 입적하신 분들이 많아 개인 보상 보다는 종단 차원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한 역사교육관 건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료전시관, 영상자료관, 교육관, 사무공간 등이 들어설 역사교육관 건립은 수 백억원이 소요되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10 · 27법난특별법제정추진위는 구체적인 활동 결과 법령의 한계로 명예회복과 역사교육관 건립이 어려울 경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우 기자

아동성폭력 예방 캠페인 7대 종단·여성부 ‘맞손’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여성부는 7월 22일 ‘우리아이 지키기’ 캠페인 협약을 맺고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이 캠페인은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여성부와 관련 부처가 4월 30일 발표한 ‘아동 · 여성 보호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

여성부와 KCRP에 소속된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7대 종단은 협력체제를 강화, 아동성폭력범죄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KCRP는 1000만인 서명운동 뿐만 아니라 각 종단 홈페이지의 아동안전수칙 게재와 성폭력피해 아동 치료센터인 해바라기 아동센터 정보제공,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02)2075-4742

노덕현 기자

불교연석회의 ‘종교편향 종식’ 건의

국무총리실에 건의문 전달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 종식 불교연석회의’(공동대표 상임위원장 손안식)는 7월 15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직자 종교편향을 금지하는 법 제 · 개정과 관련 공직자 문책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국무총리실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임장수 공동대표(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장) 등 6명의 공동대표들은 ▲공무원 관련법에 직무관련 종교 편향 금지조항과 벌칙조항 신설 ▲최근 공직자 종교편향에 대한 정부의 진실한 공개사과 관련 공직자 문책 ▲편향행위 예방을 위한 정부, 공공기관 종교시설 및 활동현황 조사 ▲국민화합을 위한 촛불집회 구속자 석방과 수배해제 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에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건의문 요구사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 후 국무총리 명의로 불교연석회의에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7월 1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종교편향 관련 건의문 발표 후 구호를 외치는 불교연석회의 공동 대표들.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제천불교여자전문대학

– 비구니 통학 강원 –

◆ 학장 : 석도기

(사)한국불교금강선원은 제천 금강사를 창건하여 여성불자 교육도량으로 부설하고 아래와 같이 통학 학인을 모집합니다.

◇교육시간 :
매월 음력 10일 오후 2시~ 음력 11일 정오 12시
매월 음력 20일 오후 2시~ 음력 21일 정오 12시

◇개 강 일 : ***음력 7월 20일 (양력 8월 20일)***

◇교육내용 : 전통강원에서 교육하는 사미, 사집, 사교, 대교 과목을 종합적으로 공부하며 의식교육을 필요에 따라 지도하고 특강을 통해 부족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기간 : 2년(강의를 녹음한 통신교육도 가능함)

◇강 주 : 활안 한정섭스님

충북 제천시 모산동 257-3번지
전화 겸 팩스 043)646-3800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학원

◆ 원장 : 활안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08년 8월 1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08년 9월 8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불교예술대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모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교육

◇원서교부 : 2008년 8월 1일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개 강 : 2008년 9월 4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mgnet.net 전화 02)969-2410/969-4881 / 팩스 02)964-2433

"화마로부터 목불 문화재 지키자"

해인사 자체 소방훈련 실시… 사찰 최초 비상하강시스템 '만족'

법보종찰인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가 7월 15일 화재시 경내 성보를 지키기 위한 자체 소방훈련을 펼쳤다. 이번 훈련에는 하안거 수행정진 중인 선방의 모든 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소방훈련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보 제32호 팔만대장경판, 국보 제52호 판전과 함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쌍둥이 비로자나불을 화마로부터 온전히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대적광전 외부 서측부위에 원인불명 화재 발생! 모든 스님은 화재 진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과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각 법당에서 스님 30여명이 화재 현장으로 달려 나왔다. 이들은 자체 소화전을 이용해 불을 진압하는 한편 대적광전 내 모셔진 법기보살, 관음보살 등 중요 문화재를 안전한 곳으로 긴급히 반출했다. 여기까지는 매년 해인사에서 열리는 연례 훈련과 같다.

이때 대적광전 옆 대비로전에 불이 옮겨 붙었다는 것을 가상해 대비로전 내 목조 동형쌍불 비로자나부처님이 비상하강시스템을 통해 사라지는 것이 이번에 처음 시연됐다. 화재 발생 2~3초만에 반응하는 감지센서 등 최첨단 재난대비 장치로 두 분 비로자나부처님을 지하 6m 아래로 대피시키는데 성공했다.





화재시 비상하강 시스템을 통해 지하 6m로 내려간 해인사 대비로전 비로자나불(왼쪽)과 소방훈련 장면.

해인사 교무국장 재경스님은 "우리는 화재 등 각종 재해로 낙산사와 숭례문과 같은 주요 국가문화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피해를 이미 경험했다"며 "해인사의 성보만큼은 우리 스님들 손으로 지켜내기 위해 자체 소방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훈련에는 합천 119소방대원들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도 동참했다. 총 훈련시간 25분 중 화재 진압 1단계에는 해인사 스님들이, 2단계에는 합천소방서의 화재 진압 순으로 이어졌다. 화재 발생 1~2분 만에 불길은 완전히 진화됐다. 실제와 같은 소방훈련이 진행되면서 해인사를 찾은 관광객들이 진짜 화재로 오인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주지 현응 스님은 훈련 총평에서 "이번 화재 훈련은 소중한 문화재를 함께 지키자는 취지"라며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이나 실제 상황에서도 오늘처럼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 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인사는 첨단 비상하강시스템과 화재감지센서 등 각종 첨단장비를 갖추는 한편 판전 내부에 청정소화기, 감시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하고 감시원 8명이 24시간 순찰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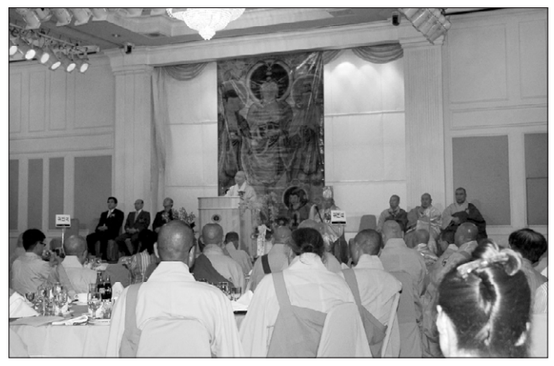


관음종 일본 주요종단 순방 및 성지순례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7월 7~12일 한일불교교류 및 선린우호 관계 확대를 위해 일본 주요 종단의 총본산 및 대본산 9개 사찰을 순례했다.

관음종 남천죽산 종정스님을 증명으로, 총무원장 홍파 스님을 방문단장으로 한 총 44명의 출재가 방문단은 정토종 대본산 광명사(사진), 일련종 대본산 본문사, 진언종 대본산 평간사 등 주요 사찰을 순방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를 통한 양국 교류는 있었지만, 개별 종단 차원의 친선 방문과 교류확대를 위한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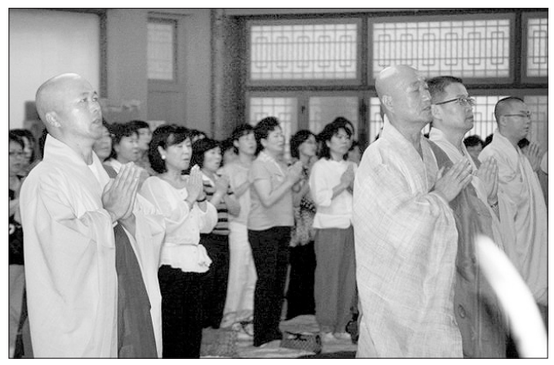
김성우 기자



대승종 11대 총무원장 도일 스님 취임법회

대한불교대승종(총무원장 도일)은 7월 15일 소피텔엠배서더 호텔 연회장에서 제11대 총무원장 도일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천광 스님을 비롯 각 종단 총무원장, 종단임원 및 종도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종정스님의 증명 법어와 각 종무원장 임명장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도일 스님은 "한국불교의 중추적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종단 화합과 교육을 우선하여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공군 불자 여총신도회 결성법회 봉행

전 군에서 처음으로 여성불자 중심의 총신도회가 결성됐다. 공군 관음회를 중심으로 한 여성불자들은 7월 15일 계룡대호국사 대법당에서 '공군 불자 여총신도회 결성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 20명의 공군 군승, 공군교육사령관 및 육군참모총장 가족, 공군불자 등 250여명이 동참했다. 일면 스님은 "이 인연을 계기로 공군불교 활성화와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우 기자



특전사 호국사자사 수계법회 봉행

특수전사령부 호국사자사(주지법사 청안)는 7월 13일 법당에서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과 호국사자사 청안 주지법사, 특전사령관 김상기 중장, 불암사 신도 및 불자장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법사인 일면 스님은 법문을 통해 "삼귀의계와 오계 수지를 통해 불자 장병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가보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우 기자

"인재양성·불교사업 육성 역점"

김의정 회장 24대 중앙신도회장 재선임



"중앙신도회관 완공을 계기로 신행뿐만 아니라 경영도 잘 하는 신도회로 도약하겠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이 7월 12일 총무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4차 대의원총회에서 제24대 회장에 재선됐다.

조계종 사상 첫 여성신도회장으로 지난 임기 동안 중앙신도회관 불사 등 신도회 기반을 다지고, 화합을 탁월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김 회장은 "모든 일은 주변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다. 소통과 나눔으로 여러 목소리를 들어가며 신도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4년 임기동안 ▲신도회 역량 확장 ▲인재양성과 불교교육강화 ▲불교관련 사업 육성 ▲불교정책기능 확대를 중점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장기적인 불교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며 "중앙신도회 산하 불교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구를 평생교육 개념을 도입한 상설교육기구로 향상시켜 국제포교사 등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불교전문가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불교의 전반적인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불교산업의 발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앙신도회는 차(茶),연(蓮), 자연장 등 불교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불교산업훈장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도회 재정자립을 위해 수익사업체를 운영하고 신도조직과의 위계를 확립, 신도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김 회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극심해 지고 있는 종교편향에 대해 "내 종교만 위하는 종교편향은 자신의 종교를 진정 사랑하지 않는 행위"라며 "중앙신도회는 산하단체인 종교평화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종교편향에 대응, 교단외호와 포교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제24대 회장 임기가 시작되는 10월 1일경 취임식 및 집행부 위촉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필리핀에 '동국대 거리'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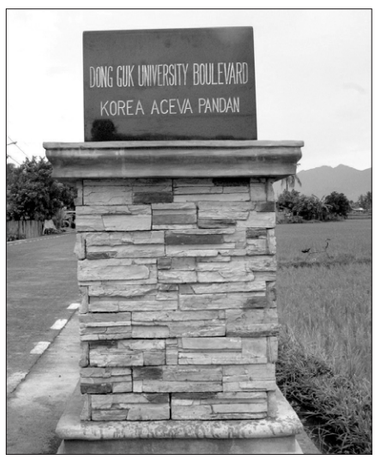
리가오市 판단 지역내

필리핀에 '동국대 거리(DONGGUK UNIVERSITY BOULEVARD)'라 이름 붙인 도로가 생겼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생경력개발원(원장 박상범)은 "필리핀 알베이(Albay)주 리가오(Ligao)시 판단(Pandan) 지역에 길이 2km의 '동국대 거리'가 생겼다. 7월 8일 '동국대 거리'를 알리는 석제 조형물 제막과 테이프 커팅 행사를 진행했다"고 7월 17일 발표했다.

'동국대 거리'는 동국대의 판단 지역 봉사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리가오시가 조성했으며, 거리선포식에는 곤잘레스 시장(리가오 시), 박상범 단장(동국참사람봉사단), ACEVA(아시아문화교류봉사협회) 길종성 한국대표와 에반젤린 필리핀대표 등 시민과 동국대 학생들이 참석했다.

8일 선포식에서 곤잘레스 시장은 "동국대 참사람봉사단의 고마움을 오랫동안 기억하겠다. 동국대와 리가오시와의 유대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포식을 전후해, 동국대 참사랑봉사단원 30명은 7월 2~12일 필리핀 리사오시 판단지역을 찾아 판단초등학교 담장 페인트 도색, 도로변 배수로 정리, 한국음식 나누기, 자비의 쌀 나누기, 모내기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조동섭 기자

'u-월정사 문화재방재시스템' 구축

유비쿼터스를 도입한 월정사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된다. 강원도(도지사 김진선)는 최근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u-IT 신기술검증사업' 공모에서 도가 응모한 'u-월정사 문화재 방재시스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등을 통해 월정사 화재 및 불법침입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7억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화재사전예방, 확산방지, 진압대책 등 소방방재기술과 함께 유무선 인프라 및 영상기술 등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성우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재는 영가의 마음을 따라 지내야지요"

〈2〉송광사 추강 대화상❷

그래서 나도 오대산 월정사로 따라 갔다. 추강 스님은 상원사에 계시고 나는 월정사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중에 상원사 선방에 들어가니 우리 노스님은 조실스님으로 계시고, 현 부산 태종대 조실스님으로 계신 도성 스님은 입승을 보고 있으면서 나에게 미감일을 맡겼다.

하루는 서울에서 군인 한분이 와서 아버님 49재를 지내달라고 돈을 내어 놓았다. 빨간 지패 백장을 받은 희섭 스님은 놀라면서 추강 스님께 물었다.

"어떻게 할까요?"

"한 상만 차리십시오."

"나머지 돈은요?"

"잿상에 놓아 주십시오."

정한 날짜에 재를 지내러 온 군인이 영전에 차려진 상을 보고 노발대발 야단이 났다.

"어떻게 남의 재를 이렇게 망쳐 놓을 수 있다는 말인가. 때어먹어도 분수가 있지!"

"조실스님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차렸습니다."

문수전에 모여 앉은 재주들은 별로 즐거운 기색이 없고, 오직 노스님 혼자 요령을 들고 20분 정도 선법문을 하였다.

"생종하처래(生從何處來)
사향하처거(死向何處去)
생야일편부운기(生也一片浮雲起)
사야일편부운멸(死也一片浮雲滅)"

"이것도 재라고 지내십니까?"

"그야 영가의 마음을 따라 재를 지내야지요."

"우리 아버지를 너무 박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당신 아버지는 일찍이 마누라를 잃고 당신 하나를 기르기 위해 동부서주하다가 급기야 장교가 된 아들 승진을 위해 돈 마련하느라고 재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했지만 아들이 대장되는 것을 보고 그 보람으로 세상을 살았으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돈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준 돈 5만원만 가지고 재를 차리고 그 나머지는 고스란히 상에 놓았으니 필요하면 가져가십시오."

하고 그 봉투를 돌려주었다. 비로소 재주는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다. 이 일로 인해 그는 큰스님을 부처님처럼 받들고 모시다가 장차 서울 봉익동 대각사에서 노스님께서 열반하시자 자신의 아버님 초상처럼 그 뒷바라지를 치루워서 모든 사람들을 감동케 하였다.

스님의 제자 가운데는 글 잘하기로 유명한 인암스님이 있고, 벌교상업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조용순 스님이 있었다.

길 잃은 나그네에게 길을 안내한 스승이시여/ 구름바람 몰아칠 땐 해도 달도 보이지 않더니/ 맑은 바람 솔솔 부니 가을 못에 달이 떴습니다.



이은주 서울 상왕십리 삼거리커피숍 주인

"사람의 웃음이 가장 예쁜 꽃이죠"



상왕십리에 위치한 삼거리커피숍은 이은주씨가 자비와 자선을 베푸는 공간이다. 삼거리커피숍에 들어서면 한쪽엔 쌀 포대와 부식들이 놓여있고, 한쪽엔 가난한 나라로 보낼 옷가지들이 쌓여있는가 하면 주방은 대형 냉장고가 2대나 있어 식당을 방불케 한다. 분위기가 여느 커피숍과는 다르다 보니 처음 오는 손님들은 "어 무슨 커피숍이 이래?"하고 조금은 의아해 한다.

남편과 다섯 남매를 둔 아내이자 엄마인 이은주씨는 커피숍 일만 해도 벅찰 텐데, 그가 지금까지 돌봐 온 어르신은 17명, 아이들은 19명이다. 지금도 어르신 아홉 분과 유치원생을 비롯하여 초 · 중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열한 명을 돌보고 있다. 이 많은 대식구들 밥해 먹이랴, 빨래하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돌보랴 열 사람이 함께 해도 부족할 터인데 이은주씨 혼자서 다 해 내는 것이다. 보조금 한 푼 받지 않고 순전히 자신이 번 돈으로만 지탱해나가고 있다.

계다가 이웃의 움직일 수 없는 독거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날마다 도시락 열개를 준비하여 집집마다 배달한다. 하루에 오십인 분의 밥을 해낸다고 한다. 카운터에는 연두색 돼지저금통이 12개가 있다. 한 테이블에서 나오는 찻값 중 천원은 어김없이 돼지저금통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일 년 동안 모은 돈으로 쌀 수십 포대와 여러 가지 물품을 준비해서 양로원과 고아원을 방문한다.

"내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한 사람의 생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놓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주저앉아 남 몰래 울 때도 많았습니다."

내가 배불리 먹고 나머지를 주는 것,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내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내가 누릴 것을 누리지 않고 남에게 준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변으로 눈을 돌리면 온통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뿐입니다. 가진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가진 것 때문에 불편하다면 그것은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커피숍 운영하며 이웃 돌보기 30년
무의탁 노인 · 어린이 20명과 동고동락

어르신들 중에는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었으며, 연고가 없는 다섯 분의 어르신은 직접 장례식까지 치러드렸다. 이은주씨가 직접 장례식을 치러드린 분은 삼년동안 제사를 지내준다.

이은주씨의 자선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이은주씨는 신부전증으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었다. 어디든 매달리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절에 다녔다. 절에서 홀로 사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의 아들은 교도소에 있었다. 이은주씨는 아들 면회를 갈 때면 길을 잘 몰라 힘들어하는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갔다. 이러다 정이 들어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다. 이 일을 계기로 이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자식으로부터 버림받고 밥을 비는 어르신들, 버림받은 아이들, 알코올중독자 등등해서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때부터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능력껏 도우기 시작했다. 이들을 돕는데 정신과 시간을 쏟다보니 이은주씨의 신부전증도 거짓말처럼 나아버렸다. 이은주씨는 "지금의 내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라 했다.

"세상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사람들의 웃음과 미소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향기는 곧바로 너그러움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세상의 이해관계에 끌려 다니지 않는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이은주씨의 얼굴에서는 미소와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참으로 많이 쓴다.

이은주씨의 오남매는 모두 출가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엄마의 자선을 이해하지 못했고 불만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있다. 알 수 없는 인연으로 자기와 맺어진 아이들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시켰듯이, 이은주씨의 5남매도 고등학교만 졸업시켰다. 데려온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이은주씨가 키워 낸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사회에서 당당히 자기 몫을 해내고 있다. 아이들이 행여나 술, 담배를 배울까봐 커피숍에서 술은 일체 팔지 않는다. 교복은 항상 깨끗이 빨고 다려서 입혔다.

"전 데려온 아이들에게도 엄하게 해요. 이들이 어디 가서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잘못했을 때는 혹독하게 꾸짖어요. 나무가 삐뚤어져 있으면 참으로 운치가 있지만, 사람이 비뚤어지면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이은주씨는 결혼을 앞둔 8명의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데려온 날부터 매달 부어온 적금과 결혼할 때 건네 줄 금팔찌와 반지 등의 패물이다. 그리고 자신의 성장사가 고스란히 담긴 앨범이다. 아이들의 운동회, 입학식, 졸업식마다 따라 다니느라고 힘들었다고 한다.

이은주씨의 손을 보면 거칠고 손가락이 비뚤어져 있다. 그 많은 식구들의 먹거리를 준비하랴, 세탁기도 없이 손으로 세탁해서 입히고 있으니 손에 물마를 날이 없다. 왜 그 흔한 세탁기도 없느냐고 물었더니 '전기세 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쓸 수 없다'고 한다.

"어려운 이웃이나 어르신들을 보면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아기처럼 사랑해주고 안아줘야 마음이 편해요. 우리 이 몸은 죽으면 흙이 될 텐데 아껴도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라 생각해요."

이은주씨는 그 흔한 관광여행 한 번 가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큰 도움 없이 혼자서 봉사와 자선을 해왔지만 지금은 몸도 아프고 하니 힘에 부친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면 자신이 할 일이 많기만 하단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남을 도우면서 살겠다는 것이 이은주씨의 서원이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SHC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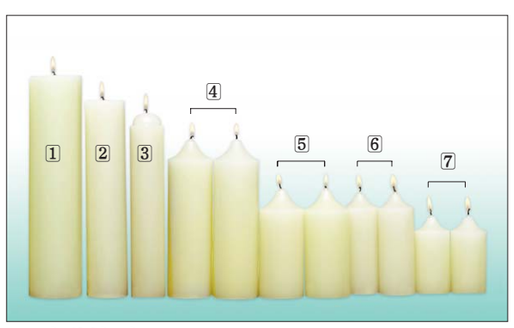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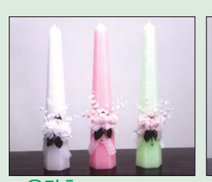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Φ X 35cm


■ 야광 용초 70Φ X 35cm


■ 원기둥 마패 7.4Φ X 30cm
등신불 마패 4.7Φ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D) 양초.net

독일 거리에서 펼쳐진 봉축축제

해외불교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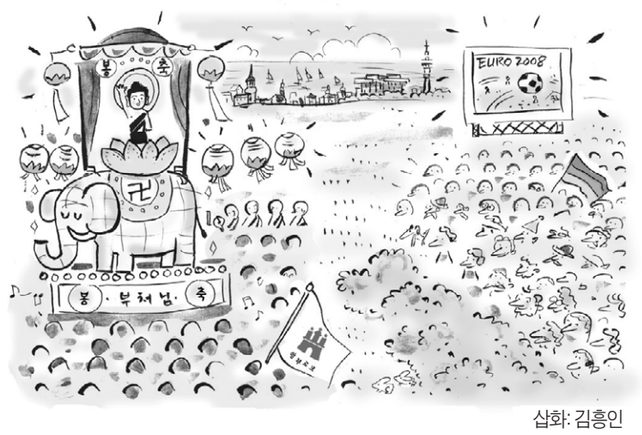
유로 2008 축구 챔피언십이 시작된 6월 8일, 독일 함부르크의 하일리겐가이스트펠트에서는 뜨거운 햇살 아래 길거리 응원에 나선 수만 명의 축구팬들이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 생중계된 개막경기에 열광했다.

그와 대조적으로, 그 함성을 잠재우기에 충분할 만치 울창한 수풀 건너편에서는 독일의 22개 불교센터와 여러 불교단체들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개최됐다. 한 젊은 불자가 가벼운 조크를 던졌다.

"유로 2008 축구의 열기가 뜨겁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오신날 축제가 '오프사이드'로 내몰리진 않아요."

7000여 명의 내외국 남녀노소 불자들은 나무그늘, 놀이터로 둘러싸인 그로센 발란라겐의 주변에 모여 봉축법회를 열었다. 그들은 함부르크 시민들의 쉼터인 이곳에서 불교계 선지식들의 법문을 경청하고 야외참선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 개막행사에 참석한 함부르크 미테 직할시의 마르쿠스 슈라이버 시장은 치사를 통해 이 공원에 9m 높이의 불탑이 세워지도록 적극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삽화: 김흥인

"이 불탑은 세계평화의 상징으로서 국제항구도시인 함부르크의 특성과 위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루터교회의 최초 여성주교인 마리아 옙센은 축사를 통해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불교의 본질에 공감하며 두 종교가 더욱 친밀해지길 바란다고 말해 불자들의 갈채를 받았다.

개막식에 이어 흥겨운 한마당이 펼쳐졌다. 야외극장에서 공연된 무용과 불교음악으로 이국적 정취가 넘쳐나는 가운데 너른 풀밭에선 일본불교의 선궁도(禪弓道) 시범과 남녀도반들의 참여가 있었다. 봉축법회가 근엄한 종교행사를 겸한 온 가족 나들이의 야유회축제로 기획된 터라, 가족 단위 및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게임과 아기자기한 추억거리가 줄을 이었다. 각 불교단체마다 특징적인 안내 텐트를 세우고 불교관련 소책자와 만화, 홍보물 등을 나눠준 한편, 태국, 티베트, 베트남계 불자들의 코너에는 꼬마 불자들이 몰려들어 동양풍의 별미를 골고루 맛보느라 신바람이 났다.

함부르크 일대는 독일에서 불교가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40여개의 각종 불교단체들이 다양한 불사를 펼친다. 작년에 열흘 동안 현지에 머물며 대규모 법회를 개최한 바 있는 달라이 라마는 현지 여론조사에서 가장 존경스런 세계적 인물로 연속 선정됐다.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서구 각국의 경우처럼 독일에서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은 뮌헨,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 대도시의 연례정기축제다.

이번 봉축행사가 아시아지역보다 좀 늦어진 건 시 당국과 불교단체들 간에 행사일정의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함부르크 시청에서는 현지의 날씨가 대체로 고르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기상통계상 가장 쾌청하고 일조량이 많은 6월 8일을 축제일로 제안했다.

그와 더불어, 유로 2008 축구의 거리 서포터들도 자연스레 부처님오신날 축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상은 며칠 전 한 독일도반이 보내온 뉴스레터의 인용이다.

하지만 멀쩡하게 지도에 그려진 사찰표시를 애써 지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 땅의 일부 중생들은 도무지 이해 못할 얘기다. 아무튼 그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은 '서울 봉헌'과 '아프간 의료봉사단' 시리즈에 이어 이번에도 지구촌 네티즌들의 무한한 감동과 연민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다.

편역: 성휴 스님

출처: 사랑을 찾으세요, Resolved questions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앨리스 워커 ❶

佛心으로 흑인·여성 장벽 극복



수년전 우리들의 심금을 울렸던 영화 컬러 퍼플(The Color Purple)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 원작을 쓴 분이 앨리스 워커 보살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빼어난 영문번역가 중 한 분인 작가 안정효님이 알뜰살뜰 우리말로 풀어 옮겨주신 덕분에 영화팬뿐만 아니라 소설 독자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높았던 기억이 새롭다.

다재다능한 문인인 그녀는 실천적인 여성운동가로 그 용어마저 'feminist'에서 'womanist'로 바꿀 만치 당당하고 빈틈없는 여걸이다. 흔히 흑인이라 부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게다가 여성이란 장벽을 박차고 스스로 입지를 세운 그녀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붓다의 가르침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그분의 영혼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짧은 몇 마디로 자신의 불심을 전하는 그녀는 역시 타고난 시인이다. 열정의 가수 티나 터너 보살 등이 불자임을 아시는 분들은 더러 계시지만 미국의 흑인불자, 특히 여성도반에 대해선 거의 알려진 바 없다. 그건 그들의 실존부재보다는 우리들의 관심부재 때문이다. 미국에는 불국(佛國)이란 이름의 전국적인 불교단체가 있는데 흑인불자들이 그 주체로 상당한 정치력도 행사할 만한 규모다. 또한 흑인 비구와 비구니스님들도 계신다.

흑인 불자 귀의 사연 백인과는 상이
인종 차별 철폐·인권 회복 위한 행보

언젠가 미국의 어느 종교 전문지에서 '미국불자란 고등교육수준과 안정된 경제기반을 지닌 백인 중산층 가운데 새로운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일부'라고 소개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도 아니며 표현도 그다지 신중하지 못하다. 1950년대 후반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서해안 대도시의 젊은 진보적 지식층 사이에서 태동한 '비트 불교'는 이내 뉴욕 등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이 짙은 동부지역으로 전법의 행보를 성큼 넓혀간다.

앞서 언급된 '중산층 백인불자'란 대체로 이들을 일컫는 듯하다. 물론 그들이 미국의 불교 발전에 기여한 바를 과소평가할 순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체 미국불자를 대표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는 까닭이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중산층 백인불자'들은 대체로 사회전반에 걸쳐 유리하고 여유롭다. 따라서 그들은 불교를 통해 현재의 삶에 '영적 부가가치'를 더하고자 한다. 이는 스케치가 잘 되어있는 화폭에 다르마의 고운 색깔을 입혀가는 바와 같다. 그러나 그들과 참담하게 대비되는 '저교육수준과 저소득층 유색인', 특히 흑인들이 불문에 귀의한 사연은 그와 크게 다르다.

그것은 '인종적 기득권'이란 스케치는커녕 '인간기본권'이란 화폭마저 박탈당한 흑인들의 처절한 절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 미국의 명문대학 집단인 아이비리그에서 점화한 '비트 불교'는 1520년 경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점화한 종교개혁이 그러했듯 단순한 종교적 혁신 이상의 '총체적 사회개혁운동'의 기폭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 횃불은 400년을 훌쩍 뛰어넘어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라는 민중계몽의 선구자이자 흑인민권운동가에게 전해진다. 6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 남부지역에서 격렬해진 민권운동의 기본취지는 인종차별철폐 및 기본권보장이다. 이는 급진적 혁명이 아니라 최소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피맺힌 '보통인간 선언'이다.

따라서 당시 그들 사이에선 민권(civil right)과 인권(human right)이 거의 동의어로 쓰인다. 그들은 허울 좋은 노예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노예취급을 당연시하고 감수해온 자신들에 대해 먼저 통렬한 반성을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껏 백인들에게 짐승처럼 당하고 살아야 하나? 우리는 저열한 종교적 독선과 추악한 제도적 위선에 얼마나 더 치이고 속아줘야 하나? 그들은 마침내 깨닫는다. 오랫동안 백인우월주의와 기독교적 선민의식에 내몰려온 그들에게 '구원의 종교'니 크리스천의 양심 따위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백인에겐 복음이 흑인에겐 저주가 아니었던가?

그들은 어느 의문에 대한 답도 더 이상 기독교경전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흑인들은 그 서럽고 지친 영혼을 어디에 의지해야 하나? <계속>

성휴 스님

中 사찰서 새 생명 81명 탄생

5월 12일 중국 대지진 발생 이후 스촨 성의 소도시인 스팡의 루오한스(羅漢寺)에서 81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다. 중국일보는 영문판 보도를 통해 독신 스님들이 정진하는 적막한 도량이 아기들의 힘찬 울음소리와 부모들의 감격적인 눈물이 어우르는 신생아실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709년에 건립된 이 절은 최초의 지진 징후와 동시에 산부인과병원의 역할을 떠맡게 됐다. 당시 루오한스에서 당직 중이던 수췐 스님은 스팡부녀아동병원에 긴급 연락, 임산부 40여명을 절로 긴급 피신시켰다. 일반이재민들도 신속히 경내로 이동시켜 41명의 스님들의 거처와 대중방 등에 수용하고 철야로 부상자의 응급처치를 도왔다.

특히 스님들은 통풍이 양호한 주방에 임시분만실을 만든 한편, 여진으로 흔들리는 절 마당에 6개의 천막을 세워 제왕절개수술용 침대와 탁자 등 간이시설을 설치했다.

출처: 中國日報 .BCN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Master! How to get to the other side of this river?

스님! 어떻게 하면 강 건너 그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On his way for a teaching from the great master living a hut across the river, a young man reached the bank of a river. But finding no boat to carry him, he hopelessly pondered for hours on just how to cross it. Just as he was about to give up his journey for the Path, the master showed up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Overjoyed, the young man yelled over to him, "Master!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other side of this river"? With a glance at him, the master bursted into laughter, "Ha ha, Where you are now is the Other Side!" Upon hearing this, the young man got enlightened. "Yes, Nirvana is Here and Now."



한 청년이 강 건너 초막에 사는 큰스님께 배움을 얻고자 강가에 이르렀다. 그런데 태워다 줄 배가 없어 어찌 건너야할지 내내 궁리를 하다 득도의 길을 그만둘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때마침 강 건너편에 스님이 나타났다. 청년은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물었다. "스님, 어떡하면 강 건너 그쪽으로 갈 수 있나요?" 그를 힐끗 쳐다본 스님이 느닷없이 껄껄댔다. "하하, 이 사람아, 시방 자네가 있는 데가 바로 강 건너 그쪽(彼岸)일세!" 청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큰 깨우침을 얻었다. "그렇지, 니르바나란 바로 '지금 여기'인 것을…"

번안:성휴 스님, 그림:이태수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침술,기공,최면,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예약은 사전 7일전에 하셔야 합니다.
- 절망적인 마음을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별보시금 100만원(성직자) ▷실전교육으로 책임 전수함
▷교육시간(매일) 오후 2시 – 3시 30분 / 오후 6시30분 – 8시
▷특별교육 : 시간,요일 조절가능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제 1기 단전호흡 · 명상 · 최면 수강생 모집
▷개강 : 2008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지장사 법당
매주(수) 오전 10시 – 11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9시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

선지식을 찾아서 옹산

해제 결제 따로없이 '순간결사' 자세 중요

옹산 스님 (수덕사 주지)



7월 6일, 덕숭산 산중에서도 폭염을 피할 도리는 없었다. 하지만 더위도, 추위도 없는 곳에 머무는 선지식을 찾아가는 길이라면 이런 무더위가 무슨 대수랴. 경허-만공 선사로 이어지는 한국 근현대 선풍의 근거지인 선종대본산 덕숭총림 수덕사를 오르는 길은 언제나 자심을 돌아보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

700주년을 눈앞에 둔 수덕사 대웅전(국보 제49호) 오른편 전각에 위치한 주지실. 이날 아침 무작정 전화를 드리고 올라온 불청객을 수덕사 주지 옹산(翁山) 스님은 다정한 미소로 반긴다. 주지소임을 맡고 계시지만 선방수좌 출신의 당당함이 온몸에서 풍겨나온다.

"조용히 정진하시다가 본사주지 소임을 맡으시니 어떠신지요? 수좌로 살 때와 다른 점이 계시다면?"

"선객과 소임자가 다르지 않아요. 소임 보는 사판도 늘 걸망을 벽에 걸어놓고 내일 떠날 준비가 되어 사변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수좌입니다. 선방에서 정진 잘 하는 것 역시 소임을 잘 사는 일이고 포교 잘 하는 일입니다. 가장 큰 포교는 견성하여 부처가 되는 것이지요."

스님은 가장 큰 포교가 일거수 일투족 절제된 생활 모습을 보이는 수행자의 위의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 주지 소임을 보더라도 늘 수행하는 마음자세가 되어 있고 대중에 봉사한다는 자세로 하심한다.

"삼계에 홀로 높은 것을 '수(首)'라 하고, 육근이 청정한 것을 '좌(座)'라 하지요."

'수좌'의 말뜻을 안다면 직함이라는 형상을 취할 것이 아니라 뜻을 취함이 귀함을 알만하다. 그래서 스님은 "반일은 좌선하고 반일은 운력하는 그런 자세로 소임을 산다"고 한다.

스님이 발심출가한 동기가 궁금했다.

"젊은 시절 청담 스님의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글에 나오는 <금강경> 게송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일엽 스님의 <청춘을 불사르고>란 책을 통해 만공 스님의 '나를 가르쳐 주는 곳은 선방이다'라는 법훈을 접한 것이 출가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1944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스님은 16세에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생로병사에 깊은 의문을 갖게 됐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에 불교에 심취하게 되어 불서를 섭렵하던 중 만공 스님의 법문을 접하고 만공 스님이 주석하던 수덕사로 출가하게 된 것이다. 그때가 20세 때인 1966년이었다.

처음 입산하기 위해 찾아뵈었을 때 벽초 노스님의 말씀을 옹산 스님은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집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선(禪) 농사 짓기가 더 힘들어. 할 수 있겠어?"

어떤 형식이나 틀에도 얽매임이 없이 소탈한 무애의 삶을 살았던 벽초 스님은 원담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도록 했다. 어느 눈 오는 겨울 낮 처음 뵌 원담 스님은 깨끗한 모습, 얼굴에 티 하나 없는 동안이었다.

얼마 후 원담 스님은 옹산 스님에게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 즉,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가 이 무엇이냐?' 하는 화두를 제시했다.

'만법귀일 일귀하처' 화두를 들고 순일하게 정진하던 1968년 행자 시절의 어느 날, 옹산 스님은 무아(無我)의 경계를 체험하기도 했다.

"나라는 것도 없고, 대상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경지라고 할까요."

하지만, 원담 스님은 그러한 경계에도 머물지 말고 더욱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어떤 신묘한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묵묵히 20여년간 선방에서 정진하던 스님은 1988년 토굴(운수암)에서 또 한번의 계기를 맞이한다. 어느 날, 스님은 연못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원담 스님께 게송을 지어바쳤고, 그에 대한 점검의 게송을 받기도 했다. 수행과정에서 그때 그때 지도와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선지식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다. 원담 스님을 모시면서 느낀 소감을 스님은 이렇게 회상한다.

"몇 백년에 한 분 탄생하기 어려운 대선지식입니다. 법력으로나 예술방면에서나, 평소 생활모습에서도 도저히 흉내 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설정, 우송, 법정, 법안, 법용 스님과 저를 비롯한 일곱 제자들이 마지막 한 말씀을 여쭈었을 때 임종게를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설하신 장면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습니다.

'올 때도 이 한물건(一物)은 온 일이 없고, 갈 때도 이 한물건은 갈 일이 없다. 오고 가는 것이 본래 일이 없어. 청산의 풀은 스스로 푸르구나.'

육신은 병들어도 정신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었던 모습. 몸이 아파도 한번도 화를 내거나 웃음을 잃은 적이 없었던 모습에서 대선사의 진면목을 보았습니다."

물론 옹산 스님은 임종게의 유무나 말뜻에 거룩함이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평상심으로 깨어있는 모습, 한 순간도 한물건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대상에 끄달리지 않는 모습이 참된 수행자의 자세임을 강조한다.

수덕사의 혜암 노스님의 가르침도 큰 경책이 되었다. 혜암 스님은 큰 절에서 토굴(운수암)로 내려갈 때 이런 게송을 써주었다.

"인연으로 좇아 만났다 헤어지는 것, 눈멀고 귀먹은 것처럼 평생 수행하며 살아가라."

그렇다면, 스님이 눈멀고 귀먹으며 닦아온 선(禪)이란 한 마디로 무엇일까?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깨달음입니다."

30여 안거를 성만하면서 스님은 이제 이판이니 사판이니, 출가니 재가니 하는 분별마저 개의치 않게 되었다. 언제 어디서나 분별 망상 없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를 누리게 된 것이다.

"평상심이란 무엇입니까?"

"때묻지 않은 청정한 마음입니다. 다녀도 참선, 앉아도 참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할 때도 본체가 평화로운 것입니다."

이러한 '평상심이 도'인 삶은 무애자재한 덕숭문중의 가풍이 아닐까 여겨졌다.

"덕숭총림의 가풍은 무엇인지요?"

"너무 형식이나 격식, 의식에 치우치지 않고 내용이 알차게 실참실수하는 공부 풍토입니다."

스님은 20일, 석달 등 기한을 정해 결사(結社)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순간결사(瞬間結社)를 하는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마음에 해태심이 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망상이 들 때 바로 화두를 챙기는 게 순간결사라 하겠지요. 화두는 나를 반조해 가는 귀중한 자산이기에 해이해졌을 때 되잡아하는 공부입니다. 해제 결제가 따로 없이 순간결사가 가장 좋은 수행입니다."

'순간결사'라는 말은 생소한 단어임에도 바쁜 생활인에게는 더욱 귀중한 법문으로 여겨졌다. 일상속에서 순간결사는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지가 궁금했다.

"일에 몰두하는 순간에 화두는 어떻게 듭니까?"

"일하는 그 자체가 화두입니다."

화두 이야기가 나오자 스님은 "공안과 화두의 차이를 아느냐?"고 묻는다.

아는대로 말씀드렸더니, "좀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신다.

옹산 스님은 어느 해 여름 날 서울역에서 금속노조원 5000여명이 시위할 때 겪은 예를 들며 현대판 공안과 화두에 대해 설명해 준다.

"노조원들이 단상에 올라가 율동을 한 뒤 내려오자, 노조위원장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산사에 가보셨습니까? 절에 갔더니 큰스님께서 화두를 주십디다. 그런데 오늘 화두는 이것입니다. 목을 자르지 말라.'

이러한 장면을 보고, '이 더운 날 뭣하는 것이야?' 하고 질문하는 것이 공안이라면, '목을 자르지(해고하지) 말란 말이야' 하는 말로 의문을 유발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이런 이치를 초심자에게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바르게 화두공부를 지어갈 수 있다는 게 스님의 생각이다. 화두 이야기가 이어지니, '스님은 요즘 어떤 화두를 들고 계실까' 궁금했다.

"생각생각이 다 화두죠."

더 이상의 궁금증이 사라졌다.

문답을 끝내려고 하니, 스님께서 부채에 붓글씨로 인생여몽(人生如夢) 즉, '인생이 꿈과 같다'고 써주신다. "일체 현상계의 모든 생멸법은 꿈 · 환상 · 물거품 · 그림자 · 이슬 ·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하라"는 <금강경> 게송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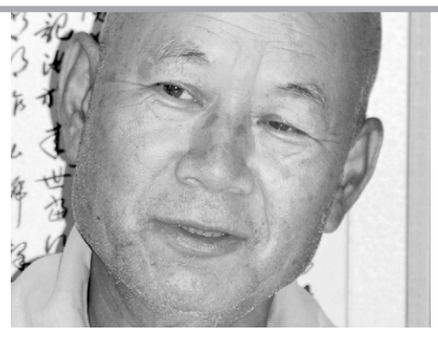
스님은 번뇌 · 망상을 털어내는 부채와 함께 일체의 알음알이를 차단하는 화두를 제시하며 기자를 배웅했다.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無夢無想時) 내 주인공(我主人公)이 어느 곳에 있어서 안심입명(安心立命)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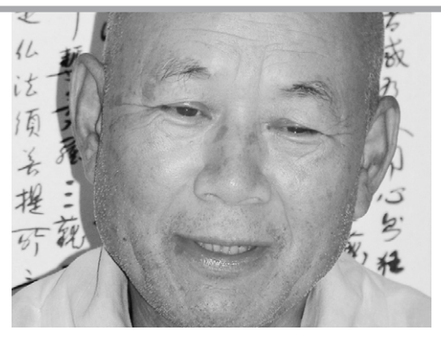
수행자의 자세는 늘 평상심 유지하는 것
일체 현상계의 모든 생멸법은 꿈과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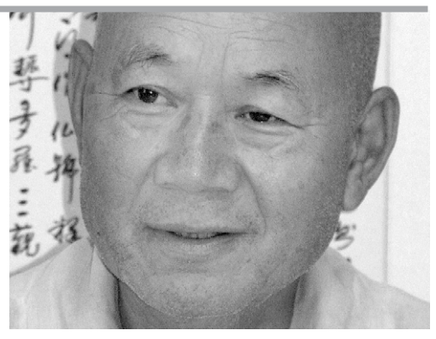
글 · 사진=김성우 기자

옹산 스님은

1944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스님은 1966년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6년 혜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혜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3년 망월사를 시작으로 도성암, 남국선원, 법주사 총지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30안거를 성만했다. 스님은 이사(理事)에 걸림 없이 종무행정과 포교에도 심혈을 쏟았다. 1983년 수덕사 총무국장을 시작으로 1996~2007년 조계종 재심호계위원, 2001~2007년 향천사 주지 및 향천선원장을 역임하고 2006년 충남경찰청 경승지단장, 2007년 수덕사 주지 및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부총재에 각각 취임했다. '신일본 도서전(圖書展)' 특선 수상 등 서예에도 조예가 깊은 스님은 <빈산에 사람없어도 꽃은 피고 물 흐르더라> <홀로 허허 웃는 달> <산중산책>등의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전통과 실력의 우수업체
범양금고 불전함



일반 내화금고
(가정용,사무용)도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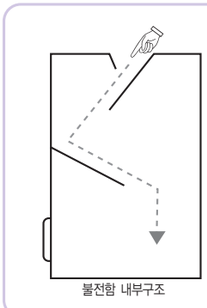
※본 이미지는 실사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목재 불전함과 크기 및 외관이 흡사하여 금고를 사용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 하였으며 통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투입구의 취약함을 차단하여 더욱 안전하며, 바퀴부착으로 이동 및 설치가 편리합니다.
수시로 훼손되는 목재형 불전함과는 안정성 및 비용면에서 안심하실수 있습니다.

[불전함 야외용 주문 제작 가능]

범양금고의 모든것이 있습니다. http://bumyang.net





기존 불전함 투입구의 취약함을 보완하여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

불전함 · 외 부: 높이 700×넓이 700×깊이 350(mm)
· 투입구: 가로 380×세로 90(mm) · 무 게: 60Kg

특허신청중. 주문제작. 전국 택배 가능 (최대 3일이내)

마이산 탑사, 부산 금정사외 계룡사,보광사,법성사,혜림정사 등에서 이미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범양금고 전화 02)2277-1540 / 031)764-6234, 6233 / 팩스 031)764-6462
011-414-2304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172-5

정쟁 소용돌이에 맞서다 아버지 손에 목숨 잃어

㊽ 추존왕 장조(사도세자)-융릉





융릉 앞에 설치한 현대식 다리인 원대황교(사진 위). 화성행궁에는 모함으로 갇혀죽은 사도세자의 뒤주가 재현돼 있다.

*****융릉(隆陵)**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안녕리에 있다. 장조(莊祖, 사도세자)와 그의 비 경의왕후(敬懿王后, 혜경궁 홍씨)의 능이다. 근처에 위치한 건릉(健陵)과 함께 사적 제206호로 지정되어 있다. 장조는 1735년(영조 11) 창경궁에서 탄생해 그 이듬해에 세자에 책봉되고, 1762년 28세 때 창경궁에서 죽었는데, 영조가 뒤에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 뒤 정조가 즉위하자 장헌세자(莊獻世子)라 하고 고종 때 장조로 추존되었다가 1899년 의황제(懿皇帝)로 다시 추존되었다.
경의왕후는 영의정 홍봉한의 딸로서 1744년 세자빈에 간택되었다가 세자가 죽은 뒤 1762년 혜빈(惠嬪)의 호를 받았다. 1776년(정조 즉위년) 아들 정조가 즉위하자 궁호가 혜경(惠慶)으로 올랐다. 1815년(순조 15) 80세로 창경궁에서 죽었는데, 1899년 의황후(懿皇后)로 추존되었다. 융릉은 원래 경기도 양주군의 배봉산에 있었던 영우원(永祐園)을 수원의 옛 도읍 뒤의 화산(花山)으로 옮겨 현륭원(顯隆園)이라 했다. 정조는 현륭원을 마련할 때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그 결과 조선시대의 어느 원보다도 후하고 창의적인 상설(象設)을 했다.
석인도 예전에는 가슴까지 파묻혀 있었으나, 목이 위로 나와 있어 시원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등 조각 수법이 사실적이다. 능의 뒤에는 곡장을 돌렸다. 19세기 이후의 능 석물 양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네가 만약 자진하면 조선국 세자의 이름은 잃지 않을 것이다. 어서 자진하라!"

세자는 이마를 땅바닥에 찧으며 영조를 바라보며 애원했다.

"전하! 전하!"

영조의 벌건 얼굴에는 노기가 철철 흐르고 세자의 얼굴에는 피눈물이 범벅이다.

"내가 죽으면 300년 종묘사직이 망하고, 네놈이 죽으면 사직이 보존될 것이다. 너 하나 잃지 않으려고 종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어서 자진하라!"

윤5월, 한여름이다. 임금의 노기(怒氣) 앞에 바람과 초목도 숨을 죽인다. 햇빛을 가려줄 구름마저 세자의 편이 아닌 듯 종적을 감추었다. 세자를 감싸줄 이는 아무도 없다. 피눈물에 젖은 적삼만이 그를 감싸고 있다.

"아바마마! 군왕은 세상의 동서남북, 전후좌우이옵니다. 전하 앞에서 차마 흉측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밖에 나가서 자진토록 해주소서."

"죽으려는 놈이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닐 때도 그리 말이 많았느냐? 어서 자진하라!"

"전하께서 칼로 내리친다 해도 신은 칼끝에 놀라지 않을 것이옵니다. 지금 죽기를 청합니다. 다만 흉한 꼴을 전하께 보이고 싶지 않을 따름이옵니다."

영조는 섬돌 아래로 내려오며 소리쳤다.

"저놈, 저놈, 말하는 걸 보라. 흉측하기 짝이 없구나. 어서 자진하라."

영조의 노기는 누그러질 낌새를 보이지 않는다. 땅바닥에 팽개쳐진 젖은 빨래처럼 엎드려 있던 세자는 허리띠를 풀어 목을 맸다. 그러자 시강원 강관들이 달려와 매듭을 풀고 부축하며 의관을 부른다. 의관이 청심환을 물에 타서 입에 떠 넣었으나 세자는 계속 뱉어낸다. 영조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저자들이 저러니까 저 흉악무도한 놈이 믿고 날뛰는구나. 모두 파직시켜라."

이때 열 살 된 세손(정조)이 살벌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휘령전 마당으로 황급히 뛰어 들어왔다. 세손은 아버지 사도세자처럼 관과 도포를 벗어 던지고 세자 뒤에 엎드려 울부짖는다.

"할바마마! 할바마마! 아비를 살려주옵소서."

"누가 세손을 데려왔느냐? 썩 데리고 나가라!"

발버둥치는 세손을 별군직 김수정이 안고 나간다. 영조는 창처럼 시퍼런 분노를 이기지 못해 고함을 지른다. 이놈, 어서, 어서 자결해라. 세자가 바닥에 널브러진 용포를 찢어 다시 목을 매니 강관들이 또 풀어주었다.

이 때 네 명의 내관이 휘령전 쪽문으로 큰 궤를 들고 들어온다. 뜰 가운데 큰 궤가 놓였다.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 바로 그 뒤주다.

"속히 그 속에 들어가라."

이미 기진맥진한 세자가 엉금엉금 기어 뒤주를 잡자 시강원의 강관들이 울면서 만류하며 궤 밑에 엎드린다. 영조가 다시 고함을 지른다.

"저것들도 모두 역적이다. 당장 파직한다. 모두 끌고 나가라."

어명에는 농담이 없다. 발설과 동시에 시행만 있을 뿐이다. 그들은 모두 끌려 나갔다. 세자는 흙투성이가 된 옷자락을 추스르며 두 손으로 뒤주의 모서리를 잡고 힘겹게 일어선다. 처연한 눈빛으로 영조를 올려다본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절규한다.

"아버님, 아버님! 소자를 살려주옵소서!"

참으로 오랜만에 부왕을 아버지라 불렀다. 이 말은 끝내 이승에서 아비의 눈빛을 바라보며 외친 마지막 말이 되고 말았다. 아들의 절규에 대해 서늘한 아비의 대답이 돌아왔다.

"속히 뒤주 안으로 들어가라."

번복은 있을지언정 헛말이 없는 것이 어명이다. 마침내 세자는 뒤주 속에 들어갔다. 영조는 섬돌 아래로 내려와 직접 뚜껑을 닫고 자물쇠를 잠궜다. 긴 판자를 가져오라하여 뒤주 위에 덧대어 못을 박고 밧줄로 뒤주를 봉했다. 뒤주 안에서 울부짖는 세자의 목소리가 영조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영조의 눈빛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다. 새끼를 잃은 맹수가 발광하는 눈빛 같았다. 이날이 1762년 (영조38) 윤5월 13일이다. 무심한 햇살은 밀폐된 뒤주 위에 사정없이 내리 꽂힌다.

조정 상황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세자에 대한 구명은 찻잔 속에 태풍일 뿐이다. 8일 후, 영조 38년 윤5월 21일, 좁은 뒤주 속에서 발버둥조차 치지 못한 채 세자는 숨을 거두었다. 정쟁의 소용돌이에 온몸으로 항거하다 스물여덟의 생을 마감했다.

세자가 죽은 바로 그날, 영조는 '사도세자(思悼世子)'라는 시호를 내렸다. 생각 사(思), 슬퍼할 도(悼)! 영조가 직접 지은 것이다. 세자가 뒤주 속에서 사그라져가는 목소리로 살려주기를 애원하고 있을 때, 영조는 세자의 목숨이 아니라 세자의 명예만 살려주기로 작정하고 있었다. 세자가 죽은 직후 영조는 이렇게 말했다.

"과인은 미물도 불쌍히 여겨 부나비가 등잔으로 달려들면 손을 휘저어 내쫓고 길바닥에 개미가 지나가면 밟지 않고 건너갔다."

미물의 불살생(不殺生) 계율에는 충실했으나, 아들을 죽인 아비라는 낙인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불같은 성격의 태종도 말썽꾸러기 세자 양녕대군을 죽이지는 않았다. 스물다섯 살에 세자 자리에서 내쫓긴 양녕은 비록 유배생활을 했으나 노년에는 왕실의 어른 대접을 받으며 69세까지 장수했다. 사도세자의 장례는 두 달 후인 7월 23일에 치러졌다. 장지는 양주 매봉산으로 정해졌다.

맏아들 효장세자가 10세에 죽고 16년간 아들이 없어 애태우던 영조가, 마흔 둘에 얻은 자식이 사도세자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 두 살 때 세자에 책봉했다. 영조의 기대가 컸고 세자는 기대를 배반하지 않았다. 세 살 때 부왕과 대신들 앞에서 <효경>을 외웠고, 일곱 살 때 <동몽선습>을 독파했다. 서예에 조예가 깊어 수시로 문자를 쓰고 직접 지은 시를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열 살 때 홍봉한의 딸 혜빈 홍씨와 가례를 올렸다.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었다. 사도세자 죽음의 향연에 등장하는 핵심 소품인 뒤주를 제안하고 준비한 이가 세자의 장인 홍봉한이다. 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죄목은 세 가지다. 의대증이 도져 옷시중을 드는 궁녀를 때려죽이고, 안암동에 있던 여승을 세자궁으로 불러들이고, 왕의 허락 없이 한 달 동안 관서지방을 유람하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 정도 죄목이면 꾸중, 근신, 심하면 폐세자 등의 벌이 합당하다. 그의 주변에 그를 도와주는 세력이 너무 없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듯이 비난하는 목소리만 자욱했다. 부인 혜경궁 홍씨도 세자의 편이 아니었다. 친정의 충실한 딸이었으나 지아비의 애틋한 지어미는 아니었다.



죽어서도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정자각을 비켜 세웠다.

장인이 직접 사도세자 죽음을 위한 '뒤주' 마련
부인 혜경궁 홍씨조차 친정의 딸 역할에만 충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68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법 반 (1 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8년 8월 27일까지 ◆ 개강일시 : 2008년 8월 28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교육일 : 7월 28일 월요일반 • 교육시간 :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화합·중흥위해 '날마다 새로운 날'

부산불교연합회 제10대 회장단 취임



7월 15일 롯데호텔에서 부산불교연합회 제 10대 회장단이 취임했다.

부산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 제10대 회장단이 취임했다. 7월 15일 오후 2시부터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진행된 이번 취임식은 승가 320명을 비롯해 사부대중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10대 회장단 임원진은 회장에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수석부회장에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상임부회장에 미룡사 주지 정각 스님 등 총 66명으로 스님 61명, 재가불자 5명으로 구성됐다.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예부터 우리 불자들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면 더욱 지극한 신심으로 기도정진에 매진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며 "앞으로 4년간 승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부산불교계의 중지를 모아 부산불교의 화합과 중흥을 위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여성개발원 이영숙 부산지원장은 "재가는 승가를 공경하고, 승가는 재가를 바로 이끌어 승속이 화합할 것"을 염원하는 발원문을 낭독했다.

사무총장 자인 스님은 부산불교연합회 발전 핵심 5대 비전으로 ▲부산불교의 대동단결 ▲교권수호를 위한 연합 조직체 상설운용 ▲호국승병장 사명대사행장, 동상 성역화 사업 주진 ▲성도재일(음 12월 8일) 기념행사 봉행 정례화 ▲국제포교를 위한 부산 1사, 해외 1사 결연운동 ▲어린이, 청소년, 청년 불자(대학생)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발표했다.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은 축전을 통해 "제10대 회장단 취임을 계기로 부산불교가 더욱 발전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우리 부산이 살기 좋은 불국정토가 되도록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린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자비사상으로 불국정토 만들것"

인터뷰-제10대 신임회장 정여 스님



"부산은 한국 불교의 중심입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불국정토를 만들겠습니다."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이 부산불교연합회 제10대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스님은 "사명 대사의 호국안민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과 부산발전을 위한 기도정진 및 불교의 교권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종교 간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부산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향과 촛불이 되겠다"며 "각 불교 종파 간 유대를 강화해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달아 평화로운 불성광명에 머물도록 정법홍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 4년 동안 부산불교의 대소사를 이끌어 나갈 정여 스님이 이끄는 제10대 부산불교연합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불국토를 찾아서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건강하게 여름나세요"

매일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1년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점심식사를 마련하는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의 경로식당. 웬일인지 오전 9시부터 경로식당이 위치한 지하 1층부터 건물 어귀까지 어르신들이 하나둘 줄을 선다. 진임이(83) 할머니는 "집에 있어봐야 덥고 심심하지. 나오면 말벗도 있고 맛있는 점심도 차려주니까 얼마나 좋아"라며 오랜만에 만난 사회복지사의 손을 잡았다. 사회복지사 이승희씨는 "할머니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여름 나시라고 삼계탕 준비한 것"이라며 할머니를 자리로 안내했다.

7월 16일 오후 12시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지하1층 경로식당은 지역 독거 어르신들의 여름철 건강증진을 위해 '효도삼계탕'을 마련했다. 국민은행 메트로지점과 여러 자원봉사자의 후원으로 준비된 닭, 인삼, 찹쌀, 대추, 당귀 등 영양이 듬뿍 담긴 한방삼계탕은 지역 내 거주하는 결식 어르신과 장애인 150여명에게 제공됐다. 이곳 경로식당에서 12년째 자원봉사 하고 있는 배기숙 조리실장은 "우리 친정어머니가 잡수신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요리했다"며 "삼계탕 한 그릇 잡수시고 1년 내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거동이 불편해 미처 복지관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 30여 명에게는 도시락 배달을 통해 삼계탕이 전달됐다.

형편이 어려워 끼니 챙기는 게 어려운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해 드리자며 시작한 '경로 식당'의 여름 보양식 제공 사업이 어느덧 10년째를 훌쩍 넘겼다. 이승희 사회복지사는 "거짓말 같겠지만 독거 어르신 중에는 식사를 잘 못하시고 갑갑한 집안에서 무더위를 견디다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다"며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다.

평소 친한 할머니들과 어울려 경로식당을 자주 찾는 홍순선(62) 할머니는 "삼계탕을 참 맛있게 잘 만들었네"라고 요리 솜씨를 칭찬했다. 한번에 150인분을 준비해야해 허술할 법도 하지만, 경로식당 자원봉사자들은 닭 손질부터 속 재료를 다듬고 육수를 내기까지 4시간동안 더운 주방에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했다. 식사를 마치고 손수 빈 그릇을 주방까지 가져와 건네준 손순복(88) 할머니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라며 진심이 담긴 짧은 인사를 전했다.



여름 보양식 제공 사업 10년째

이춘성 관장은 "아직도 우리 주변엔 홀로 힘들게 지내는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더 많은 분들이 사랑이 듬뿍 담긴 효도삼계탕을 드시고 올여름 건강하게 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생명존중 위한 간담회' 7월 16일 부산시청서

부산지역 6대 종교인들의 모임인 '공동선실천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정여)'는 7월 16일 오후 4시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생명존중을 위한 종교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불교계에서는 정여(범어사 주지), 월강(금어사 주지), 성담(보현정사 주지), 한파(진영포교당 주지) 스님이 참석했다.

개신교 부산경찰청교회 황성민 목사, 유교 성균관유도회 부산본부 신준성 회장 등 불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대표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생명존중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앞으로 협의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동참 호소 선언문 발표, 평화와 생명을 위한 음악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영축사, 외국인 불교문화법회 봉행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 이민자 가족 70여명 참석

양산 영축사(주지 각문)에서 7월 13일 오전 9시 외국인을 위한 불교문화법회가 열렸다. 이날 법회는 중국, 스리랑카,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세계 각국에서 모인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 이민자 가족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양산 통도사 성지순례를 시작으로 영축사에서 준비한 점심 공양이 이어졌다. 영축사 경내를 둘러본 후 법당에서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의 특별 초청 법문이 마련됐다. 도성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는 나와 타인을 모두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올바르고 지혜로운 마음가짐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스리랑카 현지 스님의 통역을 통해 전했다. 이어 영축사 경내에서는 다도 시연과 제기 차기 등 한국 전통 문화 체험행사가 열려, 낯선 이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영축 이주민지원센터는 영축사 주지 각문 스님과 신도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과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자체 운영된다. 각문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남방불교국가 출신들인데 한국에 와서는 불교가 아닌 타종교가 마련한 쉼터를 찾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불교도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 힘든 한국 생활에서 꿈과 희망을 안겨줄 봉사활동이야말로 참된 보살행"이라며 관심과 도움을 호소했다.

영축 이주민지원센터 이동욱 팀장은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이국땅에서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들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현대불교 부산지사 광고·구독 문의 (051)632-0064

한반도 평화위한 서명운동 정토회, 7월 12일 발대식

한국인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튿날인 7월 12일 오후 2시부터 부산역 광장에서는 불교수행공동체 정토회(대표 유수)의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이 열렸다.

이번 발대식에서 북한에 식량 20만 톤을 긴급 지원하고, 정부 예산의 1%를 북한경제개발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정토회 김휘숙 영남사무국장은 "현재 북녘 땅에서는 식량부족으로 소리 없는 죽음이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7~8월동안 최소 20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널리 퍼져 보다 많은 북녘 동포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한편 정토회는 5월 27일 부산항에서 밀가루 200톤을 북한으로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박지원 기자

발행 한 주만에 재판 인쇄

"자애로운 스승, 일타 대종사와의 인연
해인사 장경각에서 108만배 기도 성취
2천번 넘게 비행기를 타고 세계 방방곡곡 설법
제주 약천사 창건
단양 도락산 광덕사 백만불전 건립불사"

제주 약천사 혜인 스님의 신심, 원력이야기

신심, 원력



신심 | 239P 정가 10,000원 |
원력 | 285P 정가 10,000원 |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02)2198-5151

설정 스님(덕숭총림 수좌)_ 혜인 선사가 평소에 실천궁행했던 경험들을 책으로 펴냈다. 거기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사부대중을 향하여 고구정령 토설했던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들로 짜여 있다.
무비 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_ 사람들을 그토록 감동시키던 그 법문이 이제 글로 화하고 책으로 엮어져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고은(시인)_ 장엄한지고 여기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쉬운 길라잡이를 만나 훤히 트였구나. 이 길 따라 가고 가면 되는구나.

전 언론이 격찬, 격찬 !!!

한국일보_ 오척 단구 어디에서 그렇게 큰 힘이 솟아났을까. 책에는 그 고행의 과정이 별다른 자랑이 아니라는 듯 소개되어 있다. 경향신문_ 책에는 스님의 신심과 원력의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스님이 법문 내용을 토대로 쓴 글들이다. 그의 법문은 유쾌하면서도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문으로 유명하다. 매일경제신문_ 혜인 스님 법문이 시작되면 불자들은 웃음과 감동이 번갈아 교차한다. 그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번에 책을 한꺼번에 두 권을 낸 것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 한국경제신문_ 불교계에서 '포교제일의 부루나 존자'로 불리는 그가 두 권의 책을 한꺼번에 펴냈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리다 보면 108배를 넘어 140배,150배가 된다고 한다. 세계일보_ 그가 펴낸 수행에세이에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신심과 효심, 용기를 불끈불끈 솟게 한다. 때론 배꼽을 잡게하는 솔직한 이야기도 쏟아져 나온다. 또한 인과의 진리가 담겨 있어 현대인의 잃어버린 가치관을 되찾는 데에도 친절한 길 안내가 돼준다. 국제신문_ 혜인 스님은 108만 배 이후 삶에 큰 변화를 느끼면서 설법 잘하는 법사로 통하고 있다. 감동을 주는 스님의 법문이 알려지면서 한 달에 보름 이상은 전국과 세계 곳곳을 다니며 초청법문을 한다. 불교신문_ 왜 책 제목이 신심과 원력인가. 스님은 이렇게 풀이했다. "신심은 불심(佛心)이요 원력은 보살의 마음입니다." 스님이 책을 발간한 이 유는 하나다.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기 위해서다. 현대불교신문_ 혜인 스님이 그간 걸어온 수행의 길에서 스스로 지켜 온 신심의 근거와 그 기운의 불가사의함이 페이지마다 녹아있다. 법보신문_ 책은 법문의 형식을 빌었지만 혜인 스님의 수행의 향기를 진하게 담고 있다. 서문을 장식한 고은 시인의 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 함께 따라가 볼 일이다.

"종교간 화합 통한 상생 이룰터"

7월 10일, 정읍시 종교협의회 발족

건전한 정신문화 정립과 시민화합을 위해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정읍지역 종교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의회를 발족했다.

7월 10일 각 종교지도자들은 '정읍시종교협의회'를 발족하고 초대 회장에 김재조 목사(정읍 영생교회), 부회장에 원공 스님(정토사), 베드로 신부(연지동 성당), 이성희 교감(정읍교당)을 추대하고, 감사에 대우 스님(벽련암)을 선출했다.

종교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정읍지역 종교지도자들은 정례모임을 갖고 종교 간 상호 이해를 통한 종교인 화합 및 시민의식 개혁, 건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발족식에 모인 종교지도자들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행복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정신 함양을 위해 종교인이 앞장 서자"고 결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김제 금산사 여름 禪 수련회 개최



7월 18일 금산사 수련법회 참가자들이 참선을 통해 자신을 관하고 있다.

무더위가 기승 부리는 요즘 나태하기 쉬운 자신을 가다듬어 마음을 닦고 영혼을 살찌우는 수련법회가 7월 18~20일 김제 금산사에서 열렸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법회는 참선과 염불수행을 병행해 수행의 큰 움직임과 세밀함, 빠름과 완만함을 함께 갖췄다. 한국불교의 오랜 전통수행 속에 자기 삶의 존재적 가치관을 발견하고 수련법회 후에도 일상수행으로 이어져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7월 18일 입제식 후 참가자들은 금산사에 관한 문화해설을 듣고 예불과 주지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받는 것으로 '나를 찾는 여행'을 시작했다.

새벽 예불에 이은 108참회와 참선, 3000배 용맹정진과 <금강경> 강독, 인경, 선(禪)테라피 요가 등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에 참가자들은 점점 맑아지는 마음을 느꼈다.

참가자들은 절 수행을 통해서는 참회를 익히고 염불수행과 탑돌이 수행으로 발원을 세우며 참선수행으로는 지혜와 자비를 배웠다.

도시에서는 느껴볼 수 없었던 상큼한 공기를 마시며 새벽 숲길을 걷는 포행은 또 하나의 수행이다. 어느새 망상들은 하나둘씩 사라져 떠오르는 아침 해와 같이 마음도 밝아 온다.

수련법회를 지도한 일감 스님은 "우리 삶은 처음과 끝이 괴로움으로 이뤄져 다변화시대, 고도의 정보화 물질문명 시대, 사람과 상황에 따라 수많은 괴로움에 직면해 있다"며, "참선을 통해 자기 괴로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삶이 어떻게 이뤄졌는가를 살펴 괴로움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괴로움에서도 벗어나게 된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끽다거' 법연으로 나투다

쌍봉사 철감 · 조주 영정 봉안식 열려



화순 쌍계사에 봉안된 조주 선사(좌)와 철감 선사 영정.

'차 마시는 것과 선 수행이 한 맛(茶禪一味)'이라는 말은 선종 차문화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예다. 중국 조주 스님이 '끽다거(喫茶去)'라 말해 선다(禪茶)의 효시라면, 한국에는 철감 선사가 있다. 조주 선사와 철감 선사는 스승 남전 선사 밑에서 11년간 법연을 맺은 사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7월 12일 화순 쌍봉사(주지 영재)에 선종 차문화의 주역 조주 선사와 철감 선사의 영정이 봉안돼 '끽다거'의 법연을 이었다.

'쌍봉사 호성전 철감 · 조주 선사 진영 점안식'에는 영조 스님(송광사 주지)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쌍봉사는 이번 영정 봉안을 위해 중국을 2번 오가며 조주 선사 목판상을 모태로 영정을 제작했다.

소설가 정찬주씨는 두 스님의 영정 봉안 연유문에서 "철감 선사 도윤은 18세(815년)에 김제에서 출가해 10년 동안 화엄학을 배우던 중 '깨달음의 통발과 그물이 어찌 심인(心印)의 묘한 이치만 하겠는가'라고 크게 발심했다. 28세에 사신의 배를 얻어 당나라로 들어간 철감 선사는 바로 남전 선사의 제자가 돼 밤낮으로 심법(心法)의 묘리를 익혔다. 마침내 남전 선사는 '우리 종의 법인이 동국으로 돌아가는구나'하고 선사를 인가했다고 한다. 선사는 남전 선사 열반 후 13년간 당나라 여러 선사 문하에서 정진 후 문성왕 9년(847) 50세에 귀국했다"고 말했다.

조주 선사에 대해 정씨는 "조주 선사는 778년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출가해 남전 선사를 찾아 제자가 된 후 40년을 시봉했다. 남전 선사에게 도를 묻다가 '평상의 마음이 도'라는 말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선사는 120세 열반에 들기까지 '무(無)' '뜰 앞의 잣나무(庭前柏樹子)' '차나 한잔 마시게(喫茶去)'라는 많은 화두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영재 스님은 인사말에서 "철감 선사와 조주 스님의 다연을 현대에 맞춰 많은 대중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철감 · 조주 선사 진영식은 역사적 전거를 밝히고 중국 고증자료를 확인해, 고승에게 인가 받는 등 정찬주씨의 숨은 공로로 가능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naver.com

자연과 하나된 어린이 템플스테이

7월 28~30일, 증심사 어린이 숲속학교

호남지역 어린이를 위한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광주 증심사는 7월 28~30일 증심사와 무등산 일대에서 '제2차 어린이 숲속학교'를 연다.

이번 어린이 숲속학교는 지난해 제1회때 선풍적 인기몰이에 힘입어 템플스테이 운영프로그램과 어린이 캠프를 접목시켜 환경과 전통이 하나된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다도체험, 숲 탐방, 우리문화 바로알기, 증심사 역사알기, 환경 먹거리 체험,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 마음을 밝히는 촛불발원 등이 진행된다. 행사 중에는 일체의 과자, 음료수 그리고 육식을 하지 않는대신 채식위주의 식단으로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제공해 참가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도 도모했다.

행사 실무 책임을 맡은 조영훈 사무국장은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사회의 동량으로 키우기 위한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062)226-0108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독신청 · 기사제보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 북 지 사 (063)910-5199

동헌완규 조사 탄생 봉찬대제

7월 16일 장안산 정상서

7월 16일 장안산 정상에서 동헌완규 조사 탄생 제113회 봉찬대제가 열렸다.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는 보훈처 전북지부 김대일 지부장과 김상두 이사장(독립운동가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 등 사부대중의 동참 속에 봉찬대제를 봉행했다. 봉찬대제 후에는 '온겨레를 위한 제8회 산상기도'를 봉행해 국태민안과 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했다.

도문 스님은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는 제불통게(諸佛通偈) 설법에서 "부처님 법아래 온겨레 만중생이 수행에 정진해 안락과 평화를 누릴 것"을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부루나존자

광주지역운전불자연합회 이현만 회장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법륜은 부처가 중생 제도를 위해 가르침을 펴는 것을 말한다. 전법륜(轉法輪), 즉 '법륜을 굴린다'고 표현한다. 법륜이 멈추지 않고 항상 구르는 것처럼 불법은 어느 한 곳, 어느 한 사람에 머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중생계를 회전해 시방삼세 일체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돌아간다.

광주 도심에서 전법륜의 상징물을 달고 활동하는 신행단체가 있다.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를 자임하고 신행활동 하는 한국운전불자연합회 광주지역회(이하 광주운불련) 이현만 회장을 만났다.

"운전불자 회원들이 거리의 포교사임을 자랑스레 여긴다. 불교방송과 명상음악을 틀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와 접하는 것부터가 운전 포교의 시작"이라는 말은 광주운불련 회원들의 자부심이 어떠한지 쉽게 확인된다.

광주운불련은 1992년 발족해 현재 100여명의 개인택시 기사와 재가불자들이 활동중이다.

불교방송으로 자연스럽게 접하게 해

그동안 광주지역 불교에서 광주운불련의 역할은 대단했다. 광주지역의 거의 모든 불교행사에 항상 20여명 이상이 참석해 교통정리, 행사장 안전요원, 행사장 안내 등 주목 받는 일은 아니어도 반드시 필요한 일들을 10여년 넘게 해와 광주운불련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

특히 지역 불교복지시설과 연계해 독거노인과 지체장애자들의 나들이 봉사를 이끄는 등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광주운불련이 많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마이카 시대에 들어 이용객들이 급감해 지난 1998년부터 시작한 부름택시 해체를 심각하게 의논 중"이라는 이 회장의 말은 최근 침체된 경기가 광주운불련 회원들에게도 어려운 고비임을 짐작케한다.

현재 부름택시의 하루 이용객은 70여명이다. 하루 평균 250여건의 전화가 오던 5년 전에 비하면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콜센터 안내원의 급여와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광주운불련은 콜비를 받지 않는다. 더군다나 일반 택시기사들이 기피하는 시외 사찰로의 운행도 광주운불련 회원들만은 예외다. 도심에서 떨어진 사찰까지도 친절하게 안내해 온 광주운불련에 많은 불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현만 회장은 40세가 되던 1996년 운불련에 들어와 불교와 인연 맺었다. 2005년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받았고, 운불련 포교부장과 총무를 거쳐 지난해 운불련 회장 소임을 맡았다.

대학생 아들 딸을 둔 그는 "불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돕고 사는 마음을 보여야 한다"며 화합과 상생을 화두로 살고 있다. 이현만 회장은 오늘도 변함없이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며 거리를 달린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병불련 회원들 '찾아가는 의료봉사'

제천 양파축제 현장 찾아 지역주민 대상 진료활동

병원에 있어야 할 의사들이 양파축제에는 무슨 일로 왔을까. 제천시 한수면의 양파축제가 한창인 7월 13일,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뜨거운 태양아래 지칠 법도 하지만, 40여명의 의료진과 80여명의 봉사자들은 한명이라도 더 진료를 해야겠다는 마음에서인지 더 열심이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화장 류재환 · 이하 병불련) 회원들이 병원이 아닌 한수면으로 환자를 찾아나선 이유는 3월 월악산 덕주사(주지 원경)가 주최한 제2회 '행복 속으로 가는 의료봉사' 후원을 시작으로 덕주사와 인연을 맺고 '지속적인 후원과 교류'를 약속했기 때문. 이런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제3회 의료봉사도 가능했고, 의료포교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겠다는 발원도 더욱 굳건해졌다.

병불련이 덕주사에서 의료봉사를 시작한 것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2007년 6월 주지 원경 스님이 부임하고 나서부터 시작 된 것이다.

원경 스님은 "조계사에서 살면서 도시 사람과 지방 사람들 사이에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며 "제천으로 와 보니 경제 · 환경 여건으로 인해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참고 살아야 하는 시민들이 안타까워 의료봉사활동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수행과 실천이 하나라고 생각했기에 '행복 속으로 가는 의료봉사 팀'을 조직해 2007년 9월 제1회 의료봉사를 실시, 한수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안경을 맞춰드린 것을 비롯해 한방 및 내과 진료, 미용봉사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시작한 의료 봉사가 3회째에 이르자 더 많은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게 됐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양파축제에 참가한 모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확대된 것. 이 뜻에 동참하고자 병불련, '반갑다 연우야', 덕주사신도회, 마하연선원신도회, 고려아카데미, 동주병원 등도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병불련 회원들이 7월 13일 덕주사에서 어르신들에게 발마시지를 해주고 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치과검진 자동차, EKG(심전도기), 초소형 혈액검사기, 초음파기, 혈당검사기, 혈압기 등의 최첨단 의료장비들이 동원돼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과 똑같이 세밀하게 진찰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병불련 류재환 회장은 "진료 받으신 어르신들 모두 큰 병이 발견되지 않아 너무 기쁘다"며 "지난 분기 봉사 때 보다 더 많은 분들을 진료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꾸준히 의료봉사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과 수술을 받고 회복도 되지 않은 몸으로 봉사에 나선 류 회장은 "오로지 봉사를 하기위해 부처님께 기도해서 가피를 입고 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료봉사에서는 영정사진 촬영, 미용, 발마사지 등의 봉사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영정사진의 경우 사진들을 모두 액자에 담아 나눠줄 것이라고 해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했다. 현장에서 진행된 미용과 발마사지 봉사도 많은 인기를 끌었다.

행사에 참가한 강민주(37 · 경기도 분당)씨는 "어머니가 한수면에 살고 의료봉사에 대한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는데 이곳에 와 보니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 어르신들을 진료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 받았다"며 "곁에서 보살펴 드리지 못해 항상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원경 스님은 "제4회 의료봉사는 10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꾸준히 의료봉사를 진행할 테니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병불련 회원들 역시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하고 "덕주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 것이다"고 다짐했다.

손효선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 광명선원 주지 현문 스님

"납골당도 포교 방법이죠"



납골당을 통해 포교를 행하고 있는 스님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소재한 광명선원 주지 현문 스님이다. 스님은 "납골당은 포교뿐만 아니라 자연 훼손을 막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평소 스님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사찰이 청주 도심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고민을 하던 중 납골당을 떠올리게 됐다고 한다.

"납골당의 경우 대부분이 교외에 있어 차를 타고 2~3시간 이동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다"며 "그렇기에 교류가 뜸해지면 살아생전 애지중지했던 부모나 형제, 자식도 죽고 나면 남 같고 혐오스럽게 변하는 것 같다"는 게 스님의 경험담이다.

이에 스님은 살고 있는 건물 6층을 법당으로, 4층을 납골당으로 만들었다. 5층과 3층은 BBS 청주불교방송에 무상으로 대여해줬다.

스님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 자체가 포교당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며 "법당을 통한 포교, 납골당을 통한 포교, 그리고 BBS 청주불교방송을 통한 언론 포교가 한 건물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납골당의 경우 종교 불문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500여개를 무료 분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4월 4일 문을 연 납골당은 4000여 기의 납골을 모실 수가 있다.

물론 스님은 종교를 불문하고 납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교와 친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24시간 법어나 불교 음악 등을 틀어 놓는다고 한다. 또한 스님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화장문화였기 때문에 다시금 화장 문화를 되살려 환경 훼손을 막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등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납골당과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은 무슨 관계일까. 이에 대해 스님은 "소위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좋은 산 혹은 땅을 사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죽기라도 하면 묻을 곳이 없어 고민하는 것을 봐왔다"며 "납골당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부자라고 해서 큰 산 하나를 차지할 일도 없어질 것이고, 가난하다고 해서 죽음에 슬퍼할 겨를 없이 걱정부터 해야 할 일은 없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저소득층 위해 납골당 500여개 분양 예정
"장애우·군부대 위한 포교사업도 나설 것"

앞으로 스님은 납골당이 정착되면 군부대, 장애우 등을 위해 더 많은 포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님께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 이유를 묻자 "어차피 절집 사업은 환원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에 버는 것보단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을 진행하며 거칠고 거만한 사람은 하심을 갖게 해 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주는 것이 우리 불교와 스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사찰로 어린이수련회 가요"

문화재 교육·한문 학습 등 프로그램 다채

템플스테이와는 또 다른 매력. 초등학생을 위한 여름불교학교를 진행하는 사찰들이 늘어나고 있다.

충청지역의 많은 사찰들이 아이들의 눈에 맞춘 자연 친화 · 문화재 교육 · 수행 수련 · 한문 학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이한 자녀들에게 사찰에서 진행하는 여름 수련회를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현재 충청지역 대표 사찰이라 불리는 법주사(주지 노현), 마곡사(주지 법용), 수덕사(주지 옹산)도 여름 수련회를 시행하고 있다.

법주사의 경우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어린이 불교 캠프를 성황리에 마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수련회를 마련, 8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마곡사의 경우는 어린이 수련회만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1차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2차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다.

이밖에도 ▲예산 수덕사는 8월 2일부터 3일까지 ▲청주 관음사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공주 영평사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각각 어린이 수련회를 진행한다.

손효선 기자

공주 붓다라이온스 회장 취임식

경로 위안잔치 마련·복지시설에 쌀 전달도

공주 붓다라이온스클럽 회장 이 · 취임식 및 경로 위안잔치가 7월 5일 공주 곰나루 야외무대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법용(마곡사 주지), 환성(영평사 주지), 해월(원효사 주지) 스님과 이준원 공주 시장, 양준모 공주시 의원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붓다라이온스클럽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이종칠씨는 "클럽이 보시와 봉사를 통한 참된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앞으로 회원 · 이웃간 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며,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클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장 이 · 취임식에 앞서 이종칠 신임회장 앞으로 10㎏ 쌀 40포가 행사장에 전달됐다. 이는 화환 대신 쌀을 받겠다는 이종칠 신임회장의 뜻에 따라 지인들이 보내온 것. 이날 모은 쌀은 금강노인복지 시설을 비롯해 공주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정신지체 장애우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경로 위안잔치를 위해 붓다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은 직접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예전에는 행사 때마다 뷔페를 부르고, 팸플릿을 만드는 등에 많은 비용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비용을 줄여 좀 더 많은 곳에 봉사하기 위해서란다.

손효선 기자

서광사 53선지식 초청법회

서산 서광사(주지 도신)에서 특별한 법회가 열렸다. 7월 13일 서광사 대웅전에서 중앙승가대학 총장 종법 스님을 초청 법사로 53선지식 초청법회 입제식이 봉행됐다.

이날 종범 스님은 "우리는 인간의 근본인 인과를 믿어야 한다. 인과를 떠나서 무엇을 찾는 것은 옳은 마음이 아닌 사견"이라면 "인간이 바라는 것은 재물 · 권력 · 명예인데 오는 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니 불자들은 젊음이 있을 때 열심히 수행정진해 오고 감이 없는 삶을 살라"고 입제 법문을 설했다.

법회에 앞서 도신 스님은 "종범 스님을 모시고 53선지식 법회를 시작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서광사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 11시마다 대덕스님을 비롯한 저명한 사회인사를 모시고 법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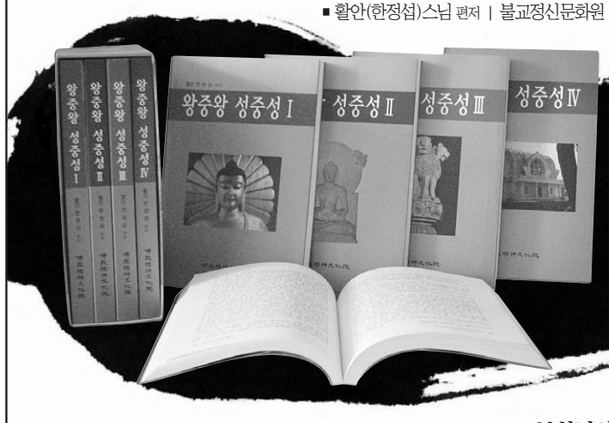
부처님은 왕 가운데 왕이시고, 성현 가운데 성현이며, 하늘 가운데 하늘이라


■ 활안 스님

'왕중왕 성중성'
王中王 聖中聖

'세계는 한 꽃이요, 만민은 동체(同體)라는 일념(一念)'으로 부처님의 언행이 고스란히 담긴 대장경을 50년간 탐독해온 활안스님 정진의 결실로, 부처님의 일생을 經과 律로써 모든 것을 풀어낸 역작....

■ 활안(한정섭)스님 편저 | 불교정신문화원 | 전 4권 4만 8천원



불교 교리발전의 근거가 된 부처님의 말씀과 일대기를 체계 있게 총 정리하였습니다.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 불교의 이치를 밝게 볼 수 있습니다.
바른길을 걸으신 부처님의 행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불교정신문화원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사)한국불교금강선원
구입문의 : 02)969-2410

부처님의 일생에 관련된 사진 자료, 여러 경전의 말씀, 승단의 계율 등 부처님의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한국불교의 찬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도서출판 수선재
WWW.SOOSUNJAE.ORG

잘 죽는 법과 사후세계의 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



수선재 엮음 / 문화영 원저 / 328쪽 / 값 12,000원

【 죽음을 준비하는 법 】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도,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명쾌한 해답!



수선재 엮음 / 356쪽 / 값 12,000원

【 목적있게 사는 법 】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생로병사를 겪을까?
이러한 의문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해답은 명상 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명상 수행을 통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참된 본성과 하나가 되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9 번지 2층 Tel.(02)737-9454 Fax.(02) 737-9456

문학·불교·세상의 만남 주도 "세계적 축전"



만해대상 56명 수상, 국가지도자·노벨상 수상자 8명
학술심포지엄 71회서 문학·불교 등 논문 360편 발표
종교 초월한 소통·풍성한 시상식·다양한 이벤트 자랑

만해축전은 독립운동가이자 종교인, 문학인으로서 불후의 업적을 남긴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계승 실천하기 위해 '님의 침묵'의 산실인 백담사에서 시작됐다. 새로운 세기를 앞둔 1999년 8월 첫 막을 올린 만해축전은 급변하는 한국사회의 물질적 정신적 혼동 속에서 민족문화 창달의 다양한 아이콘을 생산해 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전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만해축전 10년은 한국의 문학축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발돋움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담론의 마당을 제공하면서 불교의 사회적 소통에 대한 모범을 보인 것도 만해축전이 일군 성과로 꼽힌다. 거기에 만해의 정신을 표상하는 자유와 평화의 실천 의지를 세계적으로 선양한 점은 문학축전 이상의 공덕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복절인 8월 15일을 앞두고 열리는 만해축전에서는 만해대상, 유심작품상, 신인상, 시조백일장 등 시상식과 각종 학술심포지엄, 고교백일장, 청소년시인학교, 서예전, 지역주민 대동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때문에 매년 여름 만해축전이 열리면 전국의 문인들이 만해마을로 모여들어 안부를 묻고 친교를 나누는 것이 한국문단의 새로운 풍속도로 정착되고 있다. 무엇보다 만해축전의 하이라이트 격인 만해대상은 '한국의 노벨상'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세계적인 권위와 품격을 인정받고 있다. 1997년 제정된 만해대상은 평화 실천 문학 학술 포교 등 5개 부문에 대해 시상하며 현재의 각 부문 시상금은 3000만 원이다. 역대 만해대상 수상자 56명 가운데는 국가원수가 4명이고 노벨상 수상자도 4명이다.

만해축전 기간 중에 열리는 각종 학술심포지엄은 한국문학의 질적 성장에 중요한 에너지 역할을 해왔다. 만해축전에서는 지난 10년간 71건의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발표된 논문의 수는 360편. 심포지엄은 문학일반에서 시문학, 시조문학, 종교와 문학, 만해 사상 등 다양한 주제로 열려 만해축전이 우리 시대 문학에 있어 최대의 '아고라'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만해축전이 지역적이고 종교적인 행사라는 색깔을 벗고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문학축전으로 확장되어 온 것은 불교가 사회와 소통하는 새로운 길을 찾은 성과로 평가된다. 또 '이념'과 '이해관계'로 분열상을 보였던 한국문단에 화해와 통합의 기운을 불어 넣은 점도 만해축전의 커다란 성과다.

특히 만해축전이 한국문단에서 시들어 가던 시조문학을 부활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자부심이기도 하다. 그간 축전에서는 시조문학과 관련한 세미나가 15차례 열렸다. 2006년의 경우 현대시조 100주년을 맞아 '세계민족시인대회'를 열어 한국시문학의 뿌리로서의 시조의 위상을 재확인시키기도 했다. 만해 스님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연구의 계기를 마련한 점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도 만해축전이 일구어 가는 중요한 성과들이다.

만해축전은 지난 10년간 주관단체인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의 의욕과 기획력 그리고 지역민과 사찰, 조계종의 협력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표 문학축전으로 자리 잡아왔다. 올해로 10년을 맞은 만해축전은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디지털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은 만해축전을 세계적인 문학축전으로 발돋움시키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2008. 만해축전 일정표

일 시	행 사 명	주 관	장 소
6월 14일(토) 15:00	고전시가와 민족	한국시가학회	만해마을
7월 8일(화) 13:00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현주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만해 NGO교육센타
7월 24일(목) 10:00	축전대동제 인제군 노인게이트볼 대회	인제군게이트볼연합회	북면게이트볼장
8월 9일(토) 16:00	현대시조의 발전방향	경남시조시인협회	마산 사보이호텔
8월 10일(일) 10:00	대동축구대회 개막식	인제군축구연합회	특공연대 연병장
8월 11일(월) 14:00	만해시인학교 입교식	만해학술원	만해학교
14:00	제47회 학술심포지엄	(사)한국문인협회	통일촌 군내초교
15:00	현대시와 선시의 회통	시와 세계사	대강당
18:00	유심상,신인문학상,유심시조백일장 시상식 (비보이 클럽 개막 초청공연)	만해마을	님의 침묵 광장
19:00	청소년댄싱경연대회	인제청년회의소	님의 침묵 광장
20:00	시인학교와함께하는전야제 (철가방 프로젝트 초청공연)	시인학교	님의 침묵광장
20:00	학술심포지엄및시낭송회- 한국시와 외국시의 관계학	시와 시학사	대강당
8월 12일(화) 10:00	불교설화와 현대문학	현대불교문인협회	대강당
12:00	전국고교생백일장	강원일보사	수련원강당
14:00	한국 현대시 100주년 국제학술심포지엄(Ⅰ) 한국 현대시 100년의 반성과 전망	만해학술원	대강당
16:00	님의 침묵 서예대전 시상식	강원도민일보사	박물관2층
17:00	입제식 및 만해대상 시상식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님의 침묵 광장
18:00	축하공연 (군악대, 불교합창단)		
18:00	전국고교생백일장 시상식	강원일보사	수련원 강당
19:30	만찬(내빈, 만해대상 수상자)		실라벌성
20:00	현대시 100주년 기념 '문학의 밤'	만해학술원	님의 침묵 광장
8월 13일 (수) 9:00	한국 현대시 100주년 국제학술심포지엄(Ⅱ) 한국 현대시의 세계화 문제와 번역	만해학술원	대강당
13:00	시인학교 수료식	만해학술원	만해학교
14:00	한국 현대시 100주년국제학술심포지엄(Ⅲ) 한국 현대시의 외국어 번역현황과 문제점	만해학술원	대강당
16:00	미얀마작가초청 국제문학심포지엄	창작21작가회	만해학교
8월 14일 (목) 9:30	한국 현대시100주년 국제학술심포지엄(Ⅳ) 만해사상과 동아시아근대담론 비교연구	만해학술원	대강당
10:00	한국의 현대문학과 불교	(사)한국작가회의	서울대신양학술정보관
18:00	만찬	만해학술원	대강당

만해대상 수상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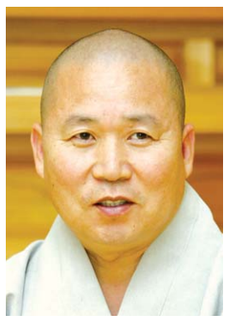
■ 제1회(1997년)
평화상 조영식(학교법인 경희학원장)
실천상 가톨릭 농민회(대표 김승오 신부)
학술상 이기영(불교문화연구원장 · 동국대 명예교수)
포교상 숭산 스님(화계사 국제선원 조실)
■ 제2회(1998년)
평화상 김순권(경북대 교수) 문학상 고은(시인)
포교상 성일 스님(화성신흥사 청소년 수련원 설립원장)
■ 제3회(1999년)
평화상 윤정옥(이화여대 명예교수 · 정대협 공동대표)
문학상 정완영(시조시인) 학술상 조동일(서울대 교수)
포교상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박광서 교수 · 남지심 소설가)
■ 제4회(2000년)
실천상 리영희(한양대 명예교수)
평화상 인세반 린튼(유진벨 재단 이사장)
문학상 오세영(시인 · 서울대 교수) 학술상 신용하(서울대 교수)
예술상 신응수(중요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
포교상 사단법인 좋은벗들(대표 법륜 스님)
■ 제5회(2001년)
실천상 백낙청(문학평론가 · 서울대 교수)
평화상 정주영(현대그룹 창업자)
문학상 이형기(시인 · 동국대 명예교수)
학술상 정영호(문화재위원 ·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포교상 정우 스님(서울 구룡사 주지)
■ 제6회(2002년)
평화상 강원용 목사('평화포럼' 이사장)
문학상 신경림(시인 · 동국대 석좌교수)
학술상 강만길(사학자 · 상지대 총장) 예술상 박찬수(목아박물관 관장)
■ 제7회(2003년)
평화상 김대중(前 15대 대통령) 문학상 조정래(소설가)
학술상 김윤식(서울대 명예교수)
예술상 이애주(무용가 · 서울대 교수)
■ 제8회(2004년)
평화상 만델라(전 남아공대통령 · 노벨평화상 수상자)
문학상 황석영(소설가) 학술상 데이비드 맥캔(하버드대 한국학 교수)
예술상 임권택(영화감독)
실천상 법타 스님(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회장)
■ 제9회(2005년)
평화상 달라이 라마(티베트 망명정부 수반 · 노벨평화상 수상자)
문학상 윌레 소잉카(아프리카나이지리아시인 ·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학술상 지관 스님(前 동국대 총장 · 가산불교연구원장)
실천상 함세웅(신부 · 정의구현사제단)
■ 제10회(2006년)
포교부문 남바린 엥흐바야르(몽골공화국 대통령)
학술부문 권영민(서울대 교수)
문학부문 로버트 핀스키(미국 계관시인)
문학부문 황동규(시인 · 서울대 명예교수)
평화부문 김지하(시인) 실천부문 박원순(변호사)
■ 제11회(2007년)
평화부문 온딤바(가봉공화국 대통령)
문학부문 김남조(시인 · 숙명여대 명예교수)
학술부문 유종호(평론가 · 연세대 석좌교수)
포교부문 루이스 랭카스터(前 버클리대 교수)
실천부문 비쉬누 니스트리 회장과 네팔기자연맹(PNJ)
특별부문 서인혁(국술원 총재)

2008 만해대상 수상자들

2008 만해축전의 만해대상 수상자는 평화부문 로카미트라(인권운동가 · 인도 잠부드비파회 회장), 문학부문 이어령(문학평론가), 학술부문 김태길(학술원 원장), 포교부문 혜자 스님(도선사 주지), 포교부문 로버트 버스웰(UCLA대 교수) 등 5명이다. 해당분야에서 업적과 권위를 인정 받고 있는 5명의 수상자들은 8월 12일 오후 5시 만해마을에서 상을 받는다. 수상자들의 업적과 경력을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발간하는 <유심>제33호(2008년 여름호)에서 발췌했다. <편집자 주>

■ 포교부문 혜자 스님

사찰순례로 새로운 신행문화 이끌어



'108산사 순례 법회'의 주역 혜자 스님(도선사 주지)은 불교계에 신행문화의 변화를 사찰 순례 법회의 새로운 전형을 마련했다. 6000명이 넘는 불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108산사 순례 법회'는 그 규모 면에서 뿐 아니라 기도와 정진의 가치를 새롭게 일깨웠다는 점에서 새로운 신행 패턴을 정착 시켰다는 평이다.

'108산사 순례 법회'는 지역 군부대 위문, 지역 농산물직거래 장터 개설, 각종 봉사활동 등을 함께 펼치며 폭넓은 복전을 일구고 있는 것이다. "남을 위해 살면 보살이요 자신을 위해 살면 중생"이라며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는 혜자 스님은 교육복지 문화 포교 등 다양한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실천하고 있다. 은사인 청담 스님의 교육불사를 30년 만에 되살려 불교교양대학인 실달학원을 재설립, 3000여명이 수강했다. 도선사 산하의 종립학교인 청담학원 이사장으로서의 행보도 첨단 시대에 맞춰 청담고등학교를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로 바꿔 시대를 앞서는 교육을 꾀하고 있다. 혜자 스님은 군포교와 복지 포교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이며 관련 시설 확충에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특히 해외 복지 사업을 통한 한국불교의 세계화 불사도 적지 않은 성과를 내며 추진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라지보 사원과 자매 결연을 맺고 전산원을 설립해 주었으며 3명의 스님을 초청해 동국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국 법문사와도 자매결연을 통해 교류하고 있으며 네팔에 불교학교인 '선혜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 포교부문 로버트 버스웰 교수

한국불교학 세계화 견인차



송광사로 출가하여 구산 스님의 지도 아래 선승으로 살다가 환속한 푸른 눈의 학자. 로버트 버스웰 교수(UCLA, 중국불교학)는 한국과 남다른 인연을 가진 세계적 석학이다. 지난해 그의 스승인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가 만해대상 포교부문상을 받은데 이어 올해는 그가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버스웰 교수는 현재 회원 7000여명의 동양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버스웰 교수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산타바바라캠퍼스에서 동양학을 2년간 공부했다. 이후 7년간 태국에서 상좌부불교를, 홍콩에서 선불교를 체험한 뒤 한국의 송광사에서 선승의 삶을 살았다. 다시 환속하여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버클리캠퍼스에서 중국학을 전공하여 '지눌의 통불교 사상:<원돈성불론>의 주석적 번역'이란 논문으로 수석졸업 했다. UC버클리 대학원에서 산스크리트를 전공했으며 이 때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의 지도로 불교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논문은 '<금강삼매경>의 한국 기원: 어느 불교 위경의 저술 시기, 저술 장소, 저자 문제 결정을 위한 사례연구'였다.

<한국선 수증론:지눌전서> <중국과 한국에서의 선사상 형성> 등 저서와 <원불교 정전> <보각수행:금강삼매경론> 등의 역서, <중국불교 위경> <깨달음에의 길> 등 편찬서 등 세계학계의 주목을 받은 저술활동과 지역을 초월한 강연활동 등은 그를 세계적인 학자로, 불교의 전법사로 우뚝 세우고 있다.

■ 평화부문 로카미트라

카스트 완전철폐 운동주도



로카미트라 법사는 30여 년 동안 인도사회의 하위 카스트인 불가촉천민을 대상으로 인권운동을 해 왔다. 1947년 런던에서 태어난 그는 현재 인도에서 범세계불교교단우의회 회장을 맡아 불가촉천민의 신분해방과 불교개종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또 잠부드비파라는 자선 단체를 통해 불법을 전파하며 불가촉천민들의 재활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그의 최종적인 목표는 인도사회의 오랜 관습인 카스트제도의 완전철폐다.

■ 문학부문 이어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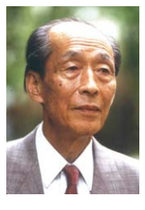
현대문학비평의 '준령'



그의 저작은 100여 권에 이른다. 그의 저작이 문학비평을 본령으로 하지만, 한민족의 삶의 근간에 깔린 애환을 말하고 포괄적인 휴머니즘의 실현을 천착하기도 했다. 그의 문학비평 의식은 우리 현대문학사의 한 준령으로 자리하고 있는만큼 우리 문학의 방법과 실천을 문화의 범주 안에서 새로이 이해할 때다. 그는 '문화적 시학'이라는 명제로 문학과 문화의 소통에 새로운 코드를 대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학술부문 김태길

실천철학 길 열기에 열정보여



1920년에 충북 청주에서 출생한 우송(友松) 김태길 박사. 1920년대 파종된 현대철학의 현장을 가꾸고 지금도 학술원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현역의 자리에 서 있다. 철학연구회를 창립해 초대회장을 지낸 김태길 박사는 <윤리학> <한국윤리의 재정립> <빛이 그리운 생각들> 등 다수의 저작을 내 놓았다. 사고의 반경이 남달리 넓은 김태길 선생은 에세이 쓰기와 실천운동을 통한 실천철학의 길 열기에도 열정을 보였다.

'유심작품상' 수상자

■ 제1회(2003년)
시부문 이상국 시조부문 홍성란 평론부문 이남호
■ 제2회(2004년)
시부문 정끝별 시조부문고정국 평론부문 방민호
■ 제3회(2005년)
시부문 문태준 시조부문 이지엽 평론부문 유성호
■ 제4회(2006년)
시부문 이은봉 시조부문 오승철 평론부문 권혁웅
■ 제5회(2007년)
특별상 정완영 시부문 서정춘, 이 경
시조부문 이근배 평론부문 이상옥
■ 제6회(2008년)
특별상 고 은 시부문 이가림
시조부문 유자효 평론부문 김종회

'유심신인문학상' 수상자

■ 2002년 시부문 효림
■ 2003년 시부문 김남극 시조부문 이승현
■ 2004년 시부문 임연태
■ 2005년
시부문 차창호 시조부문 김경태 평론부문 신진숙
■ 2006년
시부문 박미산 시부문 권준영 시조부문 윤경희
■ 2007년 시부문 배재형 시조부문 김혜진
■ 2008년 시부문 홍종화 시조부문 김해인

'유심시조백일장' 당선자

■ 2006겨울(유심 27호)
김선화(장원) 김용회(차상) 권영희(차하)
■ 2007 봄(유심 28호)
김 경(장원꽃) 문부자(차상빛) 강현남(차하)
■ 2007 여름(유심 29호)
박미자(장원) 조만기(차상) 정규철(차하)
■ 2007 가을(유심 30호)
이 노(장원) 이우식(차상)
■ 2007 겨울(유심 31호)
권영희(장원) 박신산(차상) 김대경(차하)
■ 2008 봄(유심 32호)
김용회(장원) 박신산(차상) 마하연(차하)
■ 2008 여름(유심 33호)
김인후(장원) 박영학(차상) 지현묵(차하)

참선자 올바른 길 인도위한 수단

오늘의 禪語

㉘ 할(喝)

선승들은 제자들로부터 "무엇이 부처(진리)입니까?" 또는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하고 질문을 받으면 간혹 이론적인 대답 대신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할(喝)' 하고 소리를 내지릅니다. 무슨 뜻일까?

'할'은 큰 소리로 고함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거나 또는 알음알이나 분별심을 꾸짖는 행위로서 참선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교육용 수단입니다. 따라서 음성 그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할'이라고 표기하지만 원래 발음은 '갈'로서 그냥 호통치는 소리를 가리킵니다. '망상 피우지 말라' '알음알이를 내지 말라'는 의미이므로 '악' '억' '꽥'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말에 '한 번 큰 소리로 꾸짖다'는 의미로 '일갈(一喝)'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의상으로는 같습니다.

선문답에서 '할'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대체로 화두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때론 제자가 잘못 수행하고 있음을 질타하고자 할 때, 알음알이 등 분별심을 갖지 말라고 할 때 사용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칭찬하는 의미의 '할'도 있고,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의미의 '할'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할'인지 그것은 앞뒤 문장과 분위기를 보고 파악해야 합니다.

수행승에게 '할'을 사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게 했던 분은 중국의 유명한 선승 임제의현(臨濟義玄, ?~867)입니다. '임제할'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자유 자재하게 '할'을 사용했던 그는 덕산 선사의 '방(棒)'과 함께 기봉(機鋒, 선의 액션)으로서는 쌍벽을 이루었던 선승입니다. 그의 법어집 <임제록>의 한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할'에 번호 (1) (2)를 붙여서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上堂. 有僧出禮拜. 師便喝(1). 僧云, 老和尙莫探頭好. 師云, 爾道落在什麽處. 僧便喝(2). 又有僧問, 如何是佛法大意. 師便喝(3). 僧禮拜. 師云, 爾道好喝也無. 僧云, 草賊大敗. 師云, 過在什麽處. 僧云, 再犯不容. 師便喝(4).

임제 선사가 법문을 하기 위하여 설법당으로 올라가자 어떤 스님이 나와서 합장했다. 임제 선사가 곧바로 '할'(1)을 하자 그 스님이 말했다. "(임제)노화상께서는 '할'로 사람을 탐색하지 마십시오." 임제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내가 '할'을 한 이유를 아는가?" 그 스님이 곧바로 '할'(2)을 했다.

또 어떤 스님이 질문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大意)입니까?" 임제 선사가 곧바로 '할'(3)했다. 그 스님이 합장하니 임제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나의 이 할(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스님이 말했다. "산적(제가)이 크게 패배했습니다." 임제 선사가 말했다. "허물(잘못)이 어느 곳에 있느냐?" 그 스님이 "두 번 다시 과오를 범하지 않습니다"고 말하자 임제 선사가 곧바로 '할'(4)했다.

앞의 선문답에서 (1) (2) (3) (4)로 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할'은 모두 네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할'의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1)번 할은 번역문과 같이 합장 즉 인사(안녕하시온지)에 대한 표시입니다. '나는 별 일 없는데 그대도 잘 있는가?' 정도가 되겠지요. 물론 더 깊이 해석한다면 합장 속에는 "노화상은 여전히 본래면목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2)번 할은 반대로 그 스님이 임제 선사에게 던진 할입니다. 임제 스님이 "그대는 내가 '할'을 한 이유를 알고 있는가?"하고 물은 데 대한 대답입니다. 물론 알고 있다는 뜻의 '할'입니다. (3)번 할은 또 다른 어떤 스님이 임제 선사에게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大意)입니까?" 하고 묻자 '할' 했는데, 여기서 '할'은 "바로 이 할이 그대가 묻고 있는 불법의 대의(大意)일세"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두, 선의 진리를 표출하고 있는 할입니다. (4)번 할은 "큰스님께서 할을 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데 대한 답변으로서의 '할'입니다. 말하자면 과오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다니 다행이라는 뜻의 '할'입니다.

'할' 처음 사용한 사람은 마조 선사
제자와 선문답 중 '할' 외치자 깨달아

이와 같이 '할'에도 '긍정적인 할'과 '부정적인 할', '대답하는 할' '질타하는 할'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망상을 꾸짖을 때, 사량 분별심을 갖지 말라고 질책할 때 그리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선의 이치를 표현할 때 등, '할'의 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할'은 임제 선사가 많이 썼지만 처음 사용한 사람은 마조 선사입니다. 제자인 백장 스님과 선문답을 할 때 처음으로 '할' 하고 큰 소리를 내질렀는데, 그 소리에 백장이 3일 동안 귀가 멀었다고 합니다. 귀가 멀었다는 것은 충격이 컸다는 것으로 결국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할'의 소리에 번뇌 망상이 끊어졌다는 뜻인데 3일 동안 귀가 멀었다고 하니 중국 사람들의 뻥도 어지간합니다.

'할'은 상대가 미워서 소리 지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투는 거칠어도 마음속으로는 훌륭한 수행자가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덕산의 '방'도 같은 의미입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손가락 하나 세우니 만법이 서다

㉘ 실제 비구니

구지 선사 발심 시켜 깨달음에 이끈 선지식으로 알려져
한 손가락으로 일체 번뇌·망상 잠재운 구지선사와 같은 체험

당나라 때,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 선사의 법을 계승한 제자 중에 실제(實際)라는 비구니 스님이 있었다. 이 스님은 '일지선(一指禪)'이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떨친 구지 선사를 발심시켜 깨달음에 이르도록 이끈 선지식으로 어록에 등장한다. 〈조당집〉 '구지화상전'에는 두 선사의 기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구지 화상은 천룡(天龍) 선사의 법을 이었고 경안주(敬安州)에 살았다. 그 밖의 행적은 알 수가 없어 기록하지 못한다. 선사가 암자에 살고 있을 때에 실제(實際)라는 비구니가 와서 삿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은 채 선사의 선상을 세 바퀴 돌고는 주장자를 우뚝 선사 앞에 세우고 서서 말했다.

'화상이여! 어떤가. 한 마디 이를 수가 있는가? 만약 한 마디 이를 수 있다면 삿갓을 벗지 않겠소.'

똑 같은 말을 우렁차게 세 번이나 거듭했지만 선사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비구니는 그냥 떠나려고 했다. 이에 선사는 말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하루 저녁 묵어가도록 하시오.'

이에 비구니는 '제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묵어 가겠지만, 대답을 못하시면 이대로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떠나 가버렸다.

이때 선사는 혼자 탄식했다.

'나는 명색이 사문이라고 하면서 비구니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외람되이 장부의 형상은 갖추었으나 장부의 작용이 없구나! 이 산을 떠나 선지식을 두루 친견하리라.'

그리고 조용히 선정에 드니 갑자기 어떤 신인(神人)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3·5일 안에 큰 보살이 오셔서 화상께 설법해 드릴 것이오.'

그런지 열흘이 지나지 않아 천룡 화상이 왔거늘 선사는 뛰어나가 말에 절을 하고 맞아들여 모시고 서서 앞에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러자 천룡 화상이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이니, 즉시에 환히 불법을 깨달았다.

선사는 그 뒤로 대중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내가 천룡 화상에게 일지선(一指禪)을 얻은 뒤로 평생 동안 사용해도 다 사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여 구지 선사는 마조도일 선사의 제자 대매법상(大梅法常: 752~839)의 법을 잇는 천룡 화상의 제자가 되었다. 그후 선사는 수행자들이 찾아와서 불법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할지라도 단지 한 손가락만을 세울 뿐, 한 마디도 이르지 않았다. 그의 선을 '한 손가락(一指頭)의 선(禪)'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행자들의 온갖 질문에 손가락 하나로 같은 대답을 하고, 이러 저러한 학인들의 온갖 분별의식을 한 손가락으로 잠재운 구지 선사의 법력은 실제 스님의 지도에 의해 비롯된 것이었음은 말 할 나위가 없다. 이처럼 탁마 과정에서 비구, 비구니, 거사, 노파라고 하는 남녀와 승속의 차별은 무의미한 것이었다.

위 문답에서 실제 스님이 선상을 세 바퀴 돌고 주장자를 우뚝 세운 것이나, 천룡 스님과 구지 선사가 한 손가락을 세운 것이나, 앙산 선사가 한 획을 그은 것이나, 무수한 선사들이 주먹이나 먼지떨이(拂子)를 세우거나, 고함을 지른 일들이 같은 가, 다른가. 이것을 모양과 언어로 이해한다면 차별 경계에 떨어지겠지만, 형상과 고정관념을 여의고 본다면 둘이 아닐 것이다.

선종에서 '하나(一)'는 불법의 근본인 진실, 진여당체, 본래면목을 표현하는 불립문자의 경지를 상징한다. 또 '둘(二)'은 언어로서 진리를 체득하는 대기설법에 해당한다. 때문에 하나를 알면 일체를 알게 되기에, 구지 스님이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인 뜻을 깨달으면 삼라만상의 이치를 요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 '하나'를 깨달은 의상 대사는 '법성게(法性偈)'에서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다. "법의 성품 원융하여 두 모양이 본래 없고/ 모든 법이 동(動)함 없어 본래부터 고요해라/ 이름 없고 형상 없고 온갖 것이 다 없으니/ 깨달아서 알뿐 다른 방법으론 모르리라/ 참된 성품 깊고 깊어 지극히 미묘하여/ 자성만을 지키지 않고 인연따라 나타나네/ 하나 속에 모두 있고 일체 속에 하나 있어/ 하나가 곧 모두이고 모두가 곧 하나이니…."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백담사 '행복한 나를 찾아서'**=인제 백담사가 '행복한 나를 찾아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도량석 탐돌이를 시작으로 사물체험, 예불, 108배, 설악산 숲해설, 자비명상, 돌탑쌓기 페스티벌, 만다라 명상, 위빠사나 수행, 꿈의 요가, 걷기명상, 발우공양, 행복소원양초만들기, 차훈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1차는 7월 31일~8월 2일, 2차는 7~10일 열린다. 동참금은 11만원 (033)462-5565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10주년 축제마당'**=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10주년을 기념하고자 인드라망 10주년 축제마당 '지리산 야단법석'을 개최한다. 7월 31일~8월 3일 작은학교, 실상사 농장 등에서 벌어질 '지리산 야단법석'에는 숲길걷기, 명상, 물놀이, 도법스님 법문, 화엄광장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신청마감은 7월 25일까지. (02)576-1886

●**석왕사 방생법회**=부천 석왕사가 8월 16일 방생법회를 떠난다. 가연마을, 용문사, 사나사를 둘러보고 오게 될 이번 방생법회의 동참금은 3만원이다. (032)663-7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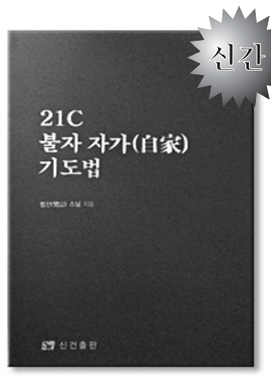
●**미황사 '참사람의 향기'**=해남 미황사 '참사람의 향기' 참선수행템플스테이가 8월 16~24일 8박9일간 열린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기존 참가자를 대상으로 심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수행내용은 매일 6시간의 참선수행, 묵언, 오후불식, 수행문답, 수행체계 법문, 다도 등이다. (061)533-3521

●**대원불교대학 후학기 신입생 모집**=대원불교대학 서울(02-707-1072)·부산(051-583-7811)에서 2년제 대학 불교학과, 명상학과, 불교상담치료학과, 2년제 대학원 불교학과,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3년제 법사과정 9월 1일까지 모집한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옷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신간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 (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입종안내
대한선불 조계종
총무원장 영곡 효주
종회의장 법달 원정
교육원장 효타 원공
사정원장 무착 효산
호법국장 무타 대한
각 지역구 종무원장 입종을 환영합니다
대한선불 조계종은 선을 생활화하는 종단으로써 불기 2552년 5월 17일 창종 하였습니다.
대승적 불교를 지향하며 이 땅에 불국토 건설을 함께하실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 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24-4번지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010-7121-9406
■ 총무원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53-1번지 무진암
전화 054)744-0181 / 010-3178-1223

탈종·폐사 공고
● 사 찰 명 : 법륜사
● 법 명 : 도 선
● 지역교구 : 청주 교구원
● 폐 사 일 : 2003년 4월 30일
● 주 소 : 충북 청주시 사직 1동 282
상기 교구의 사찰 및 사원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사 되었으며 또한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늦게나마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해동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생활정보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 류 대 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원인없이 아프신분 영험
궁금증 즉시 해결
수국사 원성 합장
02)2603-2992
011-340-5963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역학을 물상으로 실제 감정 위주로 배워 영가 빼내어 천도재 지낼 수 있음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 전생요법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 속성과정 (출장지도)
4.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대한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영산재 제9호 작법무 교육도량
●학인수시모집 : 범음,범패, 바라,나비춤
●사찰행사 : 49재,천도재, 점안식,구병시식
010-3928-0006
무량사 무상 합장

스님 되시렵니까?
45세 이하 결심 된분
전화 주십시오
02)584-8844
011-354-8484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2)939-3327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보 살 선 방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방1, 주방, 욕실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초혼 · 재혼 · 국내 · 국제
대졸 초 · 재혼,신원확실
직장인,공무원,사업가
국제,필리핀,베트남,한족
재혼 70세까지 전화상담환영
02)312-5004
017-766-6888

자 격 취 득 안 내
◇포교사 분야 : 상담포교사,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불음법회포교사,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국악연주포교사,장묘관리포교사
◇법사분야 : 상담법사,교법사,상담지도법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국악지도법사
◇대법사분야 : 교학사,종학사,종사,대사,선사,율사
(법인등기 제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역학 · 건강 · 비법전수
한글만 알면 한달이내
역학비법통달
난치병 근본치유 · 예방,
심신무병 건강비법 전수
052)264-8183
011-855-8180
신불정사 무구 합장

역학비밀 출장 개인지도
초보자도 30일이면
사주를 통달할 수 있는
옛스님들의 비법을
시원히 전수해 드림
(비구, 비구니, 일반인)
010-5668-5775

도심속의 통영사
(희망을 열어가는 젊은 부처들)
산사 음악회, 대중행사 전문
포교도량 (무료봉사)
◇서울본사: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역8번 출구앞
◇강원지사: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고속터미널옆
선화법사 합장
02)3426-1357
010-8726-1357

미국(L.A.)에서
수행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외국비자 있는
스님에 한함
042)282-9270

가족처럼 함께 할
공양주 보살님을
찾습니다
▷서울 우이동
02)990-1725

충남 천안시 광덕면 신덕리
12번지 천안공원 앞
천안사 봉안당(납골당)
동참하실분 모집
041)568-4610
010-5777-479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60세사이)
사무실, 종무실
경리(女)도 모십니다
유경험자에 한함(숙식가능자)
052)298-9911

평생도반. 물좋고 경치좋은
산사에서 남은 여생
마음편히 살아가실
비구니스님,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약간)
018-406-307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2)254-6144
011-9660-4241

조용한 암자에서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과
처사님을 모십니다
(1종 면허 소지자)
055)863-4143
011-392-6885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묵조선 명상선원
종무소 02)464-830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용인소재 사찰
011-270-2675
031)335-2576

비구스님 2분
총무 (PC가능자,
숙식가능한 여자분)
화주보살(女)모십니다
010-4540-3344

스님이 되고자 합니다
(철학관 30년운영)
법사 10년
명리학의 대가
(부산,울산,양산근교 희망)
011-9344-2048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지역
(월보시금 100만원)
052)227-0827
052)275-082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527-063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경주지역
054)748-3530

기도스님 모십니다
(조계종 비구스님)
천년고찰
010-5019-6619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맹리)
▷수정사
031)333-5014

어르신을
모십니다
(편리한 교통,수려한 자연환경)
031)333-5014

덕망 높으신 비구니스님
50-60세 법랍 20년
인연을 찾고있습니다
(법당, 스님방, 스님접견실,
요사채, 황토방겸 약사사)
016-466-2470

수 중 촛 대
2008년 9.5 ~ 9.8
한국불교 박람회 출품 예정

특 징
1.물속에서 양초가 타므로 화재위험이 없습니다.
2.촛불이 50시간-56시간 타므로 초 절약 됩니다.
3.촛농과 그름이 없고 공기정화 및 가습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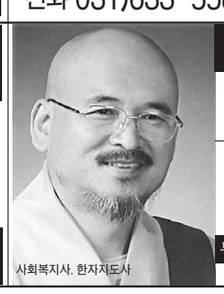
만 행 화 011-9000-5715 / 02)733-5715

고급 만다라 액자 특별 분양 안내
분양가 5만원 (가로×세로 48cm×두께 5cm)
▷만다라의 특징 - 대표적인 불교의 상징이며 우주공간의 축소된 그림이다. 각 가정에 1점씩 걸어두면 뒤숭숭한 꿈자리가 없어지고 수맥이 차단되며 점포에 걸어두면 영업이 활성화 된다. 만능 부적과 같다.
●조성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새절 봉선사
전화 031)633-5587 / 공급원 016-261-2068

행자 (예비스님) 모십니다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연령 : 48세 이하
●1인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 시설!!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져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 축원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www. TVbuddha.co.kr

역 학 공 부
※ 공개강의 : 건강과 부동산 풍수인테리어
•7월 17일(18시 30분 부터 ~ 2시간, 참가비 1만원, 선착순 20명)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 : 초중급(월요일) 18:30 개강
•관상 · 풍수 : 7월 24일(목요일) 개강
•인터넷 동영상 강의 : 사주+궁합+택일+작명(초급부터 완성까지)=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강좌내용 : 28숙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중국 소림 삼삼구 기공 지부장 전수자 모집
◇ 스님,법사님의 포교 방편최고 ◇
■最高의 神通氣功 名師
1.빙의(퇴마치유,귀신을 잡아 보여줌
2.환상을 보게 하고, 온.냉의 기를 발생
3.기를 쏘아 부활으로 사월
4.맨손의 기로 신문지에 불을 붙임
신통기공사 중국정부 추인 자
■웰빙 최고의 건강비법
1.스트레스 해소,각종 질병이 치유된다
2.기억력 상생,화생 성적 증진
3.성격이 바뀌고 비만이 치유
※일반 기본전수 3개월,속성전수 2개월
법회 100명이상 동참시 시범을 보여드림
사단법인 : 대한선행불교 조계종 총무원 ＊사찰 입종 환영
부설: 삼삼구 불기공 총연합본부(5호선 명일역 3번출구 인근)
전화 02)426-4774, 011-9092-0533 / 팩스 02)426-5585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 도 건 축 대표 강충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 202호

탈 종 공 고
●사찰명 : 약사암
●법 명 : 홍 재(김수한)
●주 소 : 경북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1216번지
상기사찰 및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3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한국불교여래종
입 종 안 내
사찰등록 및 여래종에 입종하여 여래의 사도(스승)로서 포교 및 전도를 함께할 종도 · 문도를 환영합니다.
◆사찰등록 및 입종 준비서류
1.주민등록등본
2.사진(여권용)4매
3.사찰전경 및 법당내부 촬영사진 각1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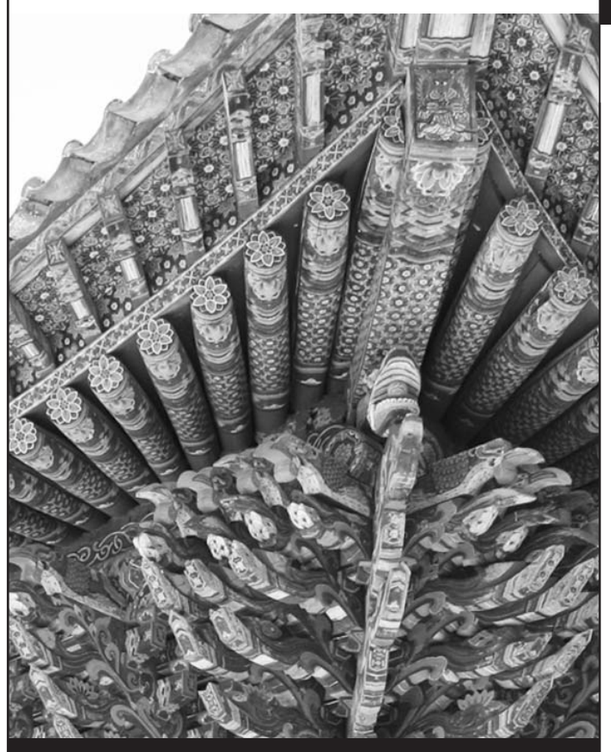
행자(남,여) 모집
불교교학 연구및 수행을 통하여 포교및 전도의 뜻을 둔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전화 043)731-2261 / 043)731-6454
팩스 043)731-6453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건너)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수강생 모집」
1. 개인 지도 수갱생 모집
2달 완성 (수강료 300만원)
단, 명리나 오행에 기초를 익히신분에 한하여 가능함
2. 기초 수강생 수시모집 (수강료 100만원)
●7월 개강) 목요반 4시 - 6시 30분
●7월 개강) 토요반 10시 - 12시 30분
고급반 육임을 하신분들에 한해서...
신 간 안 내
최고에 오행술인 육임을 보다 쉽고 빠르게 공부 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각 점단마다 국수를 부쳐 설명하였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온 목적사를 말할수 있는 내정 비법인 시간법이 들어 있습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 가능 (전화로도 가능)
■상담문의 : 02)793-7333 (전화 상담도 가능)
■홈페이지 : www.saju79.com(강의 홈페이지)
www.unsemaru.com(운세상담 홈페이지)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예금주 : 박옥자)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011-498-5067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기도도량(의령)
● 대지 1000평
● 건물 목조법당 30평+
10평+15평(3동)
요사 30평(공양간) 주차장 200평
● 산좋고 물좋고(계곡접)
전망좋은 기도도량 최고
● 양도가 : 2억8천만원

● 위치 : 양산(마당 넓은 절)
● 부지 500평 법당 30평
● 요사채 40평+20평 산신각 5평(목조)
● 5층탑 뒷산 아름다운 절
버스진입 가능, 주차장 완비
양명현 탁트인 전망
● 가격8억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대형사찰 및 임법당 · 포교원 · 사찰부지 다량확보
1억에서 부터 세무상담 및 소유권이전
대행 무료상담 서비스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종로구
● 법당 : 28평
● 요사 : 38평
● 부지 : 170평
● 가액 : 10억

● 위치 : 제주도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3억

● 위치 : 양평지역
● 법당 : 20평
● 요사 : 70평
● 부지 : 330평
● 가액 : 1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함평군 대동면
● 대지 391평(사용가능 땅 600평)
대웅전 : 35평
요사채 방5개,부대시설 일절
● 영광불갑사까지 이어지는 산세
● 2억2천만원(절충가능)
010-6654-1600

사찰(급)안내

● 위치 : 밀양군 무안면 운정리
노리실 석불암
● 대지450평, 법당50평, 요사채20평
055)356-5322
051)254-3016
016-832-5114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감만동
버스종점앞(위치좋음)
● 건평 23평(시설 최고급)
● 아미타불/지장보살/관음보살
● 보증금 1천만원 /
월 20만원(절충가능)
시설비 1천만원(절충가능)
051)638-11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개진면
● 대지 120평
● 법당 15평 삼존불, 요사채
● 50년된 사찰로 국도변
5분거리 교통편리
● 가액 : 6천만원
010-2630-0192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화왕산 주령
상교산 명산 사찰터
● 평수 : 임야 관리지역 12,792평
임야 농림지역 31,337평
총 44,129평
● 가액 : 4억6천(급)
017-570-1600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 평수 : 35평 3층건물중2층
법당,방2,부엌,거실(총4칸)
단청시설되어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후 절충가능
011-847-5150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http://blog.naver.com/mine4you
010-6304-5998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 방2, 상담실, 주방, 최고급 시설
● 금 부처님, 목불 좌대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1-9725-3196
011-9108-5589

포교당 안내

● 위치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 법당 10평, 방1개, 부엌1
● 시설 A급, 위치 좋음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500만원/월 32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195-3254

포교원 안내

● 위치 : 원주시 문막읍
버스정류장 신호등사거리앞
● 2층 약 30평
● 삼존불, 각 탱화, 집기,
생활도구일체
● 교통편리, 유동인구 많음
즉시법회가능
● 운명 감정하시는 스님,
법사, 보살님 환영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7-274-082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15분거리
● 대지 120평. 1층 요사채,
2층 슬라브 법당 24평
● 절도 기와집, 요사채 1동,
산신각 1채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8천 5백만원
010-6288-9777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남근처
(석촌역, 송파역 2~3분 거리)
● 4층 건물중 2층, 평수 약70평
(법당 25평, 방4, 공양간)
● 삼존불, 후불탱화, 각단탱화
에어컨 3대, 연등 600등
실내 화장실, 샤워장
● 보증금 5천만원, 월20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주지스님 건강관계로 급 안내함
010-7101-0858

사 찰 양 도

● 위치 : 강원도 지정면 문막
나들목에서 10분거리
개발지역, 옛날 한옥 두채(2동)
● 부처님, 삼존불 모셔져있음
용왕, 산신 구비
● 평수 2만평, 분할가능, 진입도로 연결
● 스님 요사채 1동
공양간 20평, 대형방 약20평
대중처소 1동(방9개)
● 가액 14억원(절충가능)
(분할매매가능)
010-7101-0858
033)732-7919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전 중구 대흥동
● 건평: 60평(실평수)
방2,공양간,화장실,법당 약30평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 즉시법회가능
※ 포교당 위치 최고 아파트 단지
정문앞 대도로변 2층
042)252-2034
016-422-3232

암 자 안 내

● 위치: 경기 안성시 죽산면
● 대지 160평
● 1층 적조슬라브, 요사채 겸
살림집 30평
2층 조립식 법당 25평
삼존불 영가단 후불탱화 일절
● 가액 : 1억 5천 5백만원
(은행융자 2천 2백만원 포함)
● 비구니스님에게 적합
010-9484-7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 IC부근
● 대지 220평
● 건물 1층 요사채 47평
2층 법당 23평
● 산신당4평, 차고 15평,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 5억
011-9114-9935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 내
● 평수 : 32평. 상가 2층
● 법당, 삼존불, 탱화 등
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500만원/월세 30만
시설비 500만원
051)759-4684
010-9208-2644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음성시내 중심가
● 건물 : 방 3개 30평
● 대지 100여평, 실사용 150평
● 임법당 - 법사, 역학
비구니스님, 만심보살님 환영
● 가액 : 9천 7백만원
● 정원에 각종 유실수 많음
010-8828-300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80평(슬라브 건물)
2층 47평(법당),1층 47평(요사채)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 10,
법당 시설완벽
석축 조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8천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사찰안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 대지 :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3억 3천만원
011-9928-0005
061)544-048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충북 충북대학교
1km지점 ● 평수 : 33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25만원
(꼭 필요한분에 한하여
시설비 1천만원)
● 역학하시는 분 적합
법회 즉시 가능
010-2877-7746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 5층 건물 3층 약 30평
● 보증금 1,300만원 /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즉시법회 가능
011-288-0660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광안 2동
해수욕장 3분거리
● 건평 : 반지하 56평(시설최고)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가족 상담, 최고 위치
● 보증금 1천만원 / 월 3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1-926-90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종각,
요사채 40평
총 880평(대지 380평)
● 가액 : 4억5천만원(시설비 포함)
전세도 가능
010-3112-3513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도 시흥시 이마트 부근
● 평수 : 25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전세 3500만원
시설비 일체 없음
● 법당 시설완비, 즉시법회 가능
02)887-2138
010-9940-9779

사찰(급)분할, 인수할분

● 위치 : 경북 고령군 국도변
대구에서 30여분거리
● 대지 약 600평, 건평 약 80평
법당 25평
● 삼존불 방7개,대형주차장 완비
● 노인요양시설신청,
추모사리불안치도 준비중
● 계약후 불사 협찬으로 장기
분할지불도가능한 좋은 조건임
● 양도가 : 융자 9700만원 포함
(찬조1억 양도인)2억6천만원
총액 4억 6천만원
053)471-3123
017-501-2315

포교원 안내

● 위치: 울산시 공업로터리 주변
8차선 도로 건물
울산공원,등산로 입구
● 2층 건물 전체 25평
● 방, 부엌, 종무실, 법당
화장실 완비
● 전세 5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일부 보시금 하실분
전화 주십시요
018-528-1234 정토암 주지

사찰안내

● 위치 : 원주 서곡리
● 대지120평
1층 요사채 50평
2층 법당 30평
● 양도가 : 6억 (절충가능)
은행융자 1억8천
<원주신도시 근접>
● 비구니 스님 도량
연락처010-9292-4828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신기
● 대지 : 약 200평
● 법당 산신각 목재로된
문화재급
● 요사채(약 30평) 방4개
● 물이 의서에 있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
● 가액 : 상담후결정
011-346-559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기장 대변
바닷가 근처
● 평수 50평
● 법당 방4 시설완벽
즉시법회가능
● 가액 : 3천만원(시설비포함)
051)723-1851
010-4137-541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화곡사거리
까치산역 부근. 대로변
● 평수 : 12평. 주거편리
(법당1, 주방 거실 1)
● 보증금 3,000만원에
월 30만원
시설비 160만원,
● 포교원, 역학원에 적합
010-4436-3575

절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매전면
● 총평수 1706평
● 주변 산세가 수려하고
지세가 아주 좋아
명당절터자리임
● 가액은 2억
(답사후 절충가능)
011-9324-4732

사 찰 중 개

● 위치 : 서울, 종로
● 부지 : 1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 전국 사찰 암자
급히 양도하실분이나
구입하실분
전화주세요.
만족을 드립니다.
성불하세요.

전 국 사 찰 암 자 포 교 당 부 전 스 님 공 양 주 소 개 합 니 다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평수 : 50평(5층)
● 법당, 방2, 사무실, 욕실, 주방,
시설완벽
● 보증금 및 시설비 5천5백만원
017-232-338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사동(국악문화회관 후문 건너편)
● 평수 : 90평(7층 건물중 7층 전체사용)
● 법당 : 40평(미타삼존불, 원불 200불, 인등 600개, 신중단, 영단, 연등)
● 주지실, 사무실, 상담실, 주방겸 공양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완비
● 보증금 4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5천만원(최상급, 절충가)
스님 급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
042)252-5450/055)944-5450
011-649-0108

사찰(터)안내

● 위치: 양산시 하북면 백복리
● 평수 : 700평
● 통도사 내원사에서 10분거리
● 가액 : 평당 50만원(절충가능)
011-558-6130
055)867-161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김포시
● 3층건물의 3층(실평수 48평)
● 주인이 불자, 법당원목 불단, 후불탱화,
신중탱화, 감로탱화
● 방2, 종무소, 주방, 욕실,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3십만원
(보증금과 월세조정 가능)
시설비 저렴
※ 스님 수술로 기급히 양도함
연락처 011-763-1080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5199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47 머위 깻잎무침

연(蓮)은 중국을 원산으로 수련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해마다 9~10월경이면 타원형 열매가 까맣게 익는다. 큰 잎은 원형으로 뿌리줄기에서 나오고 자루는 잎 뒷면 중앙부에 달린다. 가시 같은 돌기가 꽃잎과 더불어 수면 위로 펼쳐진다.

연근(蓮根)은 열을 내리고 마음을 안정시켜 신경과민 · 스트레스 · 우울증에 도움을 준다. 무기질 · 비타민C · 리놀레산 · 식이섬유 등이 뼈 생성과 배설을 촉진시켜 피부건강을 유지시키며, 풍부한 섬유질은 소화기능을 도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폐병 · 빈혈 · 하혈 · 각기(脚氣) · 출혈성 위궤양 · 위염에 효과적으로 체내 독소를 빼고 흡연자의 니코틴(담배의 독)을 제거하는 해독작용도 한다.

껍질에 흠집 없고 양쪽 마디 있어야 신선

빈혈예방·소화기능 강화·노화방지 효과

연잎을 차로 마시면 빈혈 예방에 좋다. 연잎차에는 간 해독을 촉진시키는 단백질 · 지질 · 당질 함량이 높다. 연뿌리는 지혈 효과도 뛰어나다. 즐겨 혈시 연뿌리를 찧어 바르거나 마시면 좋다. 칼에 베였을 때, 피가 나거나 코피가 날 때 연근즙을 탈지면에 적셔 막으면 지혈 작용을 한다. 연근은 천연 항산화제로 노화 방지와 불임 예방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E · 철분 함량 수치가 높다. 연근을 보관할때는 깨끗이 씻어 신문지에 물을 조금 적신 후 잘 두르고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는다. 이때 남은 것은 물에 담가 냉장고에 넣고 매일 물을 갈아준다.

싱싱한 연근은 양쪽에 마디가 있다. 흙이 적당히 묻어있고 너무 굵지 않은 것이 좋다. 연근껍질에 흠집이 많이 없는 것을 고른다. 잘랐을 때 구멍 크기가 일정하고 구멍에 검은 액체가 없는 것이 좋다. 껍질을 벗겨 파는 연근은 표백제 등 약품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가급적 구입을 피한다. 손질된 연근을 구입했을 때는 조리 직전 식초 물에 담갔다가 조리하면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 산촌 (02)735-0312



연근초무침

재료 : 연근, 미나리, 깨소금, 고춧가루, 된장, 막걸리, 식초.

만드는 법

① 연근은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데쳐 소쿠리에 건져둔다.
② 미나리는 줄기만 3cm 정도 썬다.
③ 막걸리에 된장을 풀고 고춧가루 • 깨소금 • 식초 • 설탕을 넣어 새콤달콤하게 한다.
④ 연근과 미나리를 넣고 살짝 무쳐 접시에 담는다.



금강선원 초중 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❶

천혜의 절터에서 시작된 뽕잎차와의 인연

손끝과 옷깃에서 뽕잎차 향이 묻어난다. 산사라 해도 부처님 가피인지, 찾는 이들이 많아 차를 다리는 일도 하루 여러 번. 한잔, 두잔 찻잔에서 배어난 다향이 그렇게 옷깃에, 손끝에 배어나나 보다.

짐짓 여유 부리며 차 한잔을 마시며 불가의 인연 맺은 날을 떠올린다. 딸만 셋 낳은 모친은 나를 낳기 위해 팔공산 은해사 위 중암암이란 절에서 100일 기도를 했다. 모친의 정성어린 기도와 부처님의 가피 아래 태어난 나의 불가와의 인연은 그때부터 이어진 것이 아닐까?

대학시절, 어릴 적부터 즐겨 찾던 중암암에서 공부와 참선 수련을 하며 살아가던 이들과 인연을 맺었다.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에 세속의 인생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마음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데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한마음 밝혀 내가 갈 길을 찾고자 중암암에서 삭발하고 행자생활을 시작했다.

"태어난 것이 부처님 뜻이었으니 남은 생도 부처님 안에서 살겠다"는 내 말에 노스님은 그저 웃음만 지으며 "살아보라" 답했다. 그렇게 시작한 행자 생활은 속세에서 배운 무엇보다 즐거웠다.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나간다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그 후 "공부도 큰물이 있고 세상도 큰 곳에서 봐야 더 잘 보인다. 큰절에서 수행하고 세상을 보라"는 노스님 말씀에 은해사에서 계도 받았다.

중암암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다. 선잠이 들었는데 꿈에 누에들이 내 온 몸을 덮는 것 아닌가? 그 때는 '무슨 꿈인가' 고민 했지만 지금 돌이키면 뽕잎차와 인연 맺을 것을 부처님께서 현몽해준 듯하다. 마침 금강선원 불사를 위해 자리 잡은 곳도 유잠산 아래 뽕나무 숲이었으니 인연법이 내게도 다가온 것이다.



뽕잎차와의 인연은 지금의 금강선원의 인연이 있기에 가능했다. 1995년 8월 선원에서 하안거를 마치고 해제기간이었다. 짐을 풀고 수행 정진할 토굴을 찾고 있었다. 두 달을 그렇게 영남지역을 돌아다니던 나는 합천댐 주변에서 산들이 온통 소나무와 황토로 가득 차 천혜의 지기를 머금고 있는 유잠산 아래, 지금의 금강선원 자리를 발견했다. 내가 발견한 터는 주변 산세와 더불어 온화한 땅 기운이 연꽃 봉오리의 연화대 같은 곳이었고 나는 환희심에 걸망을 풀고 이곳에 자리 잡았다.

"이곳에 옛날에 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절터골이라 불러요." 나를 찾아온 근처 마을 주민까지 이곳이 천혜의 절터라고 하니 풍수 하나 모르던 내가 봐도 "참으로 좋구나" 싶었다. (055)931-9590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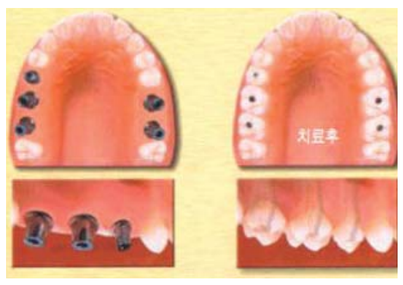
health 치아 건강 칼럼 column

소중한 이 치과 안은영 원장

35 보철치료

상실 치아 치료에 '임플란트' 선호 추세





인간의 수명은 늘고 있다. 식생활에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서 충치와 치주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다. 충치와 치주염에 걸리는 만큼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어금니 하나가 없어진 것만으로도 씹는 힘은 20% 가까이 저하되고, 인접 치아가 점점 기울어지거나 튀어나오는 등 이동하게 된다.

보철치료는 상실된 치아나 심미적, 기능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치아를 수복해 구강의 기능과 심미성을 개선시키는 치료이다. 보철치료는 크게 항상 구강내 고정된 고정식과 환자 스스로가 끼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착탈식 치료로 나뉜다. 상실된 치아의 양쪽 치아를 삭제 후 크라운을 씌운 후 양쪽의 크라운에 걸어 고정시키는 치료로 재료에 따라 금속도재관, 골드크라운, 올세라믹 크라운 브릿지 치료가 있다.

흔히 알고 있는 틀니치료란 상실된 치아수가 많을 경우 치아 뿐 아니라 잇몸에서도 보철물 유지와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착탈식으로 만든 의치다. 이런 형태는 확정된 치료를 받기 전 임시 사용 목적으로 사용된다. 고정식의치가 아니므로 의치의 동요도와 유지력을 증진시키거나, 보기 흉한 금속고리유지장치를 피하기 위해 여러 부가적 장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치아가 빠진후 방치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

1. 빠진 치아의 빈 공간으로 주변 치아가 이동한다.
2. 치아의 맞물림이 변화돼 턱관절 통증이 발생한다.
3. 빠진 치아 주변에서 골흡수가 계속 진행돼 추후 보철수복 치료시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모양, 예후에 영향을 준다.
4. 음식 씹기가 불편해지며, 얼굴 모양에 영향을 준다.
5. 치태(프라그)가 쉽게 발생하고, 충치와 잇몸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상실된 치아 주위 치아를 삭제해야 하는 위 두가지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저작력을 증진시키며 잔존 치조골 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플란트 치료가 선호된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 심는 제2의 치아 뿌리다. 인공 치아 뿌리 위에 치아를 만들어 올려 본래 치아와 같은 감각의 생활을 돕는 치료다. (02)776-2882

[법보시 PR]

대중법문

거룩한 인연으로 정각을 이루어라.

〈대반야경〉

수승한 선근(善根)에 의해서 다음 생엔 기어이 여래응정각(如來應正覺)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수승한 선근에 의해서 다음 생엔 보살도를 정근 수확 하게 하고 깊은 법문을 통달하여 걸림이 없게 하고 대사법용보살(大師法涌菩薩)과 같이 되게 하여주소서.

대반야경 가운데서도 유명한 상제보살(常啼菩薩) 발원문이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상제보살의 수행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서 수보리가 이에 묻고 답하는 내용이다

"수보리야, 상제보살은 지금 대운뇌음불(大雲雷音佛)밑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지만 만일 네가 반야의 지혜를 얻고자 생각한다면 상제보살이 반야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수행했던 것 처럼 수행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자 수보리가 이에 대해 부처님께 여쭙는 것으로 이 경은 전개된다. 상제보살은 조용한 곳에서 수행을 했다. 그런데 수행을 하는 상제보살에게 돌연 소리가 들려 왔다.

"여기서 동쪽으로 가라 동서남북, 상하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곧장 동으로 가라. 모든 불법의 가르침에 구애받지 말고 똑바로 가라. 그러면 반야의 지혜를 얻을 것이다."

상제보살은 그소리를 듣고 기뻐 깨우침을 받아 용기를 얻어서 동쪽으로 향하여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쪽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지 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생각에 잠겨 있게 되었다.

그때 돌연 부처님의 상(像)이 눈 앞에 나타나서 "여기서 동쪽으로 오백유순(五百由旬)을 가면 묘향성이 있다. 그 거리는 굉장히 훌륭하고 칠보로 장식된 성벽 속에서는 진귀한 향기가 풍기고 있다. 그리고 시내 주변에는 오백개의 공원이 있고 갖가지 새들이 아름답게 지저귀고 있다. 거기가 바로 법용보살(法涌菩薩)이 머무는 곳이다. 보살은 주야 삼시로 반여의 지혜를 설법하고 있다."고 하셨다.

이 말을 듣고 기뻐하던 상제보살은 육십이종(六十二種)의 삼매를 얻어 그 삼매로 인하여 부처님께서 반야의 지혜를 설하시는 것을 들을수 있게 되었다. 그때 많은 부처님들이 상제보살에게 법용보살이 곧 너의 스승이고 선우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리하여 법용보살에게 가려던 상제보살은 공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몸을 팔아서 그 돈으로 공양물을 얻으려고 거리로 나가 " 나는 지금 나를 팔고 있소"하고 큰소리로 외쳤다. 그때 그것을 듣고 있던 악마가 만일 상제보살이 법용보살에게 공양하여 반야의 지혜를 얻으면 큰일이므로 "나를 사시오" 하는 상제보살의 소리를 막아 버렸다. 그 결과 아무도 자신을 사 가지 않자 상제보살은 눈물을 흘리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것을 본 제석천은 상제보살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바라문의 모습으로 변하여 가까이 다가갔다. "대체 너는 왜 울고 있습니까?"하고 물어보자 이러이러하다고 대답을 하였다. 사정을 들은 바라문은 다시 말했다.

"나는 인간의 육신은 필요 없지만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데 살아 있는 사람의 심장과 혈액과 뼈와 골수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들은 상제보살은 다시 살아난 것 처럼 기뻐서 바라문에게 말했다. "무엇이던 당신이 필요한 것은 가져 가십시오." 이리하여 예리한 칼로 왼쪽 팔을 찔러서 피를 내고,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서 살을 도려내고, 뼈를 부수어 골수를 꺼내어 바라문에게 주고 다시 심장을 찌르려고 했다. 그러나 이 모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던 장자의 딸이 놀라서 내려와 대간절 왜 그런 짓을 하는가 하고 물었다. 상제보살이 자세히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장자의 딸이 상제보살에게 말했다. "그러한 고마운 분들의 가르침을 받고 반야의 지혜를 받으려는 공양이라면 나는 내 집의 재산을 모두 드리겠으니 공양에 보탬이 되게 하여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쳐 주십시오." 바라문도 제석천의 모습으로 돌아와 상제보살을 보고 말했다. "나는 피도, 심장도 뼈도, 골수도, 모두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뜻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 본 것에 불과하니 깊이 사과합니다."

이렇게 제석천은 상제보살의 몸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었다.

이 모양을 보고 있던 장자의 딸은 상제보살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여 부모에게 이 사실을 자세하게 말했다. 처음에 놀라던 부모님도 함께 법용보살에게로 가서 반야의 지혜를 얻으려고 상제보살에게 청을 했다. 그리하여, 상제보살을 비롯한 장자의 딸과 그 부모들은 오백명의 시녀들과 함께 법용보살에게 공양하려고 여러 종류의 진귀한 보물을 수레에 싣고 묘향성으로 떠났다. 조금 뒤에 상제보살이 칠보로 장식된 묘향성에 도착하여 멀리 법용보살이 칠보로 된 대반야대 위의 사자좌에 앉아 많은 대중들에게 둘려싸여 계신 것을 본 상제보살은 너무 기뻐 눈물이 나왔다. 그리고, 수레를 타고 법용보살에게 가는 것을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수레에서 내리니 이어 오백대의 수레에 탄 다른 사람들도 모두 수레에서 내려와 걸어갔다. 대반야대 중앙에는 네 개의 보물로 장식한 상자 속에 녹인 보석얼음과 황금의 판으로 둘러싸인 반야 지혜의 경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양을 하고 있었다. 상제보살과 장자의 딸과 그의 부모들은 사용되는 성질에 따라 공양물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반야 지혜의 경전에, 다른 하나는 법용보살에게 바쳤다. 이어서 끝 없이 예쁜 꽃을 공양하니 어떤것은 법용보살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누각으로, 또 어떤 것은 공중에 머물면서 천막처럼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신통력을 보고 깊이 감동한 상제보살은 마음속에 명심하여 발원하는 마음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발원문이다. "저희들은 이 거룩한 인연으로 해서 앞으로 꼭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저희들 이 거룩한 인연으로 해서 앞으로 보살의 도를 수행하고 깊은 법문을 체득하여 걸림이 없는 법용보살과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상제보살은 법용보살에게 앞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얘기하며 이렇게 법용보살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했다. 그러자, 법용보살의 설법이 시작되었다. "부처님의 몸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온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다. 이것은 모든 법의 참다운 성품(實性)이 부동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진여(眞如),)법계(法界), 법성(法性), 불허망성(不虛妄性)불변이성(不變異性), 평등성(平等性). 이성(離城), 정성(定性),주성(住性) 제법의실제, 허공계, 부사의계, 무생성, 무멸성, 여실성, 원리성, 적멸성, 무열정성, 공성.....이러한 것들이 모두다 오는 것도 없고가는것도 없다." 법용보살은 이처럼 가르침을 자세하게 보이시고 이어서 많은 비유로서 이것을 일러주셨다. 예를 들자면 다음가 같은 말씀이다. " 한여름에 광양를 치달리는 물을 보고 물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원체가 흐르는 물이란 물처럼 보이나 물은 아니다. 그 치달리는 물을 보고 실체라 생각하고 오는 곳이 있고 가는 곳이 있다고 말 할수 있겠는가....." 요컨대 일체법은 꿈과 같고 변화하여 실유가 없다도 본 것이며 모든 것은 인연화합 할때에 있는 것과 같이 보이고 또한 그인연으로써 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법문을 끌낸 법용보살은 궁으로 들어가 정(定)에 들었다.



남해 미륵암 주지 청운

그리고는 7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상제보살은 앉지도 눕지도 않고 오직 걷기만 했다. 잠과 음식을 원하지 않았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진심으로 법용보살의 설법을 다시 들을 기회를 기다렸다. 마지막 7일이 됩즈음에 상제보살은 자리를 깨끗이 하고 주위에 먼지가 일지 않도록 물을 뿌리려고 했다. 이를 본 악마는 물을 숨겨 버렸으나, 이에 방해 받지않고 몸을 예리한 칼로 찢어서 피를 내어 근처를 깨끗이 하려고 하였다. 이 모습을 본 제석천이 그 피를 전단향수(栴檀香水)로 변하게 하자 근처에서 말 할수 없는 향기가 풍겨나왔다. 이리하여 법용보살은 드디어 정(定)에서 일어나 사자좌에 앉으시고 반야의 지혜를 설하기 시작하였다. "일체의 법은 평등하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도 평등하다. 또한 일체법은 원리(遠離:멀리떠남)이다."이렇게 법문을 듣고 나서 상제보살은 육십억의 선정을 완성하였다.

그 뒤로 상제보살은 도처에서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 땅에 살았으며, 또한, 반야의 지혜를 얻어서 불우한 생을 멀리하고 수승한 생을 얻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대반야경에서 수보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준 것인데 그것은 반야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인간은 누구나 원하는 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바라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륵암 청운 011-870-0021]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웃음보살 불등거사 <8>

구성 : 김흥인



떡 하나 때문에 도둑맞은 부부 [백유경(百喩經)]



어느 부부가 떡을 나눠먹다 한 개가 남았다. 누구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것으로, 이기는 사람이 남은 떡을 먹기로 했다. 도둑이 집에 들어와 집안 재물을 모두 뒤져도 부부는 하나 남은 떡을 먹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물을 모두 챙긴 도둑이 부인을 겁탈하려하자 부인이 '도둑이야' 라며 소리쳤다. 남편은 떡을 먹게 됐다며 손뼉 치며 기뻐했다.
범부들도 이와 같이 작은 명예나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잠자코 있으면서 선법을 잃고 삼악도에 떨어지면서도 조금도 두려워않고 출세할 길만 구한다. 다섯가지 쾌락에 빠져 놀며 큰 괴로움을 당해도 환란이라 생각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남편과 같다.

옛 판화의 세계

인과 이야기(백구가 부처님을 보고 짖다)

백구폐불(白狗吠佛)

불암사판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삽화로, <증일아함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세존이 사위국에 들어가 앵무마납도제의 아들 집에 이르렀을 때다. 도제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 백구가 침상 위에서 쟁반의 음식을 먹다가 부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침상에서 내려와 부처님을 향해 짖었다.

부처님이 백구를 향해 말하기를, "너는 재물을 지킨 인연으로 개의 몸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백구는 크게 노여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시름에 싸여 자리에 드러누웠다.

도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개가 땅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집안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었다. "누가 이 개를 화나게 했느냐?" "세존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삽화에는 성이 난 도제가 부처님에게 찾아가 따지는 모습과 부처님이 도제를 위해 설법하는 장면도 등장한다. "그 개는 네 아버지다. 믿지 못하겠거든 집으로 돌아가 개에게 감추고 있는 것을 너에게 보여 달라고 묻거라."

도제는 집에 돌아와 개에게 말했다. "만약 네가 전생에 내 아버지였다면 일어나 밥을 먹고, 네가 숨기고 있는 것을 내게 보여라!" 개는 숨긴 곳을 보이며 입과 발로 침상 밑을 긁어 파헤쳤다. 땅에서 많은 보물이 나왔다. 큰 신심이 일어난 도제는 숙세의 인연과 행한 업에 대한 과보를 부처님에게 물었다. 부처님이 말했다. "남자와 여자의 수명은 극히 짧다. 그러나 살생 등 업보의 수명은 극히 길다. 자비심이 있어 살생하지 않아도 가난하고 궁핍하며 지극히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인색하고 탐욕스럽고 훔치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넉넉한 재물과 보배를 가진 사람이 많다. 항상 보시하는 사람 가운데도 악한 지혜를 지니고 악한 사람과 악한 말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고, 착한 지혜가 있고 선지식과 친근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다. 도제야, 항상 알아두어라! 오래 사는 업은 반드시 오래 살 수 있고, 보시하는 업을 지은 사람은 재물을 얻어 부자가 된다. 널리 배우고 많은 것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지혜를 얻는다. 이 같은 인연을 지으면 이같이 감응하게 된다. 모든 중생들은 자기가 행한 업에 기인한 업으로 인해 과보를 얻는다. 업에 연유하고 업을 근거해 선악에 따라 과보도 스스로 나눈다."



석씨원류(釋氏源流)중 백구폐불(白狗吠佛)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불교의 핵심교리 중 하나가 바로 인과응보 사상이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온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콩 심은 사람은 팥 나고 팥 심은 사람은 콩 나는 듯 착시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 나타난다. 자기가 행한 업에 원인이 돼 과보 받는다는 인과의 진리는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삽화를 통해 부처님은 우리에게 단호히 말하고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고 판화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고독한 비명



가끔은
세상이 그리울 때도 있지요.
내가 나를 유폐시킨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지만.
가끔은 세상이 그리울 때가 있지요
깊은 산. 외로운 섬. 산짐승도 외로워 홀로 울 땐
가끔은 나도 눈물이 나요?
내가 나를 가두긴 했지만
가끔은 세상이 그리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내가 내가 그리울 땐,
더 깊고 먼 곳으로 도망 가지요.



우담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독]
정 진 기 도



귀의 삼보 하옵고,
경주 남산 천선사 에서는 매월 둘째, 네째 주 토요일 철야법회를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천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정진 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에 가피력으로 각 가정마다 공덕을 길이길이 쌓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천 선 사 주지 정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폰 016-509-0462
FAX 054)771-6606

(株)天星建設

석 · 납골당
석 · 굴법당 전문

석 · 납골당 조성공사
석 · 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 · 축대 및 보수공사
석 · 저장실, 보관실(과일)
석 · 까다로운 석 · 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구 260-1
전 화 041)331-6863~5
팩 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

卍 한글 한문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겸용의식집 5권이면 염불 [한글염불·한문염불]에서 경전공부까지 다른책이 필요없게 만들었습니다.

내 용 소 개

①한문염불(기존염불)과 한글염불(경전내용으로 조직)을 집전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②경전의 내용으로(한글염불+한문염불)과 겸하여 조직하므로 독송 또는 읽음으로써 염불과 경전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③겸용의식집은 염불의 순서대로 조직하여 누구든지 쉽게 집전할 수 있게 하고 염불을 위주로 간편하게 편찬하여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④겸용의식집은 염불 중 '운운'을 없게하고 집전자의 작은 애로까지 배려하여 염불이 약한 집전자도 부담없게 만들었습니다.
⑤염불방법 한가지 소개한다면 ☞삼청하는 청사를(2청은 한문, 1청은 우리말) 염불한다면 염불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하게 되므로 별도의 노력없이도 우리말 염불을 쉽게 할 수 있게 될것을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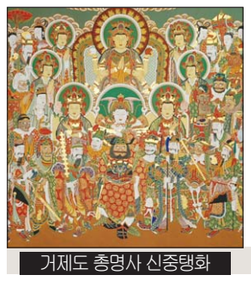
구 성

• 제1권 : 예경, 각청편 15,000원
• 제2권 : 천도, 시식편 15,000원
• 제3권 : 수계, 방생편 12,000원
• 제4권 : 장의편 12,000원
• 제5권 : 점안편 13,000원

※불서총판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각권 별도 판매합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전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 법우당 02)999-8315
(농협 211012-52-203756 박명덕)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45>
(修習止觀坐禪法要)

제6장 정수행(正修行) ⑨

만법은 마음 움직이는 모습대로 나타나

一行者 若於行時 應作是念 我今爲何等事欲行 爲煩惱所使 及不善無記事行 卽不應行 若非煩惱所使 爲善利益如法事 卽應行 云何行中修止 若於行時 卽知因於行故 則有一切煩惱善惡等法 了知行心 及行中一切法 皆不可得 則妄念心息 是名修止 云何行中修觀 應作是念 由心動身 故有進趣名之爲行 因此行故 則有一切煩惱善惡等法 卽當反觀行心 不見相貌 當知行者 及行中一切法 畢竟空寂 是名修觀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길을 가려고 하는가."

첫 번째로 길을 가려는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이 생각을 해야만 한다.

번뇌의 지배를 받아 선하지 못한 일, 무기의 일 때문에 길을 간다면 그 길은 가지 말아야만 한다. 그러나 번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선한 이익을 여법하게 하려 한다면 마땅히 길을 떠나야만 한다.

그러면 길을 가는 도중에 지 수행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길을 가는 것으로 인해서 일체 번뇌와 선법·악법 등이 일어난다는 것과, 길을 가는 마음과 길을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체 모든 법은 실체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명료하게 안다면 망념의 마음이 쉬게 된다. 이를 두고 지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 길을 가는 도중에 관 수행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몸은 마음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로 인해 길로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마음이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한다. 길을 가는 것으로 인해 일체 번뇌와 선법·악법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길을 갈 때의 마음을 돌이켜 관조하여 길을 가는 모습에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알아야할 것은 길을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체 모든 법이 끝내 공적하다는 점이다. 이를 관 수행이라고 한다.

여기서부터는 행 주 좌 와 등 열 두 가지 일 가운데서 차례로 낱낱이 지관수행을 하는 모습에 대해 해석하였다.

첫 번째로 길을 갈 때 수습해야하는 지관에 대해 설명하겠다.

"나는 지금 어떤 일 때문에 길을 가려고 하는가."

길을 떠나려할 때는 출발하기 전 마땅히 이와 같은 생각을 일으켜야만 한다. 이번에 길을 떠나는 것이 번뇌의 지배를 받아 살생, 도적질, 음행, 망어 등 선하지 못한 일이나 무기의 일 때문이라면 즉시 중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계 정 혜를 닦고, 향을 사르고, 부처님에게 예배를 하고, 꽃을 뿌려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고, 경전강의를 듣고, 법문을 듣는 등 선한 이익을 여법하게 하려고 길을 떠날 경우엔 즉시 실행에 옮겨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악업은 짓지 말고 뭇 선업을 받들어 행하는 일이라면 즉시 길을 떠나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떠나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길을 가는 도중에 지 수행하는 것에 대해 말해보겠다.

내가 길을 떠나는 일 때문에 현재 일체 선악법이 일어난다는 것과, 길을 떠나지 않는다면 길을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없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아야만 한다. 이것을 두고 "만법은 오직 행하는데 따라서 일어난다"라고 하였다.

또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길을 떠나고 떠나지 않는 것은 오직 내 마음에서 나타날 뿐이므로 마음으로 인해서 있다"는 점이다.

옛 스님들은 길을 걸으면서 항상 삼매 닦아 행주좌와 모두에서 지관수행 떠나지 말아야

만일 길을 가야겠다는 일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즉시 길을 떠나는 일도 없고 가야할 길도 없다. 이런 마음을 보면서 길을 떠나야만 된다.

경계는 본래 일어남이 없이 내 마음으로 인해서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만법유심이라고 한다.

일체법은 마음으로 귀결하기 때문에 일체 만법은 내 마음으로 귀결하는데 불과한 것이다. 또한 마음은 본래 일어남이 없는데, 대상경계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만법은 오직 내 행동하는 모습일 뿐이다. 따라서 일체법은 행동으로 귀결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다.

그 최후까지를 추구해보면 행동하는 주체의 모습도 없고 행동할 대상도 없다. 주체와 대상은 본래 고요하다. 이를 안다면 지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 수행이 이와 같다면 관 수행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옛날 조사스님들께서는 오로지 길을 걸으면서 항상 삼매를 닦았다고 한다.

二住者 若於住時 應作是念 我今爲何等事欲住 若爲諸煩惱及不善無記事住 卽不應住 若爲善利益事 卽應住 云何住中修止 若於住時 卽知因於住故 則有一切煩惱善惡等法 了知住心 及住中一切法皆不可得 則妄念心息 是名修止 云何住中修觀 應作是念 由心駐身故名爲住 因此住故 則有一切煩惱善惡等法 則當反觀住心 不見相貌 當知住者 及住中一切法 畢竟空寂 是名修觀

두 번째로 안주하는 문제에 대해 말해보자.

"나는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머물려고 하는가."

머물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만 한다. 이때도 역시 모든 번뇌로 인해 착하지 못한 일과 무기의 일 때문에 머문다면 머물지 말아야만 한다. 그러나 선으로 이익된 일이라면 반드시 머물러야만 한다.

안주할 때엔 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안주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체 번뇌와 선악법 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머무는 마음과 머무는 가운데 일체법은 그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명료하게 안다면 망념이 쉬게 된다. 이를 두고 지 수행이라고 말한다.

안주하는 가운데 관 수행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내 마음을 따라서 몸이 안주하기 때문에 그것을 머무름이라고 한다"

이 마음은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만 한다. 이 머무는 것 때문에 일체 번뇌와 선악법 등이 있다면 마땅히 안주하는 마음을 돌이켜 관찰하여 그 모습을 분별하지 말아야만 한다. 알아야 할 것은 안주하는 것과 안주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체법은 공적하다는 점이다. 이를 관 수행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안주하는 가운데 지관을 닦는 것에 대해 말했다. 안주라고 하는 것은 정지하여 머문다는 뜻이다. 마음을 따라서 몸이 안주한다고 하는 것은 몸이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이 몸을 머물게 한다는 뜻이다.

만일 마음을 안주하지 않으면 몸도 역시 안주하지 않는다. 모든 법이 끝내 공적하다고 하였는데, 머무는 마음과 머무는 대상으로서의 법이 낱낱이 당체가 본래 고요하여 진공의 이치와 서로 호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끝내 공적하다고 하였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삼성(三性)

(4) 의타기와 원성실성의 상호관계

'유식론'에선 의타기와 원성실성을 따로 분류하였으나, 이 두 성질은 서로가 분리되거나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성질은 서로 상즉관계도 아니며, 그렇다고 서로가 분리되지도 않습니다[不卽不離].

만일 이 두 가지 성질이 상즉관계라면 진여는 의타기를 의지해서 현상세계로 발현하기 때문에 응당 의타기를 따라서 생멸해야만 합니다. 또 의타기의 측면에선 다시 진여를 자체의 법칙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의타기성 역시 진여처럼 생멸로 일어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가령 '상즉'과는 반대로 두 성질이 완전히 분리된다면 진여는 의타의 자체성질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성질은 상호분리관계도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이 두 성질은 다르지 않지만 다르지 않지도 않다고 합니다[비이비불이(非異非不異)].

이 두 성질이 단정코 다르다면 진여는 의타법의 실성(實性)이 될 수 없으며, 이와는 반대로 다르지 않다면 진여가 의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진여 역시 의타의 생멸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타기성인 일체의 법상(法相)과 원성실성인 법성(法性), 이 두 성질이 부즉불리(不卽不離)하고 불일불이(不一不二)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현묘의 극치를 추궁한 중도의 논리라 할 수 있습니다.

(5) 진속이제(眞俗二諦)

이를 다시 진속이제(眞俗二諦)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공종(空宗)에서는 그 모든 사상적 핵심을 진속이제를 바탕으로 해서 근본종지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진제는 절대적인 측면에서만 담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식종(唯識宗)에서는 삼성(三性)을 그 근본종지로 삼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만유는 인연환유(因緣幻有)라고 합니다. 인연환유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의타기성입니다.

'타(他)'를 '인연'으로 풀이하는 이유는 있다 해도 인연이라는 상호관계성으로만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있다 해도 그 실체가 따로 독존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인연관계성인 의타기성은 있다 해도 허깨비 같은 존재, 즉 속제환유(俗諦幻有)이며, 환유는 바로 진제즉공(眞諦卽空)인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 (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하늘 오르는 길목, 관광객 발길로 식생 훼손

(102) 진안 마이산 금당사

하늘의 남녀 신선이 내려왔다가 두 봉우리가 되었다는 진안 마이산 전설은 산의 신령성을 잘 보여준다. 특히 마이산 전설은 산이 하늘[天神]과 통하고 아래로 땅[世上]을 거느리는 사제적(司祭的) 존재인 신선의 다른 모습임을 직설적으로 말해준다.

전설이 민담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인 지역성과 역사성에 있어서 마이산 전설은 특히 역사성에 강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금척(金尺) 전설을 비롯해 마이산 처처소소에 남아있는 조선 개국 전설들이 마이산 전설에 역사성을 수혈해준다.

마이산은 해발이 685m에 불과하지만, 아름다운 산체(山體)로 해서 국가 명승 제12호로 지정되었고, 우리나라 100대 명산 가운데 지명도가 20위권 안에 들었다. 금당사(金堂寺)가 108사찰 생태기록의 대상에 오른 것도 기실은 마이산 덕이라 할 것이다.

백제가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의자왕 무렵 고구려 보덕 스님이 제자들을 대동해 내려와 이곳 금당사를 비롯해 완주 경복사와 김제 흥복사 등을 지어 열반종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진안읍 쪽 북부주차장에 내려 긴 계단길을 오르면 마이산 암수 봉우리를 가르는 강정골재 천왕문에 닿는다. 하늘로 오르는 길목이라는 천왕문을 경계로 금강과 섬진강으로 갈라진다. 북쪽사면의 물은 사양제에 모였다가 금강이 되고, 남쪽사면의 물은 탑영제에 모였다가 섬진강이 된다.

천왕문 오른쪽에 솟은 숫마이봉은 산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파르지만, 암마이봉은 산체도 크고 경사가 젖무덤처럼 부드러워 식생도 숫마이봉 보다는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등산객들의 과다한 이용으로 해서 식생이 많이 망가져 2014년까지 입산 통제되었다.

숫마이봉 암벽 틈에 자리한 화엄굴 주변은 무분별한 무속행위로 주위 환경이 많이 오염 훼손되었다. 함부로 버려진 기도쌀을 먹으러 새들이 들어와 배설물을 싸놓는 바람에 천년약수로 소문난 석간수는 진작 오염되고 말았다.

숫마이봉에 기대어 앉은 은수사 샘터에 '섬진강 발원지'라는 표지석이 서 있다. 하지만, 최장의 발원지는 백운면 팔공산 골짜기에 있는 데미샘이다.

발원지 표지석 아래 쪽 마당 한켠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청실배나무가 있다. 높이는 15m이며, 4개의 큰 줄기가 갈라져 있다. 수령이 640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사(實査)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태조 이성계가 무인시절 이곳을 찾아와 기도하면서 심었다는 전설에 근거한 것이다.

청실배나무는 장미과 낙엽활엽수로, 산돌배나무와 비슷하다. 잎은 톱니가 있는 타원형으로 양면에 털이 없고 단단하다. 봄에 흰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노랗게 익는다. 크기는 산돌배보다 약간 작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희귀성 때문이다.

은수사 마당에 서면 암수 두 마이봉을 모두 배관할 수 있다. 마이산은 크게 역암과 화강암질 편마암으로









❶금당사 연지. ❷큰밀잠자리. ❸파랑새(촬영=원우 스님) ❹끈끈이대나물.

구성되어있다. 백악기에 솟아오른 지층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침식에 강한 역암은 돔(dome) 모양의 봉우리로 남고, 침식에 약한 화강암질 편마암은 퇴적되어 진안고원을 이루었다.

봉우리 암벽에는 타포니(taffoni)라는 풍화된 홈들이 나 있다. 이 홈들은 충진토양인 메트릭스(mertrix)에 박혀 있던 작고 굵은 돌이 풍화로 떨어져나간 자리이다. 그 타포니에 흙먼지가 채워지면서 구실사리, 산거울, 김의털, 조록싸리 등 몇 종의 식물들이 간신히 뿌리를 내려서 특이한 식생태계를 보여준다.

산거울은 여러 해살이 사초과 식물로, 그늘진 바위틈이나 건조한 숲 속에서 자란다. 뿌리줄기는 굵고 짧으며, 꽃줄기는 10cm 가량, 좁고 긴 잎은 30cm 가량이다.

은수사 매점 옆에 희끗희끗한 은백양나무가 서 있다. '은백양(銀白楊)'이라는 이름은 나뭇잎의 뒷면 색깔이 은백색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인 은백양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도입 초기에는 조경수나 가로수로 심었으나, 봄철에 꽃털을 많이 날리고, 뿌리가 깊지 못해 여름철 태풍에 잘 넘어지고, 병충해에도 약해서 이제는 거의 심지 않게 되었다.

탑사로 내려가는 숲길 옆으로 개울골이 있지만, 장마철인데도 물소리가 끊겼다. 게다가 개울바닥을 시멘트로 발라 놓아서 섬진강 발원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탑사는 돌탑으로 이루어진 절이다. 돌탑의 재료는 마이산 역암에서 풍화작용으로 떨어져 나온 크고 작은 돌이다. 허튼층쌓기로 축조된 돌탑들은 대부분 원추형이거나 기둥 꼴이다.

탑사 대웅전 아래 바위에 천연기념물인 줄사철나무가 덩굴을 이루며 덮여있다. 나이가 많은 편인데도 주변 암벽을 기어오르며 붙어 있는 상태가 튼실해 보인다. 탑사는 남방계식물인 줄사철나무의 북방한계선이다. 남쪽지방에서는 관상용으로 심어도 좋고, 보기 흉한 절개지를 가리는데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화엄굴 주변 천년약수 무분별 무속행위로 오염
바위산에다 큰 계곡 없어 물 부족…식생 '빈약'

탑사에서부터 탑영제까지는 벚나무길이 몇 구비로 이어져 있다. 벚꽃 피는 계절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더니 꽃 지고 나니 숲길엔 매미소리만 쓸쓸하다. 진안군은 마이산을 생태관광지로 가꾸기 위해 숲길 주변과 공한지에 참나리를 비롯한 야생화와 단풍나무 등 몇 종의 조경수를 심었다.

탑영제는 마이산 남사면 골짝물을 가둔 인공저수지로, 불교계의 유명 방생지로 오랫동안 성황(?)을 이루었던 곳이다. 탑영제 물가에 길이가 석자 가웃이나 되는 큰 잉어들이 인기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떼 지어 어슬렁거리고 있다. 그동안 환경용량을 무시한 대량 방생과 붉은귀거북 등 무분별한 외래종 방생으로 수중생태계가 교란되고, 방생 때 던져주는 먹이로 수질이 오염되자 당국이 나서 방생을 금지시켰다.

탑영제 벚나무 숲길이 개울과 함께 금당사로 내려간다. 개울에는 버들치 몇 마리가 군데군데 모여 유영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은 개울의 폭도 좁고 수량도 많지 않아 서식하는 담수어종은 버들치 한 종류뿐이다. 탑영제에서 2km 떨어진 이산묘께에 가야 수량도 늘어나고 비로소 피라미와 갈겨니도 나타난다.

개울을 끼고 내려오면 오른쪽에 금당사가 앉아있다. 한자로는 '金塘寺'와 '金堂寺' 등 두 가지로 표기되고 있는데, 조선 숙종 때 조성된 금당사 괘불에는 '金堂寺'로 표기되어 있다.

금당사 경내와 계류 사이에 차도가 나면서 졸지에 길가의 집이 되고 말았다. 그 바람에 가람의 모양새도 엉성하고 가람배치도 산만해져서 산중사찰다운 면모를 잃어버렸다. 금당사 본존불은 기록에 은행나무로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 통나무에 새긴 불상의 폭이 1m 65cm, 용문사 은행나무의 지름인 4m에는 비길 바 못 되지만, 수령이 적어도 수백 년 된 노거수로 빚어냈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은행나무는 재질이 치밀하고 트지 않아서 불상이나 고급 가구를 만드는 데 요긴하게 쓰였다. 나무속에 '플라보노이드'라는 살균과 방충 성분이 들어 있다는 점도 조각재나 가구재로서 큰 장점이다. 심재의 색깔이 황백색을 띠고 있어서 부처님의 금색신을 조각하는 데도 안성맞춤이다.

금당사 대웅전과 극락전 뒤로 숲이 내려와 있지만, 연륜이 짧아서 그윽한 맛이 없다. 그나마 경내 식생 조경이 빈약해서 산중사찰이라도 쉴만한 나무그늘이 없다.

그런 가운데 연못은 생기가 촉촉한 비오톱이다. 다소 왜색(倭色)을 띠고는 있지만, 잠자리 유충을 비롯한 수서생물이 살고 있고, 개구리도 이곳을 태실지로 삼고 있다. 이 연못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려면 우선 수생식물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 같다. 수질을 정화시키기는 침수식물과 부유식물도 필요하다. 꽃이 아름다운 어리연꽃, 물옥잠, 꽃창포 등도 심어두면 좋을 것이다.

마이산은 바위산인 까닭으로 조류상이 빈약하다. 큰 계곡이 없어 산에 물이 부족한 것도 또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여름철새인 파랑새 한 마리가 금당사 뒷 숲에 앉아있다.

파랑새는 붉은 부리를 가진 비둘기만한 크기의 새이다. 몸통은 진한 청록색을 띠고 있어서 얼핏 보면 검은색으로 보인다. 허공을 비행할 때는 양쪽 날개에 흰색의 무늬가 선명하다. 금당사에서 고금당까지는 호젓한 산길로 1km. 어느 처사의 부도가 외로이 서 있는 산길 주변엔 여기저기 묵밭이 보이고, 개망초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마이산은 대부분 바위로 이루어져 식생은 훌륭한 편이 못된다. 암벽에 육송이 간간이 보이지만, 리기다소나무 식재림이 더 넓다. 금당사 뒷산과 고금당 주변 등 토양층이 발달된 부분에는 신갈나무 군락이 약간 형성되어 있고, 천왕문에서 은수사와 탑사를 잇는 계곡부에는 느티나무군락이 좁게 분포되어 있다. 노거수로는 화엄굴 앞의 느티나무가 고작이다.

참나무로는 굴참나무가 흔하고, 관목층에는 조록싸리, 산조팝나무, 국수나무, 싸리 등이 나타난다.

초본류로는 주름조개풀, 산거울, 김의털, 바위채송화, 산부추 등이 관찰되었다. 귀화식물로는 끈끈이대나물 등이 보이고, 고금당 가는 산길엔 질경이와 토끼풀이 질펀하다. 끈끈이대나물은 유럽에서 관상용으로 들어왔다가 전국적으로 퍼져버린 야생초이다. 키는 50cm 정도 되고, 여름에 자잘한 자주색 꽃이 핀다. 꽃대 밑에 끈끈한 진액이 있는 게 특징이다.

우화를 마친 큰밀잠자리 암컷 한 마리가 젖은 날개를 햇살에 말리고 있다. 수컷의 몸통은 남색을 띤 회색, 암컷은 검은 줄무늬가 있는 노란색이다. 무리를 이루지 않고 단독생활 하는 습성이 있다.

금당사는 사격에 비해 사역(寺域)이 42만평으로 엄청 넓다. 마이산의 대부분이 금당사 소유로 되어 있다. 금당사는 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을 비롯해 갖가지 용지를 공익차원에서 무상으로 내놓고 있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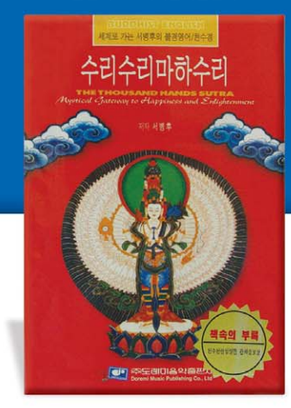
■ 제 목 :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 분 량 :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 강 의 : 2007년 9월 16 ~ 27일(10일)
■ 장 소 :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 제 작 : 현대불교영상사업단
■ 가 격 : 19만원(교재 포함)
■ 교 재 : 함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법공양 刊, 2만 5000원)
■ 구입문의 : 02)2004-8397, 8200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 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책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레미음악출판사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꽤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것입니다.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둘 아닌 지혜로운 마음으로 근본에 말겨 놓고 지켜보라!

신의 길, 인간의 길

문 요 근래에 SBS 방송에서 "신의 길, 인간의 길" 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상영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인간이 본래 신인데, 인간이 만든 신에 의해서 인간이 구속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못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자각의 종교인 부처님법을 만난 저희들 중에도 진정한 부처님의 삶과 깨달음의 길을 찾기 보다는 자신의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타력의 종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믿고서 기복과 발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자신의 근본을 믿고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기복으로만 헤매이게 되는 것일까요?

답 말끝에 이 말이 지금 생각납니다. 나는 그전에 이런 일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왜 열 사람이라면 꼭 다섯 사람이나 여섯 사람만 완쾌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고 항상 떨어지는가. 그것이 내 탓이라고 돌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불쌍하고 그런데 왜 한꺼번에 다 똑같이 되지 않느냐고 울었죠.

그런데 하루는 달이 그믐달이었는데 어느새 초승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쳐다보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달이 둥글었다가 반쪽이 됐다가 점점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엔 아주 실낱같이 적어졌다가 또다시 둥글어지고 그러더군요. 새삼스럽게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건만 그걸 쳐다보고 '옳지, 세상은 이렇기 때문에 진리가 끊임없다고 말을 했구나. 그 사람네들이 그렇지 못한 거를, 거기에 어떠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거를 내 어찌하겠는가? 보름달이 있으면 그믐달이 있듯이 마음과 마음이 차이가 나고 그렇게 되니 어찌하겠나?' 하고 그땐 눈물을 닦으면서 싱긋이 웃고 들어갔습니다만 웃음은 잠시 잠깐이고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지금도 답답한 게 아니라 담담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요지경 속으로 돌아가나!' 하는 생각에서 담담하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답답해하고 방황하는 것도 아니고 불쌍해서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안 불쌍해서 덜 애쓰는 것도 아니고 쾌활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항상 담담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언짢지는 않으나 '하이구, 요지경 속이구나!' 이러고 어떤 때는 길을 가다가도 그냥 너털웃음으로 웃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웃음이겠습니까? 웃음도 천차만별입니다. 우스워서 웃는 웃음이 있는가 하면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이 있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전자에 형상을 모셔 놓고 제자들을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또는 선방을 만들어 놓고 앉아서 너희는 시간을 정해서 해라 하고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나는 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자유스럽게 놔두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계율을 지키게끔 이끌어 주는, 바로 그런 길을 부처님께서는 인도하셨던 겁니다. 몸으로써 고행을 한다고 해서 부처를 이루고 또는 고행을 안 한다고 해서 부처를 못 이루는 건 아닙니다. 첫째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하죠. 이런 문제가 역력하게 있습니다. 집안에서 한 사람이 그 도리를 알았는데 그저 언짢은 말은 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막말도 뱉지 않습니다. 자기 말이 한 번에 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도리를 아는 사람의 한생각은 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자비하게 돌려서 생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향기로운 마음의 에너지는 한 방에 있는 자기 식구들을 얼마나 밝게 비춰 주겠습니까?

이렇게 성스럽고 이렇게 묘하고 이렇게 생활에 즉각적인, 즉각적으로 감지되는 생활 속의 근본적인 진리인데도 우린 그걸 모르고 항상 그저 산에 올라가서 빌고, 일 주일이고 삼 주일이고 백 일이고 천 일이고 목욕재계하고 그저 멸치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남편도 멀리 해 가면서 올라다니는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까 하는 소립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부처가 있습니까? 내 가정을 파괴하고 어떻게 부처님을 이룬다고 합니까? 내 앞의 것을 모르고 어떻게 저 먼 데 것을 잡습니까? 그것도 다 욕심이거든요. 허황된 욕심이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문전에서, 너희들이 정성을 들이려고 이고 나올 때 벌써 정성은 받았느니라.' 그게 무슨 소린 줄 아십니까? 자기가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부처도 일체 신도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 뜻을 왜 모르십니까? 예전에 그렇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뜻을 왜 모르십니까? '네가 아는 것이 부처가 아는 것이다. 일체 신이 알고 있다. 일체 신이 알고 있고 일체 심(心)이 알고 있고, 만물이 같이 돌아가고 이렇게 행하고 있거늘 어찌 그것을 모르고 너희들은 타의에서 바라는 게 항상 그렇게 많으냐?' 하시고 말입니다. 네가 해 먹지, 네게 있으니까 네가 펴다 먹지 왜 남의 걸 바라느냐 이겁니다. 네 안에 바로 네 것이…, 이 우주 공간에 꽉 찬 것이 다 네 건데 어째서 남한테 바라는 마음을 갖느냐 이거죠.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네 것이 다 못되느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가 고프다 하는 것은 밥을 못 먹어서만이 배가 고픈 게 아닙니다. 일체 만법의 생활이 어떤 게 부족하든지 다 배고픈 건 배고픈 겁니다. 그러면 배고파도 내가 배고픈 걸 알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프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또 알아야 되죠. 그것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면 벌써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배고프면 벌써 여기서 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도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편안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서 돌아오는 것을 왜 내가 걱정을 하고 '배가 고파! 배가 고파! 부처님, 배 좀 부르게 해 주시오.' 하고 애원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렇다면 영원히 노예가 돼서 항상 배고프다고, 항상 남의 집 머슴 노릇만 할 겁니다. 남을 주고 살아야지 만날 노예가 돼서 남의 심부름이나 하고 얻어먹기나 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비유입니다만 진실입니다.

모두가 살아나가는 데 급급해서 그냥 애를 쓰고, 이름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이론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지식으로 사는 거 이런 거. 남의 거를 갖다가 빼서 어떡하든지 내 걸 만들어서, 그저 좋게 얘기해 주면 될 줄 알고요. 그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진실하고 그 진실한 도리를 앎으로써 진실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뜻을 지니고, 진실한 그 뜻을 지녔기 때문에 자기가 익게 되고, 익게 되면 고개가 숙여지고, 고개가 숙여지면 언제나 나 아님이 없고 전부 둘이 아니게 되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그런 도리를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죠.

하여튼 바깥으로 끄달리지만 않으신다면 빌지 않을 겁니다. 또 안으로도 빌지 않을 겁니다. 왜? 안으로 둘로 본다면 기도를 해야 하지만, 둘로 보지 않는다면 '관(觀)하라' 이런 소립니다. '색(色)과 공(空)이 둘이 아닌 까닭에' '마음과 내 몸이 둘이 아닌 까닭에' 이 소립니다. 마음과 이 몸이 둘이 아닌 까닭에 이것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이런다면 그 무엇이 있었던가? 그냥 주먹으로 이걸 하나를 집어서 한 번 친다면 쩡 울리는 그 뜻! 두 손으로 그냥 두 개를 집어서 팍! 친다면 번쩍 불이 일어나는 찰나 이겁니다, 모두가. 이 공부가 참 재미있고, 생활 속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찰나의 생활을 그냥 여여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가르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빌어먹으려고만 하고 빌고 있으니 이걸 어떡합니까, 글쎄.

이렇게 밝고 밝은 세상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미(迷)하게 돌아가야만 합니까? 그러니 불법을 배운다는 분들이 아직도 정신을 깨치 못하고 자기의 옷깃을 여밀 줄 모르는 그런 분들이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그림 · 최주현

정신계의 50%를 충당할 수 있으려면…

문 저는 정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이렇게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 보이는 물질계의 50%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정신계의 50%를 거기에 충당을 해야만 정말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데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마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많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그걸 알려면요, 그거 한 가지만 알아서도 아니 되니까 여러 가지 다 알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나부터 알아야 돼요. 당신이 당신부터 알아야 앞으로의 전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불교라는 것은, 불(佛)이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를 막론해 놓고 다 생명 없는 것이 없으므로 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말과 말로 전달해서 돌아가게 했고 천차만별 생명들의 모습들이 다 그 나름대로 전달하

☞22면으로 계속

한국불교 비구니계의 산 역사!
광우 스님의 출가 70년, 포교 50년 이야기

교보문고 추천도서



전국비구니회관 건립 당시 85억을 쾌척했던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과의 인연이야기
일제 강점기 출가했던 도반들의 이야기
비구니로서는 최초로 4년제 대학에 입학했던 이야기
한국불교 비구니로서는 최초로 조계종 명사법계를 품서한 이야기 등
살아 있는 한국불교 비구니계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비구니로 태어나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

광우 스님과의 대담 ✦ 인터뷰 최정희(전 현대불교 편집국장) | 조계종출판사 | 396쪽 | 14,800원

광우 스님은 이 책에서 "한 번도 평범하게 사는 삶이 부럽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야말로 수행자의 표본이다. – 「조선일보」

광우 스님의 출가 70년 이야기는 굽이굽이 새긴 한국 비구니史 그 자체다 – 「한국일보」

종단에서 비구니의 위상이 일천하던 시절 출가해 '나 한몸부터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수행 본분을 지켜온 한국 비구니계의 산증인 광우스님의 회고록 – 「서울신문」

일제 말기 여승들이 정신대로 끌려가지 않으려 환속하거나 심지어 은사 스님들의 강권으로 결혼해 뿔뿔이 흩어지자 혼자가 돼버린 이야기 등 첫 장부터 가슴을 애잔하게 한다. – 「세계일보」

광우 스님 수행 · 포교 이야기로 불교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도 쉽게 읽을 수 있다. – 「매일경제」

동국대 불교대학에 입학하고 남자 옷 차림으로 대학을 다닌 일 등 다양한 일화가 담겨 있다. – 「한국경제」



『조계종출판사』는 삶의 곳곳에 존재하는 불교의 향기를 한 권의 책으로 소중히 담아내겠습니다.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 8층 | Tel 02-733-6390 | Fax 02-720-6019 조계종출판사 인터넷 아름다운

buddhanews.com

누구든지 자기 뿌리와 더불어 마음을 밝혀야!

☞21면에서 계속

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이면 미국말 하고 일본 사람이면 일본말 하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 하듯 다 자기네들끼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이 다 말을 하고 전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출한 거는 뭐냐? 말 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하는 도리입니다. 이게 정신계의, 바로 중용의 진리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돌아가는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의사나 과학자나 천체물리학자가 자기 소임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들을 걸림 없이 타개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거는 일체 우주 삼천대천세계 모두가 가깝고 멀고가 없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병원만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학술 이론 등 지금의 지식이나 의학계의 모든 거를 동원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100%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온 줄을 알아야 그 병도 어디서 온 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신계의 50%를 충당할 수 있고, 거기에 물질로써 커버하고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의료상의 50%가 종합돼야 우리가 100%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도 그렇고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도 다 그러합니다. 기계 하나를 만들어 놔도 그 사람의 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장승을 하나 세워 놔도 장승 세워 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혼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고 오면서 보고 생각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거기 투입이 돼서 다 신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조성을 해서 저렇게 모셔 놓으면 그 모습만 봐도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마음을 거기다 다하기 때문에 여래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다면 부처님도 안 계신 거고 부처님이 안 계시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내는 것이 없다면 목석이 될 것이고, 체가 없다면 무효일 것이고, 정신계의 근본이 없다면 바로 또 무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는 아주 높은 데고 낮은 데고 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무엇이 무엇을 지켜보는가?

문 관한다고 함은 곧 지켜보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무엇을 지켜보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생각, 자기의 마음이 현재 상태를 지켜보는 것인가, 마음으로 마음을 지켜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놓고 가는 것인가요?

답 마음이라는 건 허공과 같아서 마음이 요거 한 가지를 생각했다면 고정되게 그거 한 가지만 딱 물려서 있는 것이 아니죠? 요 마음으로도 화할 수 있고 저 마음으로도 화할 수 있죠? 금방 딴 사람 만났으면 금방 화하고, 또 딴 사람 만났으면 금방 화하고,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로 자기 주인공에게, 자기 마음 근본에다가 딱 놓고 자기가, 자기 마음이 지켜보는 거예요. 마음이라 그러는 건 이름이에요. 그러나 수천수만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보는 것이 참선(禪)이에요. 그리고 관법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한번 실험하려면, 밥을 짓는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무엇을 하나 해도 실험해 보려면 한번 넣고 지켜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모든 것을 그렇게 거기 맡겨 놓고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거기 놓고 지켜보는 마음을 가지면 바로 그게 실험이요, 그것이 지나가면 바로 체험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놓고 관하고 지켜보고, 관한다는 게 지켜보는 거니까 둘 아닌 지혜로운 마음으로 거기다 맡겨 놓고 지켜본다. 지켜보면 체험이 되고 체험이 되면 '아, 고놈이로구나! 고렇게 되는 거로구나!' 하고 그때는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죠.

> **칠석날 촛불을 켠다 이런 것은**
> **우리가 마음의 밝음을 그대로 연결해서 내가 밝아짐을 말하는 겁니다.**
> **그래서 칠석날은 산 사람이 촛불을 밝히듯이**
> **내 마음을 밝혀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익과 욕심에 끄달릴 수밖에 없는데

문 선원에서 스님께 배울 때는 모든 것을 놓으라고 배우지만 직장에서 일할 때 또 가정에서 문제에 부딪칠 때는 자기에게 이익 되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마음자리에 두지 못하고 이익과 욕심에 끄달려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도 이익과 욕심에 끄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행과 생활의 양극단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답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좀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사람이 안 온다 온다 이런 문제들, 뭐 잇속을 찾는다, 이익이 부진하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아,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이러는 사이가 없고, 깨치지 못한 자는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살생이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증득해야 알아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무조건 믿고 거기 맡겨 놓고 지켜보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에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몇만 냥을 벌더라도, 또 욕심을 내서 생각을 내서 '저걸 벌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나도 당신 혼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수십억의 의식들이 한데 모여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묘한 법은 여러분이 아마 열심히 해야 아실 겁니다.

지금 내용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야, 나가서 장사를 하거나 회사에 다니거나 또는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남과 같이 돈을 벌어야 살 수 있고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데, 다 놓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갑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번 뒤바꿔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 걸어오실 때에 그냥 서서 걸어오라는 게 아니거든요. 걸어오긴 했는데 발자취를 하나도 짊어지고 온 게 없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돈벌이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 아래에서 걸어오실 때에 발자취를 걸머지고 오셨습니까? 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로 믿는다면, 고꾸라지든지 가든지 오든지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거기다가 턱 맡기고 그냥 진짜로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한다면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돈이 많이 벌려도 걸림이 없고요, 돈이 안 벌려도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기 때문에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까닭에 그렇지 않을까요?

간단히 생각하세요. 돈을 수만억을 번다 하더라도 걸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 혼자 갖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번 것도 아니고 혼자 가질 것도 아니고 혼자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 걸려요? 내가 또 많이 번다고 하는 '내가'라는 생각이, 나를 내세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지 내 한마음이라는 주인공에서 본다면 아이, 그렇게 나가 많은데, 일체가 다 나 아님이 없는데 구태여 왜 거기 걸립니까? 그러니까 선지식들은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죽인 걸어오긴 틀림없이 걸어왔는데 걸어온 사이가 없다. 내가 짊어지고 온 게 아니니까. 벌이는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걸어온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되 자기가 했단 말 하지 마라,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두가 공용으로 했다고 생각하라 이겁니다. 주인공에서 모든 것을 공용으로 한 것이지 자기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동시에 우리가 걸음을 걸어왔는데,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떼어 놓고 걸어오긴 했는데 걸어온 자취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혼자 걸은 게 아닙니다. 여럿이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왔지 아마 위 공장 하나만 그냥 파워가 일어나도 다리도 떼어 놓지 못하고 걸어오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한 거니까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걸림이 없어요. 그 사이가 없고, 깨치지 못한 자는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살생이 된다 그랬어요. 말로는 할 수 없는 묘한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서 알아서 하세요.

칠석과 백종에 대한 신도와 스님의 역할

문 얼마 전 현대불교신문에서 그토록 활발했던 부산지역 대학생 동아리들이 숫자가 줄어서 전체 인원이 20명밖에 되지 않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렇듯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와 정신세계에 대한 관심이 전무한 이런 시기에 칠석과 백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그리고 신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스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부처님 가르침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을는지요?

답 해마다 '칠석(七夕)'이 돌아옵니다. 칠석날! 일체 만물만생이 둘이 아닌 고로 종합적으로 여래라고 하는 거와 같이, 칠석이라는 이름은 종합된 이름입니다. 칠석! 그러면 또 칠성은 무엇인가? 그거는 개개인들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떼려야 뗄 수 없듯이, 성 자체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성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칠성은 개개인의 성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과 성을 종합해서 칠성이라고 이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북두칠성도, 어떠한 별성도 이 우주 천체가 우리 마음에 직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살 수 있게끔 하는 도리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끔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유스럽게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유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못 쓰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칠석날 촛불을 켠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마음의 밝음을 그대로 연결해서 내가 밝아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석날은 산 사람이 촛불을 밝히듯이 내 마음을 밝혀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서 싹이 났는데 그 싹은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칠석날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자기 뿌리와 더불어 마음을 밝혀라 이런 뜻입니다.

백종(百種)은 왜 생긴 건 줄 아십니까? 백종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백종입니다. 씨가 아직 땅속에 들어가지 않은 관계상 여러 신도님들은 부모를 위해서나 자기를 위해서나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씨는 다 마찬가집니다. 싹은 났으되 자기의 그 씨를 모르니까 말입니다. 살아 있을 때에 그 씨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싹으로 그냥 있는 줄 알고 허공중에 헤매는 조상들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신도님들이 밭을 갈고 흙을 고르고 물을 촉촉하게 해 놓으면 스님네들은 씨를 심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씨가 바로 싹이 되고 할 때에,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천도재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염불만 해서 천도가 되는 게 아니고 씨가 심어지는 게 아닙니다. 씨를 어디다 심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죠. 또 씨를 심었다 하더라도 자기 씨에서 싹이 났다는 거를 그 조상의 영이 스스로 알 수 있게끔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님네들의 소임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도 은연중에 자기 뿌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손들이 그렇게 해 놓으면 스스로 자기 마음의 뿌리도 알게 될 것이며 조상들도 마찬가지여서 양면이 다 알게 됨으로써, 즉 말하자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냥 절에 와서 촛불이나 켜고 향이나 피우고 물이나 떠 놓고 꽃공양이나 하고 "난 절에 갔다 왔어." "나는 불교를 믿어."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진 걸 알고, 자기로 인해서 공용을 하고 돌아간다는 거를 알아야만이 제대로 불교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뿌리와 자기 싹은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스님네들은 스님네들대로 물을 촉촉히 주면서 '마음을 밝혀서 네 뿌리를 보아야 된다. 네 뿌리가 일체 살림을 하고 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 들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권 선 문

이 어려운때, 불사를 시작하여 동참을 권선하니 한편으로 죄송스럽기도 하나,

이럴때일수록 평상심을 유지하여, 더욱 정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빈도는 경남산청, 천룡이 감싸 외호하는 구인산(具仁山) 금관봉(金冠峰) 높은 곳에 터를 잡고 '불 세계'를 함께 열고자 합니다.

지금, 화주도 시주도 없고, 전화는 물론 지하수도 전기도 컨테이너박스마저 없고, 인도만 있는 청정본연 그대로 입니다.

여법하게 수행하여온 고참납자이거나 치성한 오탁악세의 험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불자의 정성을 여기에 모으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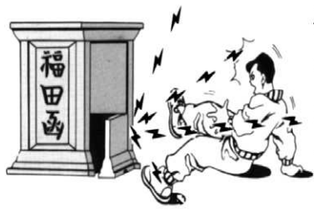
태고 보우국사 제20대(사명대사 제13대)
정맥법손 석 보각
010-2317-0379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불자 세상보기

편 부 경
한국시인협회 독도지회장

독도, 이름보다 고독하다

몇 년 전 독도주민의 재 거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부처를 상대로 어로작업에 필요한 쪽배 한척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을 넣은 일이 있었다. 각 관계기관으로 이첩되어 돌아온 답은 '불가'였다.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국민모금을 하기로 했다. 그러기를 1년, 각계에서 답지한 의미 가득한 성금과 기계후원 등으로 1.3톤의 작지만 큰 배 '국민의 배 독도호'가 만들어졌고 주민에게 기증되었다. 2005년 3월 시마네 현은 억지주장의 본색을 드러내며 의회에서 매년 2월 22일을 독도의 날(그들이 부르는 이름은 예를 들기에도 진저리가 쳐진다)로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그날 포항부근 양포항에서 '독도호' 진수식을 가졌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06년 2월부터 원래 주민이던 부부가 독도에 재정착해 그나마 유인도로서 첫 걸음을 떼게 되었다. 그리고 2008년 7월 독도의 현주소를 돌아보면 달라진 내 외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저들은 시도 때도 없이 억지주장의 망언과 역사왜곡의 버르장머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생각해 보건데 일본의 얕은 수가 읽히기는 한다.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 인정받기 위한 정치꾼들의 속셈 이라는 추측에 힘이 실린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독도라는 엄연한 고유영토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슈가 되어야만 강력한 대처라는 등의 말매만 난무하고 시간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흐지부지 넘어가 버려 일관성 있게 실행된 정책이 독도관련해서 이뤄진 적이 거의 없다고 본다. 처음부터 따끔하게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눈빛 하나 넘보면 그 때마다 철옹성을 쌓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더라면, 섣불리 자신들의 정치적 인기몰이를 위해 남의 땅을 집적거려보는 따위의 오만방자함이 오늘까지 이르렀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그러나 늦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적기일 것이다.

크고 폼 나는 것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작고 사소한 듯해도 주민이 재상주하면서 가져온 변화를 답안삼아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긍하는 일이면 차근차근 길을 짚어가야 할 것이다.

하루 200명에서 400명이었다가 최대 1880명까지 독도에 일일 입도객을 늘렸지만 실상 애국심 가득한 심성으로 어렵사리 찾아가는 독도는 계절이나 기상여건에 따라 접안조차 할 수 없는 날이 많다. 현재 선착장 시설의 반대편에 선착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섬의 좌 우안으로 해안산책로 등을 설치해서 정상까지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잠시 머물며 자국의 영토사랑에 진한 발자국을 남기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일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상주인구를 다가구화 하여 서류상의 행정구역 분류가 아닌 사람사는 소박한 섬마을의 모습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등재된 주민부터 차례로 상황이 갖춰지기 이전이라도 주거의 자유와 거주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일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짚어보라. 보호구역이라 해도 관련된 여러 기관을 단일화해 어떤 일을 추진하더라도 걸림돌이 없도록 책임부서를 신설하거나 지목해야 한다. 현재 연구기관이 있지만 인원을 더 확충하고 지원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역사발굴 등과 관련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공무원 역시도 전담 부서가 있지만 임기를 채우고 옮겨 앉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독도관련해서 만큼은 지향해야 한다. 이는 사소한 듯하지만 사실상 필요한 일임을 10년 가까이 울릉독도를 드나들며 경험에 의해 깨달은 내용이다.

독도는 이름처럼 돌섬이 아니며 고독한 곳이어서도 절대 안 된다. 국민의 단합된 의지가 서려있고 민족성의 상징처럼 우뚝한 백두대간의 뿌리인 것이다. 영토는 지켜질 때 의미와 가치를 가지며 이는 민족적 사명이다 망설일 시간이 없다. 눈치 볼 틈을 갖지도 주지도 말아야 한다. 끝으로 며칠 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 제안서를 접수했는데 처리기관이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 일본과'로 되어 있었다. 이 시점에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인가? 아직 독도는 외롭다. 독도 주민도 외롭다.

社說

독도침탈 불교계는 침묵?

일본의 독도침탈 도발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야말로 '심심풀이'처럼 해대는 영토침탈 발언과 조치들 앞에서 우리 국민은 거듭거듭 아연실색할 뿐이다.

그런데 또다시 어이없는 일을 당한 불교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 100년 전 일제 강점은 우리민족 전체가 겪은 수난과 고통이었지만, 그때 불교가 입은 피해도 적지 않다. 그 역사의 흔적이 아직 다 지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토침탈의 도발 언행이 거듭 묵과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을 도와주는 꼴이다. 100년 후의 후손들을 생각해 보라. 후손들이 독도문제를 오랜 분쟁의 하나로 인식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는가?

지금의 독도 문제는 과거사가 아니라 미래사란 관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불교계의 침묵은 한 사회의 정신을 이끌고 미래의 가치를 창조해내야 할 종교 본래의 소임에 대한 수수방관에 다름 아니다.

만해 스님은 일제 강점기라는 고난의 현실에서 초인적인 자세를 잃지 않았다. 자유와 평화를 향해 불타오르는 의지를 문학으로 실천운동으로 세상에 흩뿌렸다. 그래서 오늘날 만해의 정신은 우리 민족의 좌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스승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학이 되려면 누구보다 당당하게 주권 영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구국기도회도 좋고 독도 지키기 100일 기도, 108배 정진 등 불교계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동원해 나라 땅 지키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여름휴가 '놀기' 보다 '보람'을

이제 본격적인 여름휴가에 돌입했다. 우리 국민에게는 참으로 길고 긴 봄이었다. 그런 만큼 힘겹게 초복 이전의 더위를 감당해야 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 값을 따라 줄줄이 오르는 물가들. 금리 인상과 반 토막 나는 펀드들. 연일 이어지는 각종 시위와 사건 소식들….

지금 우리 사회는 진정으로 휴식을 요구하고 있다. 들끓는 욕망의 휴식 말이다. 고유가 시대를 이겨내는 지혜, 각자 분출해 내는 욕구를 통합하는 지혜, 개인주의와 금권만능을 극복하고 대동화합의 사회를 형성해내는 지혜가 절실하다.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쉼에서 온다. 온갖 욕심을 쉬고 들끓는 번민을 쉬지 않으면 청정한 지혜를 구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수행이란 하고자 하는 마음마저 버려야 하는 것이니, 진정한 쉼을 추구하는 마음마저 버릴 만큼의 경지를 터득할 수 있는 불자가 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화두를 들어야 한다. 보람으로 회향될 수 있는 일에 온 마음을 집중해 보자. 가장 좋은 것이 봉사활동이다. 나보다 힘겨운 사람이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다. 그들을 위해 온 마음을 바쳐 나를 던져 보자. 거기서 들끓던 욕망은 잠들 것이고 불안은 사라져 새로운 힘이 솟을 것이다.

놀기 위한 휴식이 아니라 살기 위한 휴식을 갖는 지혜, 제대로 쉬는 지혜가 필요하다. 올 여름 휴가는 제대로 된 쉼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베푸는 마음 주셔서 감사해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⑦3 조폭 법우의 아름다운 보시

닫힌 마음에 믿음을

"선생님, 자랑할 게 있는데요."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음성에 갑자기 목이 멜 것 같다. 출소한 20대의 법우였다. 그동안 힘든 일들이 겹치고 있었다. 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며 한숨을 쉬곤 했었다. 그래서인지 자랑할 만한 일이 있다는 소리가 왜 이렇게 반갑게 들리는지 모른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20대의 그는 가족과 연락을 안 한 지 이미 오래, 10대 때부터 소위 말하는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몇 년 전 불교봉사자들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마음을 굳게 닫고 있었다. 종이에 무엇을 써보라고 하니 "전 글 쓸 줄 모릅니다"하며 반항에 찬 눈빛이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그 후 매사에 그런 식이었다. 도대체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점차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어느 날부터는 만나면 굳어있던 얼굴에 반가운 웃음이 피어났다. <반야심경>도 자진해서 외우고 숙제도 열심히 써 왔다. 우리가 가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놓고 한 달 내내 기다린다는 말도 하였다.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가슴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상에는 이기적인 사람만 사는 줄 알았다고 했다. 항상 자기 먼저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앞세워야만 옳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을 몰랐다고,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고 싶다고 하였다. 그의 얼어붙었던 가슴에 조금씩 신뢰와 사랑이 싹트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다.

사는 게 힘드네요

그의 가장 큰 문제는 그대로 두면 출소해서 20대 중반의 나이에 또 같은 생활을 반복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돌아갈 가정도 없고 다른 일을 해 본 경험도 없고. 우리가 너무 걱정을 하니 오래 알고 지내는 사형수 불자 중 한 사람이 그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겠다고 했다. 사정을 듣고 보니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바로 예전 젊은 시절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그 길을 계속가면 나중에는 자기처럼 될 것 같아 걱정된다고 하였다. 그가 써준 감동적인 편지를 법우에게 읽어 주었다. 효과는 대단했다. 직접 같은 길을 걸어 본 사람의 살아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법우는 고민을 거듭하더니 드디어 새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나가서 돈 벌면 꼭 교도소봉사를 도와드리고 싶다는 말도 반복하였다.

그러나 출소 후의 생활은 무척이나 힘들었다. 일단 간신히 예전 일에서는 벗어났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다. 갖은 일들을 하면서 힘겹게 버텨오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에서 택시기사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돈 많이 벌려고 24시간 일을 했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12시간 교대로 합니다." 그는 가끔 전화로 소식을 전하였다. 지난번처럼 "선생님, 정말 사는 게 힘이 드네요"하며 전화를 할 때는 아, 엄마에게 해야 할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더욱 가슴이 아팠다.

저도 불자예요

오늘은 자랑할 일이 있다니 얼마나 반갑고 이쁜지, 그러면서도 그의 힘든 상황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려고 한다. 아주머니 손님에게 택시비를 안 받았다는 것이다. 00사찰까지 간다고 하여 태우고 가면서 대화를 했다. 알고 보니 형편은 어려운데 큰일이 생겨 절에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다. 그래서 '저도 불자예요' 하면서 택시비를 안 받았다는 것이었다. 아주머니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며 힘없이 내렸다.

"만 육천 원인데 안 받았어요" 하는 음성에 자기도 누군가를 도와주었다는 기쁨과 힘이 가득 실려 있다. "그래, 참 잘 했다. 정말 잘 했네. 그런데 그래도 괜찮니? 요즘 수입도 적을 텐데. 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에"하는 대답이 흐리다. "어떻게 잘 먹겠니. 택시하려면 시간 맞추어 먹기가 힘들잖아. 너무 돈 아끼려고 하지 말고 식사는 꼭 챙겨야 돼. 제발 건강 좀 생각해라."

자기도 힘들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니, 예전의 그였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가 받지 않은 그 택시비는 바로 부처님 전에 올린 보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얼었던 그의 마음에 피어난 불성의 빛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것이다. 부처님, 그에게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베푸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그를 지켜주시고 훌륭한 불자로 거듭나도록 보살의 마음 꽃을 활짝 피워주소서.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관음출판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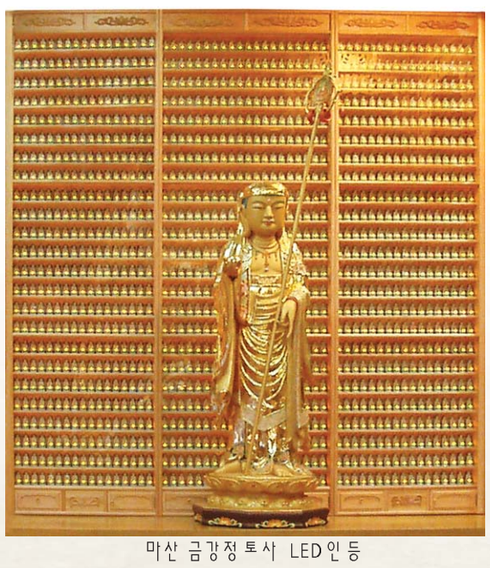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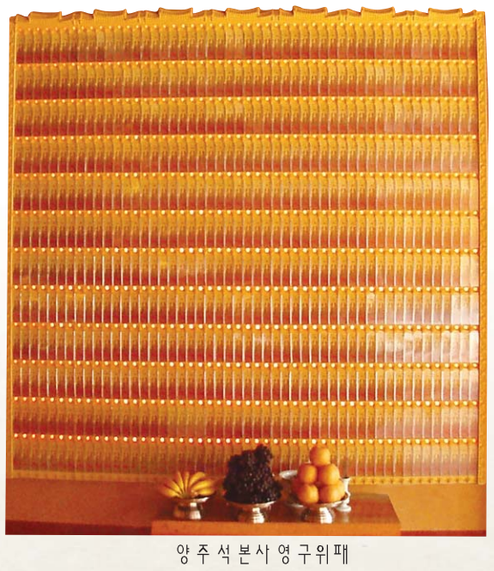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천안 동심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양주 석본사 영구위패


공 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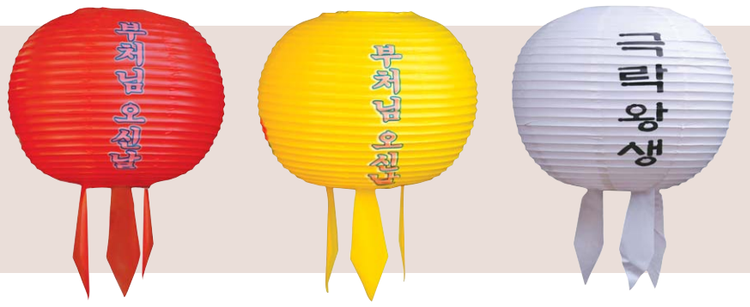


팔각 봉축 접등



왕생극락 접등


칼라(보카시)연등



주름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육각조립등


청사초롱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_ 대구장성사


연등자동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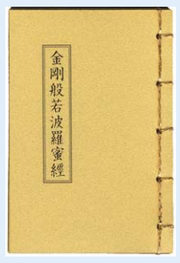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용 소장 영가천도

실물크기 (소)3.5×5cm (중) 5×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병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현대불교

불기 2552년 buddhanews.com

서기 2008년 7월 23일 수요일 제 689 호

여름 특별기획 섹션 1



절망 닦아낸 태안반도에서

희망을 만나다

올 여름 태안은 '보람'과 '정진'의 화두가 성성적적(惺惺寂寂)한 도량이다.
2007년 12월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은 태안 주민과 국민들에게 절망의 사건이었다.
7월 어느날 찾은 태안은 120여만명의 정성이 기적을 이룬,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희망의 공간이다.
태안반도 만리포 해변에서 만난 갈매기 한 마리가 소설 〈갈매기의 꿈〉의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내가 공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뿐"이라 말한 갈매기 조나단의 창조와 도전 정신은, 살을 에는 바닷바람 맞으며 기름을 걷었던 자원봉사자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이었다.
자비와 수행은 중생과 부처를 잇는다. 태안에 가면 중생도 부처도 한 몸이다.

글=조동섭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지면안내 ▶1~2면 태안반도에서 여름을 ▶3~4면 33관음성지 가볼까? ▶5~6면 봉사활동으로 보람찬 여름나기 ▶7면 불교출판협회 사장들이 권하는 '피서지에서 읽을 만한 불서'

기름 걷힌 바다에서 청정한 마음자리를 찾다

1300리 바닷가가 들쭉날쭉하게 펼쳐진 태안은 해안 풍광이 일품이다. 꽃지 · 어은돌 · 파도리 · 장돌 · 바람아래 등 해수욕장 이름도 정겹다. 눈앞에 펼쳐진 황금빛 백사장, 귓가에 맴도는 철썩이는 파도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 신선한 바다내음과 함께 가슴속 깊이 퍼지는 소나무향도 아름다운 태안이지만, 태안에 가면 태안마애삼존불을 비롯한 산사가 불자들을 반긴다.

#1. 태안에서 가볼만한 사찰

●태안마애삼존불 미소와 함께 하는 태을암=백제의 미소, 마애삼존불이 태안에도 있다. 태안읍 백화산에 오르면 태안마애삼존불(국보 제307호)을 만난다. 태안 마애삼존불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미술품으로 마애불의 효시다.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보살입상을 중심으로 양옆에 자리한 얼굴에 살짝 번지는 미소 띤 여래입상은 일반적으로 중앙의 여래불을 주존불로 좌우에 협시보살이 있는 것과 달리 세계에 유래 없는 하나뿐인 도상이다. 태안마애삼존불이 있는 태을암에서만 만날 수 있는 서해가 한눈에 굽어보이는 전경 또한 태안의 자랑이다.

●은행나무 전설 품은 흥주사=흥주사는 고려 말엽 창건한 고찰이다. 만세루(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3호)와 삼층석탑(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8호) 등과 함께 삽목설화 담긴 10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다. 흥주사 은행나무는 산신령이 꿈에 나타나 절터를 점지해 그 자리에 꼽아둔 지팡이가 자라났다는 나무다. 사슴을 꼭 닮은 900세 먹은 느티나무와 삼나무도 흥주사의 숨은 볼거리다.







산사 분위기 물씬한 서산 부석사(사진 왼쪽)와 태안마애삼존불(오른쪽 위). 수덕사 전경(오른쪽 아래).



●'태평 국운' 발원 담은 태국사=태국사의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다. 백제 무왕 때 창건됐으나 폐사 후 조선 세종 때 태안부사의 현몽으로 '기원 태평 국운(祈願 泰平 國運)'이라 쓰인 금불상을 발견해 다시 사찰을 창건했다는 창건설화가 전해진다.

●죽사 절터 지키는 몽산리석가여래좌상

태안 청계산 기슭 죽사(竹寺) 터에 위치한 석가여래좌상은 1m 정도의 높이로 통일신라시대 불상이다. 결가부좌하고 항마인 자세를 취한 불상의 광배는 보주형, 화염문, 그리고 상부의 좌우는 비천상(飛天像)이 그려졌다.

#2. 태안 인근에는 어떤 사찰이?

●경허 스님 선풍 살아있는 천년 고찰 수덕사=수덕사는 백제 법왕원년(599) 창건했다. 조계종 제7교구 본사로 한말 경허 스님이 머물며 선풍을 크게 일으킨 이래, 만공 스님이 대를 이어 많은 후학을 배출했다. 수덕사의 자랑거리는 대웅전(국보 제49호). 1308년 건축돼 700여년 수덕사를 지켜온 대웅전은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과 함께 현존 목조건축물 중 3번째로 오래된 건물이다.

3층석탑, 범종각, 청련당 등 문화재와 60여년 만에 문을 연 조인선원도 수덕사의 자랑이다. 수덕사에서 1020개 돌계단을 지나면 정혜사가 있다. 수덕사에서 열리는 여름禪수련회와 어린이여름불교학교도 휴가를 보람 있게 보내는 한 방법. (041) 337-6565

●의상과 선묘 설화 간직한 부석사=서산 부석사는 영주 부석사와 이름도, 창건설화도 같다. 영주 부석사에 비해 아담한 규모지만 고찰의 고즈넉함은 여느 사찰 못지않다. 도비산 기슭 부석사 도량에서 보이는 천수만 전경과 낙조와 어울린 짜임새있는 템플스테이 또한 부석사의 자랑이다.

●마음이 열리는 개심사=개심사는 <나의문화유산답사기>에서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이 5대 명찰로 꼽은 곳이다. 연못 위 외나무다리를 지나며 대웅보전(보물 제143호)과 심검당, 요사 대들보를 만나고 나면 아늑하고 정갈한 사찰 분위기에 흠뻑 젖는다.

●백제의 미소 서산마애삼존불=백제의 미소로 알려진 서산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 보호각 철거와 복원공사를 마치고 43년 만에 미소를 찾았다. 서산마애삼존불은 6세기말~7세기초 조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원사지와 보원사=백제시대 사찰로 추정되는 보원사 절터다. 서산마애삼존불 인근 보원사지(사적 316호)는 현재 발굴 진행중이다. 보원사지 당간지주(보물 제103호)와 현존 석조 중 가장 큰 보원사지 석조(보물 제102호), 보원사지 5층석탑(보물 제 104호), 보원사지 법인국사보승탑(보물 제105호)과 보승탑(보물 제106호) 등 여러 문화재가 있다.

보원사지 옆 보원사(주지 정경)는 수덕사 말사로 등록된 곳이다. 보원사 정경 스님에게 듣는 내포 가야산 이야기도 재미있다.

글=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태안 반도 찾아가는 길

◆승용차
- 서울 출발: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IC, 해미IC, 홍성IC -태안 (2시간 소요)
- 대전 출발: 공주-청양-홍성-서산-태안 (3시간 소요)
- 광주 출발: 전주-군산-서해안고속도로-홍성IC-AB지구 방조제-태안 (4시간 소요)

◆열차 (www.korail.go.kr)
장항선: 홍성역 하차, 홍성-태안간 시외버스 이용
경부·호남선: 천안역 하차, 천안-태안간 시외버스 이용

◆시외버스 (태안터미널: 041-674-2009)
동서울,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출발 (2시간 10분 소요)

◆태안에 가면 맛보세요

7월에는 박속낙지탕이라 불리는 밀국낙지와 해삼물회를 비롯해 꽃게장백반, 낙지전골, 전복구이(죽, 찜) 등이 좋다. 8월에는 오징어, 붕장어통구이와 밀국낙지, 해삼물회, 낙지전골, 농어가 제철이다.

◆태안정보 궁금하면 이곳에서

태안군(www.taean.go.kr) 문화관광과 (041)670-2544

"관광객 늘수록 희망도 커져요"

인터뷰 진태구 태안군수



"이제 태안은 깨끗해졌습니다. 올해 피서는 태안으로 꼭 와주십시오. 태안군은 여러분께 아름다운 볼거리와 안전한 먹을거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의 상처를 씻고 6월 27일 서해안 최초로 만리포 해수욕장이 개장했다. 태안지역 행정부 수장으로 '태안의 기적'이라 불리는 기름유출 사고 복구작업을 현장에서 지휘한 진태구 태안군수(사진)를 만났다.

진 군수는 "120여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찾은 태안반도가 점차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고 있다. 푸른 파도와 은빛 모래를 되찾은 해안가에 관광객이 늘어 감개무량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진태구 군수는 "늘어나는 관광객만큼 태안 주민들의 희망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만리포 등 기름유출 피해 해수욕장 개장이 섣부르다는 일각의 여론에 진 군수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민·관 연구기관 실시자료 결과는 구름포를 제외한 전 해수욕장이 개장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태안군이 한국해양연구원과 부경대 등에 연구용역한 결과와 국토해양부 훈령에 의한 수질검사에서도 태안반도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안전하다는 발표도 있었다.

진태구 군수는 "무엇보다 해수욕장 번영회 등 주민들이 해수욕장 개장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진 군수는 "지난 겨울 보여준 국민의 힘으로 태안이 다시 살아났다. 올 여름 가족과 함께 태안을 찾아 '태안의 기적'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깨어있는 휴식"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모악산 금산사 여름 템플스테이

금산사는 14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사찰의 산문을 열고 한국 사찰의 전통문화와 불교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08 금산사 여름템플스테이 일정

제 3차	2008년 8월 1일 ~ 3일 (2박3일)	초등3학년이상(30명),5만원,금산사 여름캠프(초등)
제 4차	2008년 8월 8일 ~ 10일 (2박3일)	중학생(30명),6만원,금산사 여름캠프(중등)
제 5차	2008년 8월 15일 ~ 21일 (6박7일)	20세이상 누구나(50명),20만원, 수행-禪나를깨치다
제 6차	2008년 8월 23일 ~ 26일 (3박4일)	20세이상 누구나(50명),12만원, 수행-禪나를깨치다
제 7차	2008년 8월 27일 ~ 31일 (4박5일)	20세이상 누구나(50명),15만원, 수행-禪나를깨치다

접 수 방 법 : http://sansa.geumsansa.org 홈페이지 참여신청란입니다.
접 수 문 의 : 010-6589-0108 / 063)548-4440~2 / Fax 063)548-1390 / geumsansa@hanmail.net 금산사 템플스테이 담당자 : 일체향
입금계좌번호 : 농협 525133-51-001751 (예금주:금산사)
준 비 물 : 등산화,우의,배낭,개인물통,모자,샌달,수건,여벌의옷,작은후레쉬(손전등),개인세면도구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미륵성지
모 악 산 금 산 사



태안으로 오세요~

120여 섬이 1300리 해안길 따라 어우러진 태안의 풍광과 낙조를 보셨습니까?
올 여름 태안에서 '기버'와 '수행'을 실천하세요.

태암사암연합회 회장 혜연 합장

홍주사

홍주사 은행나무를 아십니까? 홍주사 만세루 앞의 은행나무는 높이 22m, 둘레 8.5m에 달하는 나무로 900살 입니다.
태안군에서 가장 오래된 노거수(老巨樹)로서 900여년 세월 만큼 많은 전설이 있습니다.
홍주사를 찾아 은행나무 전설을 만나보세요.



태을암

태안 8경 중 으뜸으로 꼽히는 백화산(白華山 · 284m) 중턱에 자리한 태을암에는 태안마애삼존불(국보 307호)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백제의 미소를 태안에서 만나보세요.

더위 비켜! 올 여름 '봉사 삼매'에 풍덩~ 빠져봐요



무더운 여름. 피서철을 맞아 보다 특별하고 알차게 더위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것은 자기의 행복을 가꾸는 밭이 된다<범망경>'고 했듯이 한마음 돌려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면 불자로서 행복하고 속까지 시원한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 많은 곳에서 자원봉사의 손길을 기다리지만 무턱대고 자원봉사를 할 수는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떤 봉사를 해야 할까?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대가나 보수를 바라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단순 노력봉사라도 남을 위해 일할 때는 단정한 복장과 고운말 등 전문분야 봉사 못지않은 의식이 필요하다. 일부 자원봉사는 까다로운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감수해야 한다. 교육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의식과 정보가 부족해 실제로 자원봉사를 지원했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반드시 교육과정을 이수해 활동에 필요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올 여름. 불자로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불교복지시설들을 소개한다.

호스피스 봉사는 전문교육과정 이수 필수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선행돼야

무의탁 어르신 봉사

젊은 사람들은 휴가철이 오면 산과 바다로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무의탁 어르신들은 휴가철이 되면 더욱 외롭다. 무의탁 어르신을 위한 자원봉사가 절실하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자원봉사자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중·고등학생 여름방학 자원봉사학교 개최, 무의탁 어르신 가정방문, 경로당 방문 말벗봉사 등을 진행한다. 연꽃마을에서는 밑반찬 배달봉사 등을 진행하고 이러한 자원봉사를 통합관리, 봉사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호스피스 봉사

환자의 안정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돌봐주는 호스피스는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불교계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요양센터와 연계해 호스피스 수요와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는 호스피스교육과정을, 정토마을에서는 제27회 호스피스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수료 후 병원에서 자원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등 주변 환자를 돌보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청소년·아동교육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로 인해 왕따, 집단성폭행 등 청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범죄는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가정방문 및 학습지도에서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가정의 따듯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기 사회성 향상을 위한 청소년캠프를 개최한다. 부산용호사회복지관에서는 한부모가정 아이들에게 방문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장애인 봉사

장애인 봉사는 장애와 비장애 친구들이 어우러져 활동 함으로써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한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 비장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구야 놀자' 프로그램을, 구로장애인복지관은 'Open Mind 여름캠프'를 진행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여름계절학교를 개최한다.

노숙자·의료봉사

의료봉사단 '반갑다 연우야'는 의료소외계층을 찾아 이동 진료 및 치과진료 등 의료봉사를 행하고 있다. 보현의 집에서는 실직으로 인해 소외되고 힘든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줄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급식지원과 이·미용 봉사, 일거리 연결봉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선재의료회는 서울역과 봉은사 등에서 노숙자를 위한 의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전국 불교복지시설

지역	기관명	활동내용	전화번호
서울	서울노인복지센터	정기자원봉사교육 및 탑골급식봉사	(02)739-9501
	광진노인복지관	치매보호센터 봉사	(02)466-6242
	구로종합복지관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봉사	(02)852-0525
	은평노인복지관	독거노인방문 봉사, 청소년 캠프	(02)385-1351
	서울시립노인요양원	노인 목욕 및 청소	(02)939-6176
	성북노인복지관	독거노인방문 봉사	(02)929-7950
	신길사회복지관	독거노인방문 봉사	(02)831-2755
	삼전사회복지관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봉사	(02)421-6077
	길음사회복지관	노인 이미용, 수지침	(02)985-0161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목욕	(02)989-4215
	승가원장애아동센터	장애아동센터 봉사	(02)928-0750
	능인사회복지관	저소득아동 학습지도	(02)571-2988
	옥수사회복지관	아동 학습지도	(02)2282-1100
	보현의집	노숙자 봉사	(02)2069-1600
	반갑다 연우야	이주노동자 및 농촌 의료봉사	(02)733-7277
경기	일산노인복지관	노인사회교육	(031)919-8677
	분당한솔사회복지관	밑반찬배달서비스	(031)716-4215
	연꽃마을용인요양원	목욕 이미용 청소	(031)334-3677
	부천원종사회복지관	독거노인 도시락 차량 지원	(031)677-0108
	평택남부복지관	독거노인 식사배달	(031)653-3677
	군포매화복지관	소년·소녀가장 세대 방문봉사	(031)393-3677
	시흥시립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 봉사	(031)441-9114
인천	원종사회복지관	독거노인방문청소	(032)6770-108
강원	강릉장애인복지관	물리치료실 보조	(033)643-1801
	춘천시립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식사배달	(033)255-8866
	원주명륜복지관	장애인 목욕 서비스	(033)762-8131
	강릉복지관	소년·소녀가장 세대 학습지도	(033)653-6375
	속초복지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033)631-8761
대전	법동사회복지관	거동불편노인 도시락 서비스	(042)633-1141
	서구용문사회복지관	노인 의료진료, 이미용	(042)537-0615
충북	제천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목욕 서비스	(043)652-0901
	충북불교자원봉사교육센터	호스피스 활동	(043)298-2258
	청주북부사회복지관	소년·소녀가장세대 학습지도	(043)216-4004
	정토마을	호스피스 교육 및 활동	(043)298-2258
충남	공주 금강사회복지관	밑반찬 배달 서비스	(041)856-6110
대구	햇빛노인복지센터	독거 목욕, 이미용	(053)474-9748
	서구노인복지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봉사	(053)488-6297
	남구종합복지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053)476-7700
경북	영주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목욕 봉사	(054)633-6415
	경주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 목욕 봉사	(054)776-7522
	문경모전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	(054)555-0108
	구미장애인복지관	"주방 보조, 목욕서비스"	(054)457-3172
	금오사회복지관	결식아동 도시락 차량 배달	(054)458-0230
	상주냉림사회복지관	방과 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054)532-5687
	김천재가노인복지봉사센터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봉사	(054)982-0562
	의성노인복지관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봉사	(054)833-6006
	포항학산복지관	이동목욕 서비스	(054)248-6165
울산	남구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조리·배식 봉사	(052)265-5221
	시립노인요양원	치매·중풍 노인 목욕	(052)246-8061
경남	마산중리복지관	저소득 세대 중·고생 지도	(055)231-8017
부산	몰운대사회복지관	독거노인 및 장애인 목욕	(051)264-9033
	낙동사회복지관	밑반찬 배달서비스	(051)271-0560
	공창사회복지관	발달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 활동	(051)363-2063
	양정청소년수련관	인근 복지시설 상시 방문봉사	(051)868-0750
	개금사회복지관	소년·소녀가장 학습방문지도	(051)893-5034
	용호사회복지관	청소년 캠프	(051)628-6737
전남	동여수노인복지관	치매·중풍 노인 목욕	(061)643-1966
	순천 문수복지관	독거노인 도시락 차량 운전	(061)652-4242
	여수시노인복지관	무료 배식 봉사	(061)685-2381
제주	제주양로원	세탁 봉사	(064)747-8337
	청교련청소년봉사센터	독거노인 방문 봉사	(064)725-0108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산사로의 초대

백양사 참사람 템플수련회

참사람의 향기 "수행으로 가꾸는 삶"

허공 끝에 이를 때까지 갖가지 모든 중생계에도 그들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날때까지 제가 그들 삶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입보리행론]

◗ 백양사 참사람 수련회 일정 및 신청 안내 ◖

▣ 수련일정 :

구 분	수 행 기 간	참여인원
1차	7월 24일(목) ~ 27일(일) 3박 4일	60명
2차	7월 30일(수) ~ 3일(일) 4박 5일	60명
3차	8월 7일(목) ~ 10일(일) 3박 4일	60명
4차	8월 13일(수) ~ 17일(일) 4박 5일	60명

▣ 접수기간 : 2008년 4월 25일(금) ~ (정원 모집시 마감)
▣ 참가인원 : 각 차수별 60명 정원
▣ 접수방법 : 백양사 홈페이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참가신청서를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시고 참가비를 입금하여 주십시오.
▣ 참 가 비 : 3박 4일 80,000원 / 4박 5일 100,000원
▣ 문의전화 : 061)392-7502 / 팩스 061)392-2081
www.baekyangsa.org
▣ 입금방법 : 농 협 645117-51-014851 (예금주 : 백양사)
우체국 501536-01-000205 (예금주 : 백양사)
*참가 본인명으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 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입금확인 후 정식 등록이 됩니다.)





고 불 총 림 백 양 사

연등국제선원 여름 템플스테이

강화에 있는 아름다운 절 연등국제선원에서는 여름방학 기간을 맞이하여 일반인과 청소년들을 위한 산사의 자연 속에서 아래와 같이 단기출가(6박 7일 참선집중 템플스테이)및 아비라 기도등의 수련회를 운영하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합니다 .

1. 신청대상

차수	기 간	모집인원	대 상	특 징	신청기간	참가비	기 타
1	2008 7월 21일 ~ 7월 27일 (6박7일)	30명(선착순)	대학생, 일반인	참선집중 "영화미소의 향기"	모집 인원 충원 때까지	20만	
2	2008 7월 28일 ~ 8월 3일 (6박 7일)	30명(선착순)				20만	
3	2008 8월 4일 ~ 8월 7일 (2박 3일)	50명(선착순)	초등생 1~6년	여름 방학 수련회		10만	
4	2008 8월 8일 ~ 8월 11일 (3박 4일)	50명(선착순)	일반인, 학생	아비라 기도		10만	홈페이지, 아비라기도 참조
5	2008 8월 12일~ 8월 14일 (2박 3일)	50명(선착순)	초등 고학년, 중, 고등생	여름 방학 수련회		10만	
6	2008 8월 18 ~ 8월 24일 (6박 7일)	30명(선착순)	대학생, 일반	참선집중 "영화미소의 향기"		20만	

* " 염화미소의 향기"는 매월 넷째주 월~ 일요일 6박 7일간 운영됩니다 . *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ww.lotuslantern.net

2. 신청 방법 : 홈 페이지 www.lotuslantern.net 의 "템플 스테이 Q&A"에 신청글 올립니다.
혹은 팩스 032) 937 - 7034 / 메일 snowyogi68@hanmail.net 으로 접수가능 - 전화문의 : 032) 937-7033
* 참가신청글 올리고 템플스테이 전용계좌로 해당금액을 입금하면 참여 확약 됩니다 .

4. 문의 및 접수처
전화 (032) 937-7033 / 휴대폰 010 5027 7532 / 팩스(032) 937-7034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85-1 연등국제선원

5. 준 비 물 : 속옷/ 운동화/ 세면도구/ 여벌 옷/ 우산

6. 입금 계좌번호 : 농협 171845 -51-006621 예금주 : 정인석 (연등국제선원)

주소창에 연등.net을 치세요.

연등국제선원 주지 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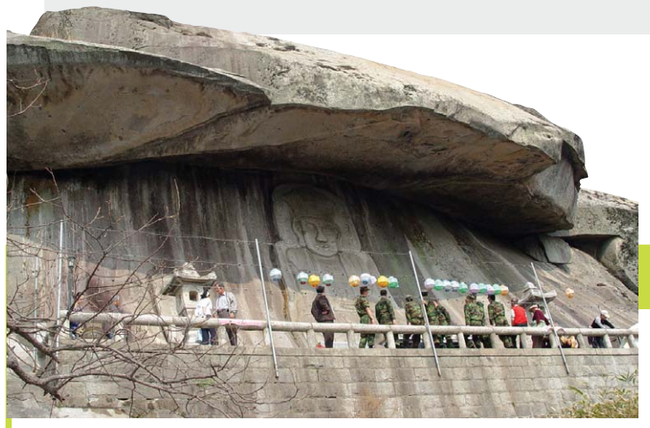
파도소리 듣는 성품을 깨닫자

시원한 바닷바람과 파도소리가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모처럼의 휴가기간 동안 일상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른 바닷물 속에 풍덩 던져버리고 파도소리 들으며 '듣는 성품(聞性)' 깨닫는 소중한 기연을 만들어 보자.

저마다 가진 '바다와 같은 깨달음의 성품(覺海性)'을 망각하고, 보고 들을 때 '반조하는 성품(照性)' 마저 희미해진 우리들. 해조음(海潮音: 파도소리와 같은 부처님의 설법을 상징함) 즉, 파도소리를 듣고 본성을 깨닫는 방법은 없을까. 〈능엄경〉에서 제시하는 수행법인 '이근원통(耳根圓通)' 즉, 일명 '관음법문(觀音法門)'은 소리를 들을 때 '듣는 성품'을 깨닫는 도리를 일러준다.

올 여름 바닷가에 위치한 관음성지나 유명 관음기도도량에서 파도소리를 관(觀)하거나, 관세음보살을 염(念)하는 그놈을 깨달아 보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33관음성지에서 몸과 마음을 쉬며, 이근(耳根)이 본원(성품)으로 돌아가 6근의 해탈을 이루는 관음정근을 해보자.

김성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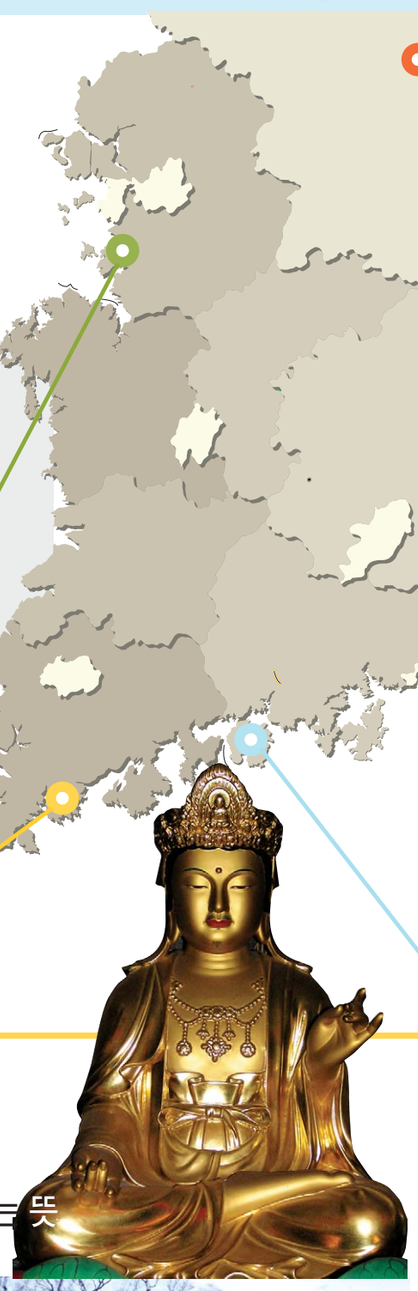


강화 보문사

마애관음좌상 영험 '소문 자자'

보문사는 강화도에 딸린 2개의 큰섬중 하나인 석모도(石毛島) 낙가산에 자리잡고 있다. 신라 선덕왕 4년(635) 창건된 보문사는 당대의 고승 회정 선사가 금강산에서 내려와 개산했다. 창건한 14년째 되던 해 절 아래 바닷가에서 한 어부가 나한상 22구를 그물로 걷어올려 절의 오른쪽 석실(나한전)에 봉안했다고 한다. 낙가산 중턱 눈썹바위 아래 조각된 마애관음좌상은 영험이 뛰어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인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032-933-8272)





여수 향일암

'해를 바라본다' 는 뜻



보리암과 함께 남해 2대 관음도량으로 손꼽히는 향일암은 644년(선덕여왕 13) 원효 스님이 원통암으로 창건, 고려광종 9년(958)에 윤필 스님이 금오암으로 중창했다. 이후 1849년 책육암으로 불리다가 경봉 스님이 절 근처의 기암괴석들이 거북등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영구암이라 명했다. 그러나 현재는 절의 일출이 부처님이 방광을 나투는 듯하여 '향일암'이라 부르게 됐다. 대웅전 뒤 관음전은 원효 스님이 직접 창건한 당우라 전한다. (전남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061-644-4742)

양양 낙산사

의상대 낙산사 최고의 일출 전망대





양양군 북쪽 해안에 자리한 낙산사는 의상 대사가 관음보살의 계시를 받고 671년 신라문무왕 때 지은 절이다. 대사가 동해 용왕으로부터 여의주를 받고 수도한 절벽 위에 세웠다는 의상대는 낙산사 최고의 일출 전망대다. 그러나 정작 더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은 홍련암이다. 홍련암은 관음보살이 바다에서 붉은 연꽃을 타고 솟아오른 자리 옆의 바닷가 암석굴 위에 지은 암자로서 낙산사의 근간이 되는 관음성지다.

남해 보리암

조선시대 왕실의 원당



남해제일의 기도도량 보리암은 수려한 경관의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에 위치한다. 683년(신라 문무왕 3) 온산이 방광하듯한 빛에 끌려온 원효 대사가 절을 짓고 관음보살의 상주처란 뜻을 가진 보광사라고 칭했다. 그 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지리산 여산신의 가르침을 받고 이곳에서 백일기도를 해 새 왕조를 열었다. 당시 절이름을 보리암이라 고치고 왕실원당으로 삼았다. 최근 다시 한번 방광을 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해수관음과 3층석탑이 유명하다. (경남 남해군 상주면, 055-862-6115)

템 · 플 · 스 · 테 · 이

쌍계사 여름 수련법회

■ 일 시 : **2008년 7월 21일 ~ 8월 03일** ■ 장 소 : **팔영루**

1. 주 제 : 본 마음참 나
2. 특 징 : 참선(禪)과 차(茶) 그리고 불교음악(音)의 본고장인 쌍계사의 특성이 어우러져 본 마음 참 나를 발견한다.
3. 일 정 : 제1차 : 7/21(월)~7/24(목)성인 3박4일 (마감 되었습니다)
제2차 : 7/27(일)~7/30(수) 성인 3박4일 (모집인원 : 50명 선착순 마감)
제3차 : 8/01(금)~8/04(월) 성인 3박4일 (모집인원 : 50명 선착순 마감)
4. 회 비 : 10만원(교재포함) 계좌번호 : 농협 833011-51-012551 쌍계사
5. 문의 및 접수 : 쌍계사 종무소 전화 : 055-883-1901~2 / 팩스 : 055-883-6084
이메일 : ssanggyesa@hanmail.net
홈페이지 : http://www.ssanggyesa.net
우편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우편번호 : 667-824)

여름수련법회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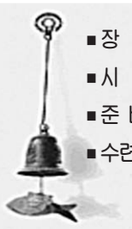
성 명		불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집 : 휴대폰 :
참가일자		성별		준비물	세면도구, 여벌속옷, 고무신



2008년
노고산 흥국사 여름 수련회 안내

약사도량 흥국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자연 풍광이 수려한 천년고찰에서의 산사체험은 수련생 모두에게 커다란 감동이 될 것입니다.

구 분	기 간	대 상	인 원
1차	7월 26일(토) ~ 7월 28일(월) (2박 3일)	초등학생	80명
2차	8월 2일(토) ~ 8월 4일(월) (2박 3일)	중·고등학생	40명
3차	8월 8일(금) ~ 8월 10일(일) (2박 3일)	일반인	40명



■장 소 : 흥국사 설법전
■시 간 : 당일 오후 2시
■준 비 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우산, 개인침구, 공양미, 수영복(초등학생 필히 지참)
■수련회비 : 초등학생 30,000원 / 중 · 고등학생 40,000원 / 일반인 50,000원
T셔츠, 기념품, 기념사진 제공 ※수련복은 배부합니다.
계좌번호 : 신한은행 328-01-165185 (예금주 흥국사)
■접수안내 : 흥국사 종무소 Tel 02)381-7970 / Fax 02)381-7329
홈페이지(www.heungguksa.or.kr)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03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노고산 흥국사 주지 대 오

전국 곳곳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서울 · 경기도

◇**조계사**=조계종 총무원이 자리하고 있는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는 100년이라는 짧은 역사동안 파란만장한 근대 한국불교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1908년 당시 불교계의 대표자들이 현재의 조계사 뒤편 수송공원 자리에 각황사를 창건한 것이 조계사의 출발점이다. 관세음보살상은 극락전 협시보살로 모셔져 있다. (서울 종로구 견지동, 02-732-2115)

◇**용주사**=용주사는 통일신라인 854년(문성왕 16)에 갈양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창건되었다. 병자호란 때 소실된 후 폐사되었다가 조선시대 후기 정조(正祖)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화산으로 옮기면서 중창하고 원찰로 삼았다. 용주사는 정조의 효심으로 중창된 효의 본찰이다. 대웅전에서 관음정근을 많이 한다. (경기 화성시 송탄동, 031-234-0040)

◇**신륵사**=신륵사는 고찰로는 유일하게 강가(여강)에 위치한 명찰이다. 극락보전을 참배한 후 조사당을 들러 나옹 선사의 석종부도, 석종비문을 참배하고 나옹 선사 다비터에 세운 강월헌 누각에 오르는 코스를 추천한다. 관음전이 있다. (경기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031-885-2505)

◇**봉은사**=강남 봉은사는 일제시대에는 서울과 경기 일원의 80여 사찰을 관장하던 본사(本寺)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선종 수사찰(首寺刹)의 위치에 있으면서 한국불교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 미륵대불은 높이 23m로 국내 최대의 석불상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02-545-1448)

◇**도선사**=삼각산의 세봉우리가 멀리 도선사를 감싸듯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천혜의 자연과 멋들어지게 펼쳐진 서울시가지의 전경은 자연히 천혜의 기도처임을 느끼게 한다. 참배객이 많은 마애관음석불이 있는 기도처이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 02-993-3161)



충청도

◇**수덕사**=백제 말 창건된 수덕사는 근현대에 들어서서 경허 스님을 비롯해 만공, 수월, 벽초, 대의, 묘리, 일엽 스님 등의 고승이 주석, 선(禪)의 중흥지로 뿌리내렸다. 관음바위와 관음보살상이 덕숭산의 관음신앙을 보여준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041-337-6565)

◇**마곡사**=마곡사가 있는 태화산의 삼림욕은 국내 최고로 알려져 있다. 활인봉 앞에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생명수 샘터가 있으니 지친 목을 달랠 수도 있다. 마곡천을 사이에 두고 조성된 가람의 배치를 재미있게 볼 수 있다. 대적광전 관음벽화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할 수 있다.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041-841-6221)

◇**법주사**=신라 때 진표 율사에 의해 조성된 법주사의 미륵불 중심의 가람배치는 고려시대에 들어 화엄과 미륵을 함께 모시는 신앙형태를 취하다가, 근래 들어 다시 청동미륵대불을 조성해 다시금 미륵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다. 미륵도량 안에 관음전이 있어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043-543-3615)



전라도



◇**금산사**=미륵신앙의 근본도량 금산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3층 법당인 미륵전을 비롯 많은 전각과 유물들이 있다.(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063-548-4441)

◇**내소사**=내소사는 화려했을 단청이 세월의 흐름에 모두 벗어지고 오래된 나무의 결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어서 오히려 정감이 가는 절이다. 대웅전 관음벽화에서 관음보살님을 친견해 보자.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063-583-7281)

◇**선운사**=미당 서정주 시인의 '선운사 동구' 시비와 생가, 그리고 문학관을 함께 관람하면 새로운 감회에 젖게 된다.(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063-561-1422)

◇**백양사**=1,300년 동안 백양사 고승들의 가르침은 아직도 계절에 따라 꽃과 향기가 되어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다.(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061-392-7502)

◇**대흥사**=대흥사는 우리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한 두륜산의 빼어난 절경을 배경으로 자리한 절이다. 초의 선사를 배출한 차문화(茶文化)의 성지로 자리매김했다.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061-534-5502)

◇**송광사**=신라 말 혜린 스님이 창건한 후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주석하며 정혜결사(定慧結社) 운동을 일으킨 곳으로 열여섯 분의 국사(國師)를 배출한 승보사찰(僧寶寺刹)이다. 관음전이 있다.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061-755-0107)

◇**화엄사**= 각황전과 석등을 비롯한 웅장한 규모의 건축물들이 15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장엄하게 웅변하고 있다.(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061-782-7600)

부산 · 경상도



◇**쌍계사**=문성왕 2년에 우리 불교음악인 범패의 종장인 진감 국사가 중국유학을 마치고 다(茶) 종자를 가지고 와서 심은 곳으로, 범패와 선차(禪茶)의 고향이다.(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055-883-1901)

◇**동화사**=우리나라 최대 약사대불이 봉안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박물관도 자리하고 있다. 수좌스님들이 정진 중인 금당선원의 협시보살이 동화사의 대표적인 관음보살상이다. (대구 동구 도학동, 053-982-0101)

◇**은해사**=은해사는 추사(秋史)체의 보고이다. 일주문을 지나 2층 누각의 편액인 '보화루(寶華樓)'와 일직선상에 있는 '대웅전(大雄殿)' 편액 또한 추사의 글씨이다.(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인리, 054-335-3318)

◇**해인사**=팔만대장경이 봉안된 해인사는 가장 많은 500여 대중이 모여 사는 절이다. 한번쯤 인경(印經)을 해보거나 산사체험을 신청해 동참해 보자.(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055-934-3002)

◇**직지사**=직지사는 고구려 아도 화상이 신라에 불법을 전하기 위해 내려오다가 세운 절로서 16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관음전에서 관음정근을 해보자.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054-436-6174)

◇**고운사**=고운 최치원 선생과 인연이 깊은 고운사는 지장신앙으로 유명하지만, 관음보살님을 원통전에서 친견할 수 있다.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동, 054-833-2324)

◇**기림사**=신라 선덕왕 12년(643) 창건된 기림사는 임진왜란시 경주지역의 승병과 의병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관음전에서 각자의 관세음보살을 만날 수 있다. (경북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054-744-2292)

◇**불국사**=청운교와 백운교를 지나 자하문을 통과하면 대웅전이 나타나는데, 이곳이 바로 석가모니부처님이 계신 깨달음의 세계이다.(경북 경주시 진현동, 054-746-9912)

◇**통도사**=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불보종찰(佛寶宗刹)이기에 대웅전에는 건물 뒷면에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설치, 불상을 따로 봉안하지 않는다.(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055-382-7182)

◇**범어사**=범어사는 의상 대사가 창건한 화엄십찰의 하나인데, 근현대에 선종사찰로 탈바꿈했다. 관음전은 유명한 관음성지이다. (부산 금정구 청룡동, 051-508-3122)



강원도

◇**신흥사**=신흥사는 652년(신라 진덕여왕6)에 자장 율사가 향성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고, 9층사리탑을 지었다고 한다. 698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701년에 의상 스님이 선정사(禪定寺)로 중창했다. (강원 속초시 설악동, 033-636-7393)

◇**월정사**=월정사가 있는 오대산은 예로부터 5만 보살이 머무는 불교성지로 여겨져 왔다. 현재는 오대산 적멸보궁, 그리고 문수보살의 성지인 상원사를 찾는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보박물관에 봉안된 육수관음상이 유명하다.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033-332-6664)

◇**법흥사**=5대 적멸보궁 중의 한 곳. 신라 때 자장 율사가 당나라 청량산에서 수도하던 중 문수보살로부터 석가여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전수받아 643년에 귀국한 뒤, 이 절을 창건해 진신사리를 봉안했다. 관음보살은 극락전 협시보살로 모셔져 있다. (강원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033-374-9177)

◇**구룡사**=치악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구룡사는 1340년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대웅전(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4호), 보광전(도 유형문화재 제145호), 삼장탱화 및 복장유물(도 유형문화재 제136호) 등 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다. 관음전이 있다. (강원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033-744-8100)



성원사 여름 수련 대회

■기 간 : 제10차. 2008.8. 2 - 8. 5 (3박4일)
제11차. 2008.8.11 - 8.14 (3박4일)

■장 소 : 강릉 소금강옆 자연경관이 수려한 성원사 수련관

■대 상 : 17세 이상 건강한 남 · 여
예불.염불선방법.참선의자세.불교기초교리.사경.발우공양.묵언 등의
수행생활을 스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접수처 :
TEL. 033)661-5736 성원사 종무소
TEL. 033)642-0143 성원 유치원 교무실
TEL. 033)642-0142 강릉 포교당 성정사
TEL. 02)3288-3386 서울포교당 정중선원
(대치4동 894-5포스코더샵 과 롯데캐슬 옆)

※ 성원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http://www.sungwonsa.org http://www.sungwonsa.com http:성원사.org

2008수덕사 여름 禪 수련회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고 불조의 선맥이 계승되고 많은 고승선덕을 배출한 한국불교의
선지종찰에서 일상의 생활을 떠나 참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 보시기 바랍니다.

	일 정	기 간	프로그램명	수련비	참가인원	대 상	마감일(선착순)
1차	8월 2일~ 3일(토~일)	1박 2일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3만원	100명	어린이	7월 26일
2차	8월 6일~ 9일(수~토)	3박 4일	수덕사 여름禪수련회	8만원	60명	일반 (중학생이상)	7월 30일
3차	8월 13일~16일(수~토)	3박 4일	수덕사 여름禪수련회	8만원	60명	일반 (중학생이상)	8월 6일
4차	8월 20일~23일(수~토)	3박 4일	수덕사 여름禪수련회	8만원	60명	일반 (중학생이상)	8월 13일

• **준 비 물** : 세면도구, 속옷과 여벌의 티셔츠(민소매 삼가), 양말, 수건, 바지(칠부이상), 우산
• **입금안내** : 계좌번호 310060-01-005443 / 은행명 : 우체국 / 예금주 : 수덕사
• 신청서에 희망날짜와 차수를 꼭 기입해주세요
• 각 차수의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소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각 수련회 일정표는 수덕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조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수덕사 종무소의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선지종찰 덕숭총림 수덕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번지 / ☎ 041)337-6565 www.sudeoksa.com

수월관음도

사찰법당과 스님 접견실에 걸으면 품격 가정에 걸으면 재난과 액운을 쫓고 번영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사는 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에 좋은 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수월관음도는 불화의 대가인 법성께서 판화한 대작으로 수월관음도를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 번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에 감탄을 하고 둘째는 섬세한 선율에 어떻게 이렇게 그릴수가 있을까하고 감탄을 한다. 수백년을 이어갈 사찰의 소장품으로 가치가 있으며 스님 개인 소장품으로 손색이 없다.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가보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거실에 걸면 집안의 분위기가 품위있게 바뀐다. 2단 돌출 최고급 표구와 100% 천연코튼판화지에 판화된 수월관음도는 수백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게 베르린왁시를 처리한 특별 제작된 불화로 이제 두 번 다시 재현할 수 없는 국보급 세기의 불화다.

일부 시중에는 본 불화를 컬러복사해 표구를 그럴듯하게하고 베르린 왁시 처리를 하지 않아 2~3년만 지나면 색상이 탈색되고 진품 인양 판매하고 있으므로 표구 뒷면에 불광사의 보증서와 소장인란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안전하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 택배로 안전하게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 195,000원

※ 사찰 스님 신청시 20% 할인 특별보시.

문의 (02)741-4488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 필승합격과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 마친 비방!

필승 합격을 기원하는 선물로도 품격! 필승 합격을 기원하는 스님 선물로 최고!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웠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아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 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 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음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준비를 하고, 승진도 마찬가지다.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인도양 수심 100m~150m에서 채취한 청궁석(일명 용궁석) 원석이며 받침도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리며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수험생에게 필승의 영험을!

보시가격95,000원 (사찰스님 신청시 20%할인)

전화 (02)741-4488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대입수험생, 중고등학생, 승진을 준비하는분, 로스쿨준비생, 사법고시 준비생, 행정고시준비생, 공인중개사, 세무사, 기술고시준비행, 공무원시험준비생 등 각종시험 준비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와 가피로 필승하게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영험의 비방법구다. 보궁여의주를 받으시면 수험생 책상위에 놓아주면 집중력과 마음의 안정도 찾게된다.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 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 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개업 스님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보시가격:85,000원

문의 (02)741-4488

입금은행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스님 신청시 20% 할인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인도산 천연 백수정 54염주

평생 인연의 귀인을 만나는 인도 전설의 염주

화제의 염주 인도에서 스님과 지도층 인사들 사용



수입 기념 특별선물

- 스님께는 천연백수정 27주 법륜염주
- 불자님께는 천연백수정 합장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54법륜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 있으면 인연의 귀인을 만나는 행운과 그 인연으로 인해 원하는 계획이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다. 세상사는 동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연법으로 한 사람의 좋은 인연의 만남으로 평생 인생이 바뀌는 것과 계획한 것이 쉽게 성공되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원대한 불사계획을 가지고 계신 스님, 원대한 불사를 시작했으나 어려우신 분, 중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 평생 인연의 짝을 찾고 계신 분, 건강이 나빠 인연의 의사를 만나고 싶은 분 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54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천연백수정 54염주 외 스님께는 천연백수정 27주 법륜염주를 일반불자께는 천연백수정 손목합장주를 수입기념 특별 선물로 드립니다.

가격 95,000원 (사찰스님께는 20% 할인)

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용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

자동차 사고예방의 영험! 생명을 보호하는 비방!



차안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차를 종종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귀족여성들과 전장에 나가는 장수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들에게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 서 목각으로 만든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는 한명도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설화에 따르면 원효대사가 태종 무열왕의 딸 요석 공주에게 세상이 험하니 몸에 꼭 지니고 다니라고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선물한것이 인연이 되었다고도 전해진다.

■ 아내와 자녀에게 안전의 선물
■ 스님께서 아끼는 불자에게 안전의 선물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살인, 납치, 강간, 유괴, 실종, 하루에도 수백명씩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등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을 하는 남편에게, 스님께서는 아끼는 불자들에게 귀중한 선물이 될것이다.

1500년전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미륵반가사유상 호신불 앞면에는 미륵반가사유상을 넣고 뒷면에는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옴"자와 백연화 넣었으며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다. 청동으로 제작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여성은 지갑속에 자동차는 운전석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45,000원.

문의(02)741-4488(사찰스님 20%할인)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 아 래 ◁

1	대령/관욕	17	지장불공	33	아침저녁종성
2	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18	삼대화상중명불공	34	향수해례예불
3	상용영반	19	종사관욕	35	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4	회심곡(화청)1	20	종사영반	36	생일불공
5	회심곡(화청)2	21	가사불사의식	37	상주권공48제의식 1
6	구병시식	22	신중작법39위	38	상주권공48제의식 2
7	관음시식	23	간단한 신중작업	39	상주권공48제의식 3
8	점안의식	24	전통조석예불	40	상주권공48제의식 4
9	방생의식	25	천수경/장엄염불	41	제사불공
10	사물 다루는 법	26	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42	삼신이운
11	안택	27	사시상단불공	43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1
12	시다림	28	작법무(복청게천수)	44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2
13	산신불공	29	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45	화엄시식
14	미타불공	30	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46	약사여래불공
15	신중불공	31	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47	교재2권 100,000원
16	관음불공	32	삼보통청		

제11기 의식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며, 범패 하계특별교육을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계좌 : 농협 641010-56-000296 (노연숙) ◆ **제품 구입처 : 종무소 ☎ 062)362-8604 / 혜공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학장 혜공 스님**

진정한 은사님처럼 기소와 범패신동의식 교육을 잘 섞어 주는 교육 장소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임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 (유발자도 가능)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 안채비 : 각종불공의식, 49재의식, 천도재, 신중작법의식,각종소, 낭독하는법
- 겉채비 : 바라춤,도량게작법, 다게작법(나비춤), 사물다루는법, 화청(회심곡)

◆과 정 : 2년(4학기)

◆입 제 식 : 2008년 8월 19일 화요일 오후 3시

◆통신생 출석교육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일요일 12시까지

◆상좌 각배교육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1학년
매주 월요일 오후3시 ~ 5시30분까지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2동 759-1 4(우 502-242)

◆학 장 : 혜공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계좌번호 : 농 협 641010-56-000296 (예금주:노연숙)

한국불교의식대학 범패교육기간

〔2008년 8월 19일 ~ 8월 22일 3박 4일〕

- 교육시간 : **오전 9시부터 ~ 오후 6시까지(오전시간 : 강의, 오후시간 : 실기교육위주)**
- 8월 19일 오후 2시 : 입회식 후 시련절차 실기, 대령관욕 보소청진언, 화청(회심곡), 원아계교육
  저녁시간 : 사물 다루는 법 - 북, 태령, 목탁, 요령
- 8월 20일 8시 30분 : 점안의식, 가사이운식(짓소리녹음), 화청(회심곡), 낙성식하는 법, 법종불사 의식하는 법
- 8월 21일 8시 30분 : 상주권공, 지장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상축하는법, 창흥의식하는 법, 부도 제막식하는 법, 삼재기도하는 법
- 8월 22일 8시 30분 : 용왕불공 및 방생의식법, 소창불, 39위 신중작법, 종사영반 종사관욕, 큰불사시 관음에 법하는법
- 준 비 물 : **가사장삼, 필기도구 일반불자 - 평상시 복장, 필기도구, 소형녹음기**

부처님 말씀과 함께 무더위도 안녕~

맛깔스런 여름휴가를 위한 마음의 팥빙수! 지성미 넘치는 불자에게 권한다. 불교출판문화협회 회원사가 선정한 휴가의 참맛을 돋우어 주는 불서 '잇 북(it book)'이다. 떠나는 곳이 어디든 부처님 말씀과 함께라면 마음의 보약 한 첩 따로 없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 동국대출판부 |

왜 인도에서 불교는 멸망했는가
호사카 슈운지 지음 | 김호성 옮김
한걸음더 펴냄 | 1만2000원



부처님의 고향 인도. 그러나 인도는 불교가 없다?
인도불교 멸망의 다양한 원인 가능성을 7~8세기 서인도 불교 사정을 전하는 이슬람 사료 〈차츠나마(Chachnāmah)〉에 근거해 접근한다. 한 종교의 멸망을 넘어 문명의 멸망을 의미하는 관점이다. 불교의 자타불이(自他不二)가 시대와 국가의 중심 이념으로 자리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

| 동쪽나라 |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스님 지음 | 류시화 엮음
동쪽나라 펴냄 | 8000원



한 여름내 졸음에 빠져 무가치하게 보내던 당신을 강원도 산골 오두막으로 초대한다. '나는 누구인가' 거듭 묻는다. 내세움 없이도 온전한 넉넉함은 스님의 절제미를 오롯이 담는다. 침묵의 풍요가 더없이 그리워지는 날 함께하기 좋은 책이다.
〈산에는 꽃이 피네〉는 스님이 여러 해 동안 법문하신 말씀을 엄선한 첫 어록집이다. 그 말씀 배경에 놓인 침묵의 세계를 류시화 시인은 고스란히 전하고자 노력한다.

| 민족사 |

왕초보 불교 · 경전 · 수행박사 되다
석지현 • 윤창화 • 일지 | 계환 스님
고명석 지음 |민족사 펴냄 | 각 9500원



왕초보를 위한 불교 • 경전 • 수행의 정수만 쏙쏙 뽑았다. "불교는 복잡해" "경전은 어려워" "수행은 심오해" 노래하던 왕초보를 진리의 세계로 안내하는 불교입문서다. 영어를 듣기 • 읽기 • 쓰기 • 말하기 순서로 공부하듯 기본기부터 탄탄히 왕초보시리즈 순서대로 하다보면 어느새 일취월장 불교박사가 된다.

| 법공양 |

법구경 : 불타의 게송
등하 옮김 | 법공양 펴냄 | 9000원



'그대의 주(主)를 따로 찾지 말라. 그대가 바로 그대 자신의 주, 자기를 조복(調伏)받는 자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주인을 찾은 것이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이 본래 지니는 참된 마음, 그러나 무명과 번뇌의 업에 휩싸여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은 세세생생 자유롭지 못하다. 진리의 노래 〈법구경〉은 초심자의 입문서이자 오래된 불자는 물론 구참 수행자의 초심을 일깨우는 지침을 모은 게송집이다. 쉽고 간결한 법문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깊이와 날카로운 함의로 현묘한 법을 전한다.

| 불광출판사 |

10분 해탈
용타 지음|불광출판사 펴냄 | 1만2000원



마음의 운영자인 당신, 10분간 해탈할 수 있다면?
지고한 해탈을 기원하는 용타 스님의 생활 수행 에세이 〈10분 해탈〉이다. 마음의 극락을 향해 궁극의 행복이라는 보물을 찾아 떠나는 수행지도다. '부처님은 어디에 계신가' 묻는 이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이 활불(活佛)이라 정의한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한 당신은 활불이다.

| 불교시대사 |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
이미령 지음 | 불교시대사 펴냄 | 1만원



덧없고 위태로운 인생살이 당신의 동반자는 누구?
삶의 갈피를 넘기며 스스로 묻는 이에게 맛깔스럽게 읽어낸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을 권한다.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 그 이름 그대로 세상의 생명체를 두루 보살피는 어머니의 손길과 같은 분이다.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내가 바로 세상의 관세음보살'이라고 말한다. 넓고 큰마음, 언제나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삶의 주인자리를 되찾게 되기를 바란다.

| 솔바람 |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앙리 브뤼넬 지음 | 크리스티앙 루 그림
임희근 옮김 | 솔바람 펴냄 | 1만2000원



선(禪)은 길의 어느 끝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길 그 자체다. 나비 스님과 철없는 행자 똘망이의 떠돌이 구도행각을 담은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는 걸어 잠근 마음의 빗장을 푸는 수행동화다. 자아의 소멸을 위해 삿갓을 쓰고 발우와 지팡이만 든 채 사방팔방 누빈다. 괴로움의 원인인 존재의 집착을 비우는 여정이다. 영원한 자유는 여덟 가지 바른 길에 있다. 긍정의 힘으로 마음 챙김 하다 보면 갈피를 못 잡고 떠돌던 마음에 확고한 점 하나 찍는다.

| 우리출판사 |

날마다 읽는 부처님 말씀
홍사성 지음 | 우리출판사 펴냄 | 1만2000원



어려운 경우를 만나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날마다 읽는 부처님 말씀〉은 한역된 4아함 중 472개의 작은 경전들로 구성된 〈증일아함〉의 100개 경전을 간추려 감상을 더했다. 필자의 경전 읽기 10년 공부가 맺은 뜻 깊은 결실이다. 부처님 말씀에 등불을 밝히다 보면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남다른 비법이 따로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 운주사 |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
정수일 글 • 그림 | 운주사 펴냄 | 9000원

부처님도 무한한 과거 속에서 세세생생 중생이었다.
번뇌와 업에 의해 삼계육도(三界六道) 생사를 윤회하던 부처님의 선업행(善業行)이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로 그려진다. 540편의 〈본생경〉을 만화 형식으로 엮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존경하도록 각색했다. 깨달음을 얻기까지 한없는 수행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 부처님. 고난을 견뎌낸 인내와 지혜는 새싹 불자들에게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선물한다.

| 장경각 |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 스님 지음 | 장경각 펴냄 | 4900원

'모든 생명을 부처님과 같이 존경합시다.'
성철 스님이 종정으로 계시는 동안 불자들에게 전한 말씀을 법어집으로 엮었다. 물질만능에 휘말린 자신을 바로 보며 사바의 참모습에 여여해진 마음을 확인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처처에 자리한 본래 부처에게 '적(寂)과 멸(滅)이 둘이 아닌 보이는 만물이 모두 관음'이라 한다. 여름의 푸른 숲 깊은 곳에서 황금빛 꾀꼬리 목소리를 뽐내며 장엄하는 부처들을 향한 환희로운 찬미다.

| 정우서적 |

붓다의 발자국
김미숙 지음 | 정우서적 펴냄 | 1만2000원

한량없는 부처님 말씀 짧디 짧은 인생에서 다 헤아릴 수 있을까?
〈붓다의 발자국〉은 문화 속 부처님이 걸어간 길을 통해 오늘날 부처님을 따르는 이들이 가고 있는 길과 가야할 길을 성찰한다.
본래 부처라는 절대 명제를 향한 길목에서 징검돌이 되는 불교문화 서적이다. 익숙한 경전 구절들을 새롭게 재해석해 다양한 사진과 읽기 편한 문체로 불교문화를 풀어간다. 생활 • 상징 • 의례 • 문화의 다채로운 이야기는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불교를 모색한다.

| 조계종출판사 |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목경찬 글•사진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2000원

"힘겹게 찾아 온 부처님 품 안, 잠시 자리해 내 마음속 부처님 나라로 다녀감이 어떠합니까?"
역마살 넘치는 사찰 기행가 목경찬은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왜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었다고 하지?"로 시작된 저자의 궁금증이 불법과 만나 날개를 달았다. 대중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도량인 사찰에서 불법이 지닌 다양한 형태의 자비심으로 파도처럼 일어나는 상념의 물거품을 마음의 도화지에 그린다.

| 동국역경원 |

비유와 인연설화
법정 편저 | 동국역경원 펴냄 | 8000원

'지혜있는 사람은 정신을 기르고 어리석은 자는 육신만을 기른다.' 빈틈없는 일상에 쪼여 지내던 이들에게 추천하는 한 권의 불서다.
〈현우경〉 등 '본연부(本緣部)'에 속한 경전을 중심으로 부처님이 보살로서 남을 이롭게 한 선근 공덕을 짤막하지만 깊이 있는 대화로 들려준다. 포근한 감성이 전하는 연기적 진리다.
〈비유와 인연설화〉는 잔잔한 비유의 우언(寓言)으로 부처님이 훈계하는 교리를 해석한다. 미식가가 요리를 음미하듯 의미를 읊조리다 보면 지혜의 뿌리를 다독이는 교훈이 당당한 실존으로 몰입하게 한다.

국제 육조정맥선원이 대웅전 건립 후 두 번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초유로 이루어지는 법융선사 심명 법문을 전강대선사님의 인가를 받은 명안종사,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법의 향취에 취해 생사해탈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릴 인연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육조정맥선원의 수련회는 종파와 종교를 초월합니다. 어떤 종교, 종파에 속해 있더라도 상관없이 다만 깨달음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수련회로 인해 8월의 서울, 포천, 광주, 부산 법문 쉽니다.

- 일 시 : 2008년 8월 13일(수) ~ 8월 17일(일)
- 회 비 : 80,000원 (농협 100039-51-043731 예금주 : 최주희)
  입금하시고 010-8670-1445로 성명 / 입금자명 / 연락처 알려주세요.
- 문 의 처 : 010-8670-1445 / 02-3494-0122 / 011-785-0122
-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약도 등 관련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수련회 당일 광릉내 707번 종점에 오셔서 031-531-8805로 전화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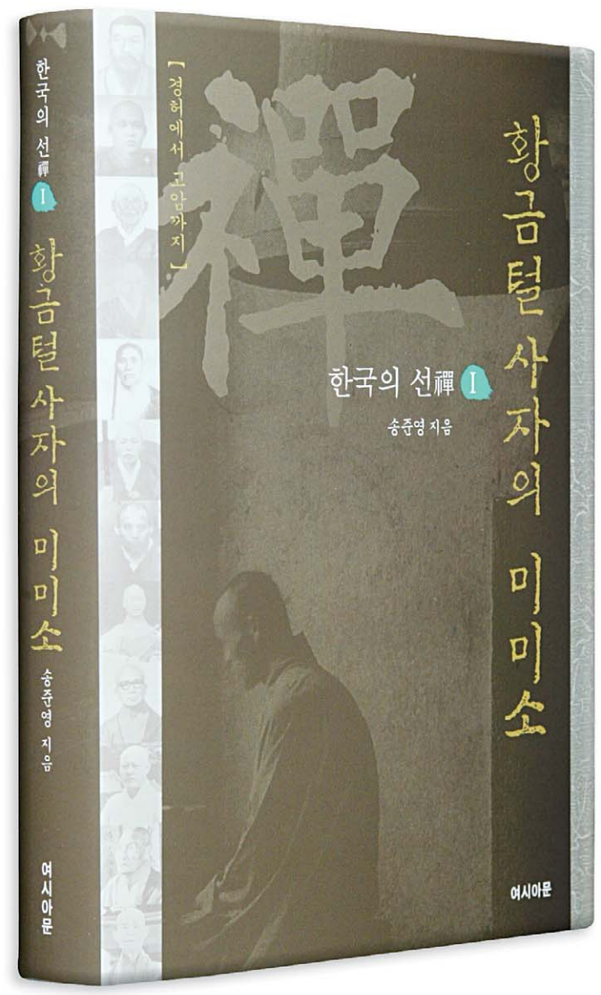

경허 | 용성 | 학명 | 만공 | 한암 | 만암 | 만해 | 효봉 | 혜암 | 동산 | 경봉 | 고암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저자 송준영 선생이 말하는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 책의 제목이 뭔가 큰 느낌을 주는데 무슨 뜻인지요?

'황금털사자'는 선시에 나타나는 '금모사자(金毛獅子)'의 한글 번역입니다. 문헌상 처음 금모사자란 이름이 보이는 것은 당대에 어떤 선사가 조주 선사에게 준 "구름 속에 황금털사자가 나타나더라도/정안에 길조가 아닐 텐데"라는 게송에서 보입니다. 중국 오대산 청량사는 화엄종의 4조 청량국사를 기리어 건립하였는데, 청량국사가 설법할 때에는 구름 속에 황금털사자가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황금털사자란 우리의 본원의 면목을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선시에 보이는 무한 실상의 표현입니다. 흔히 선가에서 이르는 부지(不知)니 불식(不識)이니 불회(不會)의 형상화입니다. 이 책에서는 근현대의 선지식이 우리에게 흘러 보내는 자비심의 실상, 이것의 다른 이름입니다.

- 선시를 통해서 선사들의 생애를 조명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선도 전문적 안목을 필요로 하고 선시도 그렇습니다. 문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선시가 조사들의 가풍을 이해하는 좋은 창이 될 수 있을까요?

조사님들의 선시는 모두 중생의 눈을 뜨여주려는 자비심의 발로였습니다. 시인은 새로운 미학, 즉 시인이 본 이면의 세계, 피어나는 찰나에 대한 아름다움을 언어로 보여주고자 하는 세계라면 선장들은 생동하는 우리 삶을, 에너지를 이념이나 되새김 없이 바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와 선이 서로 만나집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 선시는 우리는 본원지, 대자유지인 실상에서 만나게 하는 데 받혀져 있는데 반하여, 시는 시라는 장르에 의해 써진 언어의 아름다움인 미학적인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선시이던 모두 중생을 눈뜨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읊어졌기 때문에 언구에 있어서 새로운 문장이나 전승된 문장이냐는 관계없이 나타납니다. 선시는 문학의 관심과는 1차적으로 직결된다기보다 선 도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표현되어지지 않는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선시 고유의 수사학이 발달되는데, 이것이 선시의 반상합도, 선시의 초월은유, 선시의 무한실상 등의 모순적 어법에 의해 합도 되는 다른 빼어난 세계입니다. 이것이 오늘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하는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선시의 표현법은 이미 1000여년 계승되어 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위의 수사법은 아방가르드 시나 후기현대주의 시의 중심 사상을 옮기는 수사학과 거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시를 잘 이해하므로 조사들의 가풍은 물론 실험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 책은 어떤 구조로 짜여 있는지요. 자료 수집에 애로사항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허 스님에서 전강 스님까지 11명 선사들의 게송-상당법어나 소참법문-직접 쓴 서문이나 서간문-투고 글-대담-선사의 대기대용-선의 법맥-선화로 본 행장-연보 등이 순서대로 실려 있습니다. 가능한대로 문도회서 만든 어록이나 법어, 그리고 학자들이 기록한 근거 있고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로 한정하여 묶었습니다. 그리고 문도회에서 직접 묶은 어록이 없을 때는 그의 스승이나 제자의 어록들을 찾아 제 편집하였습니다. 막상 이렇게 찾아 나서다 보니 턱없이 부족하여 구술된 자료들도 문증하여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책은 '한국의 선시 1'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 경허 스님에서 전강 스님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시리즈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2권의 자료가 거의 준비되고 있습니다. 고암, 금오, 청담, 탄허, 성철, 서옹 등등의 제 선사들의 선시와 선, 2권 역시 12명의 선사를 기록할까 합니다. 특히 1권에서 자료부족으로 싣지 못했던 혜월 선사에 대해 기록할까 합니다. 혹 귀중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수월 선사와 혜월 선사의 자료를 보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올 겨울이면 제2권이 간행될 것입니다.

■여시아문 02)2004-8237 | 016-217-4845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 : (주)에이치비엠씨